

2023

사회적농업 기본 교육

자료집

2023년 3월 29일 ~ 30일

KT 대전인재개발원

목 차

1. ‘2023 사회적농업 기본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005
2. 기조강연	007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회적농업의 정의와 나아갈 방향	009
황영모(전북 연구원) : 지역서비스공동체의 의미와 방향성	051
3.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075
전문가 강의 : 안병은(행복한우리동네의원, 협동조합 행복농장)	077
사례발표 : 최정선(협동조합 행복농장)	099
패널토론 : 도을주(호미랑농업회사법인㈜)	117
권영석(㈜그리니쉬)	129
4. 노인과 사회적농업	139
전문가 강의 : 김영란(목포대학교)	141
사례발표 : 이은경(여민동락영농조합)	153
패널토론 : 이숙자(횡성언니네딴밭 영농조합법인)	159
정훈영(천안북도면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167
5. 청년과 사회적농업	171
전문가 강의 : 정민철(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173
사례발표 : 문영규(곡성 향꾸네 협동조합)	213
강승희(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219

6.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245
전문가 강의 : 최대희(이랑협동조합)	247
사례발표 : 고제현(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261
패널토론 : 방대진(희망그린마을)	271
문연상(큰나무캠프힐)	275
7. 아동·청소년과 사회적농업	281
전문가 강의 : 조미형(함께하는 연구협동조합)	283
사례발표 : 강부경(다운영농조합법인)	291
패널토론 : 김윤희(에코마실)	307
최선희(땡큐베리팜)	317
8. 지역서비스공동체	327
전문가 강의 : 권혁범(여민동락 영농조합)	329
사례발표 : 신소희(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353
변화경(거창 사농 지역네트워크)	367
패널토론 : 박진숙(함께하는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373
9.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소개 & 신청서 양식	383
10. 메모장	393

2023 사회적 농업 기본 교육

1일차 - 3월 29일(수)	
12:30 ~ 13:00	점수
13:00 ~ 13:30	여는 마당 인사말, 교육 안내
13:30 ~ 15:30	기조강연 1 : 소강당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농업의 정의와 나아갈 방향
15:30 ~ 15:50	휴식
15:50 ~ 16:50	기조강연 2 : 소강당 황영모 전북 연구원 지역서비스공동체의 의미와 방향성
16:50 ~ 18:30	질의응답 김정섭 / 황영모
19:00 ~ 21:00	저녁식사 & 네트워크 파티 4층 연회장

2일차 - 3월 30일(목)			
~ 08:20	아침식사		
08:20 ~ 10:00 전문가 강의	제1연수원 116호	제1연수원 210호	제1연수원 403호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안병은 행복한우리동네의원, 협동조합행복농장	노인과 사회적농업 김영란 목포대학교	청년과 사회적농업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10:00 ~ 10:20	휴식		
10:20 ~ 11:10 사례발표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여민동락영농조합 이은경	곡성 향꾸네 협동조합 문영규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강승희 10:20 ~ 11:40
	도을주 호미랑농업회사법인(주) 권영석 (주)그리니쉬	안병은, 최정선	정민철, 문영규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11:10 ~ 12:30 패널토론	점심 식사		
12:30 ~ 13:30	점심 식사		
13:30 ~ 15:10 전문가 강의	제1연수원 116호	제1연수원 403호	제1연수원 210호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최대희 이랑협동조합	아동·청소년과 사회적농업 조미형 함께하는 연구협동조합	지역서비스공동체 권혁범 여민동락 영농조합
15:10 ~ 15:30	휴식		
15:30 ~ 16:20 사례발표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고제현	다온영농조합법인 강부경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거창 사농 지역네트워크 변화경 15:30 ~ 16:50
	최대희, 고제현 방대진 희망그린마을 문연상 르나무캠프힐	조미형, 강부경 김윤호 에코마실 최신희 맥큐베리팜	권혁범, 변화경, 신소희 구자인 미올학원일소공동연구소 박진숙 함께하는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16:20 ~ 18:00 패널토론			

기초강연 1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농업의 정의와 나아갈 방향

기초강연 2

황영모(전북연구원)

지역서비스공동체의 의미와 방향성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실천 방향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사회적 농업, 개념과 성격

1.1. 배경과 용어

사회적 농업을 한국보다 앞서 개념화하고 정책 영역에 포함시킨 유럽연합^{EU}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care}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실천”¹이라고 정의한다.

현대적 형태의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은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었다.²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Franco Bagnoli, 1924~1980}가 1960년대부터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환경이었던 정신질환자 수용소^{asylum}를 해체하자는 운동에 나섰다. 바살리아는 폐쇄병동을 나와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간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³ 그중에는 농사를 주된 활동으로 삼은 협동조합이 있었다. 농업이 주된 경제활동인 농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과 지역사회로 돌아온 정신질환자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려 할 때, 농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것을 사회적 농업의 현대적 기원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정신보건 분야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들 중 농사를 짓는 협동조합(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고 불린다)이 지금도 운영된다.⁴

그 후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⁵ 실천이 퍼져나갔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서 과거보다 더 급격하게 확산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에는 이탈리아 농촌에서 농축산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571개에 이르렀는데,⁶ 그때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축산업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⁷ 이후, 사회적 농업 실천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일종의 운동으로서 확산하였다. 물론, 나라마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단위의 형식 그리고 관련된 제도나 정책의 양상은 아주 다채롭다. 그렇지만 공통된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 쓰이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의 정의^{定義}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몇 가지 열쇳말을 공유한다. 그 열쇳말들에서 ‘공통된 경향’을 짚어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지는 활동 유형으로 돌봄, 재활, 교육, 일자리 제공, ‘치료적 ○○’ 등의 단어들이 나온다. 이들 단어에 당연히 곁붙어서 ‘농업(혹은 영농)^{farming}’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의 배경으로서 ‘지역사회’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처럼 유럽에서 논의된 개념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정책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최초의 연구⁸에서 참조되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참조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아코보와 오코너 Jacovo & O’Cormor의 서술이었다. 이 서술은 《유럽의 사회적 농업 정책 지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등장한 것인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여러 회원국의 사회적 농업 연구자들이 함께 추진하게 한 정책 연구의 결과물이어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2년 2월 17일의 《광주매일신문》 기사일 듯하다. 이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념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사례가 처음 소개된 학술 논문에서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꿈이자라는뜰’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농장’이라는 표현을 썼다.⁹ 이 두 자료에 소개된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장애인’, ‘돌봄’, ‘지역사회’다.

이후, 한국 정부가 2018년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농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고 여러 개념 규정이 제출된 바 있다. 그중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할 때 노동통합, 돌봄, 직업교육훈련 등 세 가지 실천 유형의 맥아를 식별할 수 있다**”¹⁰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이것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그대로 반영되어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일견,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 등 ‘기능적 차원’은 드러나 있지만 ‘관계적 차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침상의 정의 규정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 실천의 관계적 차원이 한껏 강조된 지침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심지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예: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나, 타 정부부처의 정책(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 주민자치회,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등)과의 연계 혹은 결합을 권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회적 농업 판단 기준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사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 보건소, 병원, 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주민, 외국인 등
-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 건강증진센터, 학교, 학부모, 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응용 유도
 -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1.2. 사회적 농업 실천의 성격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care farming) 등으로 알려진 일련의 새로운 실천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함의와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세 가지 논점을 살펴본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인가, 사회복지 실천인가?

이 물음에 관해서는, 적어도 유럽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모종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 답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활동인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이 영농활동에 바탕을 둔다는 관점은, 장소만 농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 사회복지 기관이나 여타의 직능 단체가 수행하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라는 식의 개념 부여를 거부한다. 즉,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본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는 점은 필수 조건 중 하나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돌봄 농업이라는 용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고 제도상으로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와 가장 긴밀하게 접합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된다¹¹.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원한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히 다기능 농업이라는 개념이 전제되며, 이는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된 부분인 듯하다.¹²

사회적 농업의 핵심 실천 주체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혼종성(hybridity)을 갖는 다기능 농업이다. 즉,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가능성, 즉 농장이 농장이면서 동시에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농장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낸다.¹³ 그런데 농업인 개인만의 행위로 그런 종류의 ‘-되기’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관계하는 농촌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사회 연결망에 녹아든 실천이다. 그러므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취약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수용한 시설 안에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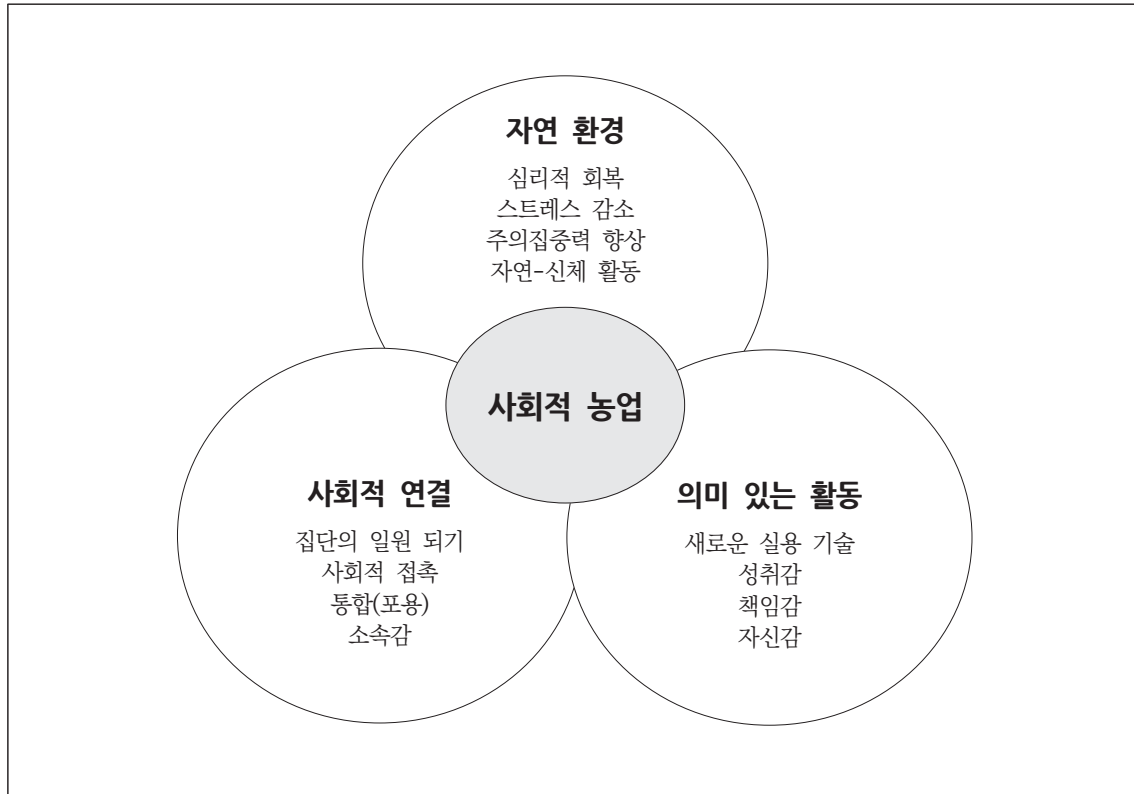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 서비스 및 건강 돌봄(health care)과 영농을 결합한다는 다기능 농업의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 사회적 농업은 아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지만, 어떤 경우든 두 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지닌다. 하나는 활동이 농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시적으로든 항구적으로든 특별한 필요(needs)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은 동식물을 포함한 농업 자원을 활용해 농촌 지역사회에서 재활, 치료, 보호받는 일자리(sheltered jobs), 평생학습, 기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활동 등의 사회 서비스를 생성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잠정 정의할 수 있다. …… 그렇게 보면 사회적 농업이란, 특별한 필요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발달을 도모하거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일상적인 영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농장을 바꾸는 일이다.¹⁴

사회적 농업은 전문화된 기능인가,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인가?

이 쟁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가져다주는 편익(또는 효능)이 무엇인가라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의 바탕이 되는 ‘관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시각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농장의 서비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는 이들(참여자(participant))에게 전해지는¹⁵ 편익이 단지 ‘농장 안팎에 있는 동식물과의 교감’ 또는 ‘자연환경과의 근친성’ 같은 요인에서만 비롯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 자원을 활용해 특정한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영역’이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편익은 그런 차원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그림 1). 사회적 농업 활동의 참여자(이용자) 개인의 교육학적·심리학적 변화(새로운 실용기술 습득, 성취감, 책임감, 자신감)가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그런 결과는 활동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망 안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집단의 일원 되기, 사회적 접촉, 소속감, 포용). 그래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단지 프로그램화한 치유서비스(healing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즉 ‘기능적(도구적) 관점’에서만 이해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림 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편익 범주



자료: Social Farming Ireland(2018), *Social Farming and the 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Activation Programme(SICAP)*, Ireland: Social Farming Ireland.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일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과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의 관계 구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농장이 단순히 진기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만 이해되는 경우로서, 그때 농민은 ‘서비스 판매자’가 되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매자’가 된다. 이는 시장의 거래 관계에 다름없다. 이런 관계 구도에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아주 많이 제약된다. ‘사회적 연결’이라는 부분이 박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구매력’이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둘째는 농민이 참여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로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때의 관계 구도는 ‘사회복지사-수급자’의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 설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뿐, 통상적인 농민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며,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자와 맺을 수 있는 비공식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장의 농민은 그저 지역사회의 주민이 되 농장을 찾는 이(그 역시 주민이다)를 환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계 구도다. 이런 구도에서 ‘사회적 연결’에서 비롯되는 편익이 최대화될 확률이 높다.

사회적 농업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포용적 실천

사회적 농업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부문이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그 사회적 편익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도 SH군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유급종사자로 일하는 H씨의 사례와 ○○남도 CG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B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H씨는 10년 넘게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중증 정신장애인이다. ○○농장이 설립되고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설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인턴십 과정을 거쳐 ○○농장에서 급여를 받고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을 아예 나와서 SH읍에 임대주택을 얻어 거주하며 농장으로 출퇴근한다.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던 과정에서 H씨에게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니까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유기농 허브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심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H씨의 대답은 ‘자유로워서 좋다’는 것이었다. H씨의 자유는 시설 안에서 거주할 때의 온갖 관리상 지침과 통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자유이지만, H씨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즉, 스스로 정신건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자유다. 그리고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H씨의 자유를 가능케 했던 것은, 행복농장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여준 환대와 관계 형성에 있다고 해도 다름 아니다. H씨의 생일이 되면, ‘마을부엌’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마을 농민 등 10여 명이 어김없이 축하해주고, 농장과 마을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접촉하게 되는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H씨가 누리는 자유의 바탕이다.

B씨는 CG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공동거주 시설, ‘PY’에 살던 인물이다. 영농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상당히 있는 B씨를 ‘PY’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가에 취직시켜 ‘장애인이 아닌 동네의 농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수년째 어느 농가의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주거를 ‘PY’를 나와, B씨가 근무하는 농장에 딸린 집에서 살고 있다. B씨 역시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B씨를 고용한 농민의 환대와 ‘PY’의 사회복지 사들이 보여준 끈질긴 노력이 한 사람을 지역사회에 통합시켜 낼 수 있었다.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농업 또는 사회복지)을 발전시키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지역 정책(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이상의 논의를 이어간다면,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사회를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바꾸어 내는 지역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던 초기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기반 실천’인가, 아니면 특별히 전문화된 ‘직능 영역(부문)’인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다. 아직, 논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 스며든 포용적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합의가 형성된 듯하다. 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긴밀하게 접합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달체계 자체가 ‘사

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탈리아에서 그런 관점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념 측면과 실천 측면 모두를 살펴본 우리는, 사회적 농업은 일종의 사회적 보호 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농업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돌봄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는 소외된 집단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통합'이라는 보호를 제공하며,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보호를 지향하는 다부문적이고^{multisectoral}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람들은 먹거리 보장과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완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고, 고용이 가능해지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으며, 돌봄과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자원 측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된 주변부의 인구 집단을 낙인찍거나 차별 같은 폐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기를, 사회적 농업은 서로 다른 여러 부문이나 분야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큰 도전을 직면한다. 그 도전은 농촌 발전 분야에서 여러 활동이 부문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부문별 접근 방법에도 전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지닌 농촌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방법론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¹⁶

‘사회적 농업’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현대적 형태의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은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었다.¹⁷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Franco Bagnoli, 1924~1980}가 1960년대부터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환경이었던 정신질환자 수용소^{asylum}를 해체하자는 운동에 나섰다. 바살리아는 폐쇄병동을 나와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간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¹⁸ 그중에는 농사를 주된 활동으로 삼은 협동조합이 있었다. 농업이 주된 경제활동인 농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과 지역사회로 돌아온 정신질환자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려 할 때, 농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것을 사회적 농업의 현대적 기원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정신보건 분야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들 중 농사를 짓는 협동조합(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고 불린다)이 지금도 운영된다.¹⁹

그 후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²⁰ 실천이 퍼져나갔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서 과거보다 더 급격하게 확산하였다. 2005년에는 이탈리아 농촌에서 농축산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571개에 이르렀다.²¹ 그때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축산업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²² 이후, 사회적 농업 실천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일종의 운동으로서 확산하였다.

2. 사회적 농업의 가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인간 사회의 구성원들이 먹거리 등을 얻고자 자연생태계에 개입해 유기물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활동이 농업이다. 농업 활동의 주체가 사람들(사회)이므로, 처음부터 농업은 ‘사회적인 것’이었다. 농업 앞에 ‘사회적’이라고 꾸미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은 ‘사회가 농사짓는다’는 것과는 다른 뜻으로 쓰인다. 사회가 농사짓는다고 할 때, 사회는 주어다. 그런데 ‘사회적 농업’에서 사회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은 ‘농업이 사회를 포용적인 곳으로 만든다’, ‘농업이 사회를 혁신한다’ 등의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이때 사회는 포용^{inclusiveness}, 혁신^{innovation} 등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된다. 달리 말해, 농업으로 사회를 새롭게 조형^{造形}한다는 뜻이다.²³

사회를 새롭게 빚어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먼저, 사회란 무엇인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²⁴ 간단히 말해, 사회적 농업은 사회를 더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고, 혁신하는 실천인데 영농을 그 주된 수단으로 삼는다. 이때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단어는 한 곳을 겨냥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의 다른 이름, ‘관계’의 모습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2.1. 사회적 포용

포용은 배제^{exclusion}의 반대말이다. 사회를 포용적인 곳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줄인다는 뜻이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 ‘관계’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그 관계들이 부족해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회적 배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가 끼니를 해결하려면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을 수 있다. 이때 그는 시장에 형성된 거래 ‘관계’에 진입할 수 없어서 굶는다. 시장 관계로부터 배제되었어도, 함께 살면서 보살펴주는 가족이 있으면, 친절한 이웃이 있다면, 마을 경로당에라도 갈 수 있다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그는 공동체 ‘관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끼니를 거른다. 시장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마을 같은 공동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 부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군청

에서는 빈곤하고 홀로 사는 이들의 ‘밥 먹는 문제’에 대응하려 ‘도시락 배달 사업’이나 ‘반찬나눔 사업’ 같은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앞에서 예를 든 그 사람이 군청이 작성한 수혜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때 그는 행정적 ‘관계’에 포함되지 못해 곤경에 빠진다.²⁵

밥 먹는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는 아주 많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생활의 어느 한구석에서는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일상적인 생활양식^{lifestyle}을 함께 나누지 못할 정도로 도드라진 무력함을 낳는 “사회 내 주요 체계, 즉 공동체나 시장이나 행정의 붕괴 또는 기능 장애”를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지목한다.²⁶ 관계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많다. 가난해서, 장애인이어서, 인종이나 민족이 달라서, 노인이어서, 혹은 나이가 적어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등등.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실천이다. 가족이나 마을 같은 종래의 공동체나 시장이나 공공 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맞서, 농사짓는 농민이 나서서 지역사회를 포용의 장소로 바꾸자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다.

이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체^{media}로 농업이 새롭게 호명^{呼名}된다.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농업은 농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맺는 관계를, 즉 농사 경험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과 공유하는 실천이다. 그리고 농민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고, 그들이 속한 지역의 관계 밀도를 더 높이려는 실천이다.

사회적 포용을 지향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가 사회적 농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2018년 4월 19일, 조금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오전 8시, 동행기로 한 심사위원들을 서세종 톨게이트에서 만났다. 목적지는 자동차로 두어 시간이면 닿을 S군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영농사업단’이다.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응한 지역 현장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른바 ‘현장 심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하게도 S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가 이 정책 사업에 응모했다. 현장 심사 전에 진행한 서류 심사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전국에 약 250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농촌 지역에도 70개 정도가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활사업을 수행한다. 자활사업이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²⁷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활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하나가 자활근로사업이다. 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²⁸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나와 일정 정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생계 급여를 제공한다. 기준이 복잡하지만, 생계 급여는 대략 1인당 월 50만 원을 조금 넘는 듯하다. 지역자활센터는 대체로 업종이 다른 몇 종류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농촌에서는 업종이 농업인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것을 두고 흔히 ‘영농사업단’이라고도 부른다.

파산한 사람, 정신적·신체적 장애인, 발달장애인, 알콜중독 전력^{前歴}이 있는 사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등 다양한 사연곡절을 품은 이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다. ‘일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 또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참여자들이 자활^{自活}근로사업을 통해 직업 기술을 배우고, 일정 수준의 능력이 되면 취업하거나 창업함으로써 말 그대로 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속뜻이 있다.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사업체를 차린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을 자활 기업이라고 한다.

우리가 찾아간 S군 지역자활센터는 여러 해 전부터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영농사업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농사를 배워 자립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였다. 특별한 것은, 1년 전부터는 참여자들이 지역의 농민을 찾아가 그 농가에서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한 농가에 두세 명 혹은 서너 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농민들이 결을 내주고 자기 농장의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에는 지역 농민들과 함께 농사짓고 배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

그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장 심사에서는 그 계획이 거짓이거나 과장이 아니라는 점만을 확인하면 될 터였다. S군 ○○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느 마을로 들어섰다. 적당히 낮지도 높지도 않은 산의 계곡 끝자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젊은 직원이 나와 있었다. 완만한 비탈길을 10분쯤 걸어 올라가니, 산기슭에 1,500평 내지 2,000평은 뒹직한 밭이 보였다. 밭을 갈았지만 아직 작물을 심지는 않았다. 붉은 흙이 생생한 기운을 내뿜었다.

과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땅주인이 요구하면 다른 농지를 알아봐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서, 아예 S군의 도움을 받아 균유지를 장기 임차해서 밭으로 새로 일구었다고 한다. 밭 옆자락에는 작은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을 두고, 농기구나 자재를 보관할 창고도 만들고, 농작업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설명한다. 특히 휴게 장소가 중요한데, 영농사업단에 참여하는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이었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무렵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쪽으로 힘겹게 걸어 올라오시는 게 보였다. 얼핏 보아 60대 초반쯤 되는 듯했다. 영농사업단 일을 오랫동안 함께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한 분이라고 소개받았다.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계셨다. 지역자활센터 직원에게 설명을 다 듣고, 차를 세워 둔 마을 아랫쪽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영농사업단 참여자 아주머니 곁에 붙었다. 불편한 걸음에 보조를 맞추면서 슬며시 물어보았다.

“제 생각에는, 몸이나 정신이 불편하신 분들만 열댓 명 모여서 농사지으면 소출이 많이 나오기 어렵고 농사를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으니 힘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일반 농민들과 영농사업단 참여자들이 같이 농사를 지어봤다면서요? 어땠습니까?”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하신다. “아무렴, 그렇지요. 우리끼리만 해서는 힘들어요. 하여간 섞여서 함께 농사지어야 합니다. 정상인하고 장애인이 함께 있어야 차별 받는다는 느낌도 없고...”

답하기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친 김에 더 캐물었다. “방금 전에 보니, 밭이 아무리 크게 보아도 2,000평이 되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다 팔아도 큰 돈이 되기는 어려울 게 뻔해 보입니다. 게다가, 농사를 예지간히 짓는 농민들도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게 흔한 일인데, 여기 영농사업단은 수확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요?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바로 대답하셨다. “우리는 판로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은 물량이 적어도 무조건 S군 관내 학교 급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저런 상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학교급식 시스템을 통해 자활 영농사업단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두었어도, 실무 차원에서는 누군가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와 자주 협의해야 할 터이다.

S군 지역자활센터 직원은 그런 자리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분들 입장을 대변해야 할 테니, 바쁜 데 더 바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이 그런 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슬쩍 인사치레로 말을 건넸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다.

“S군에는 농산물 물량이나 가격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의논을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학교급식위원회라고. 거기에 가서 부탁하고 의논하는 일이 중요한데, 지역자활센터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갑니다. 제가 이래 봐도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이에요.”

‘아차,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농작업만 하고 대외 교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도 모르는 새 넘겨졌고 있었던 게다. 낙인^{stigma}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내가 낙인찍는 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내가 부끄러웠다는 것 말고는, S군 영농사업단 방문은 흐뭇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지역에서 그리고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먼저 자활 영농사업단의 생산물을 챙겨 구매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돌이켜보니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으로만 본다면 힘겨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이들과 함께 농사짓는 농장의 생산물을 일부러라도 구매하는 곳이야말로 사회적 농업이 펼쳐나갈 수 있는 지역임을 알겠다.

행복농장이나 젊은협업농장처럼 사회적 농업으로 알려진 농장이 여럿 있는 홍성군 장곡면에서 그 농사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일등공신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다. 동네 사람들은 ‘홍유’라고 줄여 부른다. 생산하는 허브, 상추 따위를 ‘홍유’에 출하하지 못한다면, 행복농장도 젊은협업농장도 휘청일 테다. 그 유명한 완주의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어르신, 발달장애학생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농장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야생화 등을 키우는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도 ‘조경 관련 사업을 하는 동네 아는 형님’이 어르신인 키운 꽃을 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사회적 농업을 두고 ‘사회적 약자들이 농사짓는 시늉을 내는 것’ 혹은 ‘농사 체험 프로그램만 조금 하는 것’ 정도로 본다면, 잘못이다. 사회적 농장의 농사도 여느 농민의 농사와 다를 바 없다.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숙련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생산한 농산물도 제값 받고 판매하기 힘든데, 사회적 농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을 특별히 우선 구매하자는 캠페인이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이른바 ‘윤리적 소비’라는 이름으로 그런 활동이 일어난다. 나는 도시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를 권하며 사회적 농장의 농산물 판촉을 시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은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는 지역사회 안에 형성되는 ‘지역 먹거리 체계’,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관여하거나 공공 기관이 관여하는 체계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는 편이다. 사회적 농업을 하는 농장의 수가 한국에서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2.2. 사회 혁신

흔히,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해 제품, 서비스, 생산과정 등을 바꾸어 편익을 만들어 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 아이폰^{iPhone}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를 두고 디지털 혁신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사회 혁신도 어떤 편익을 새로이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는 기술 혁신이나 비즈니스 혁신과 비슷하지만, 기술적 인공물을 매개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층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사회 혁신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혁신이다. 사회 혁신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편익이, 말하자면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재화^{goods}가 새로운 형태의 협업 활동

collaborative action을 통해 만들어진다.²⁹

유럽연합EU의 사회 혁신 정책 관련 문건에서는 더 명료하게 언급한다. 사회 혁신이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나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고(과정 측면),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결과 측면)을 말한다. 종래의 시장이나 기성 제도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면서, 사회 안의 취약한 집단에 관심을 두는 것”³⁰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농업 실천은 사회 혁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 앞에서 사회는 ‘관계’에 다름없다고 했는데, 사회 혁신이란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농민과 참여자의 관계** 차원이다. 서로 잘 모르고 지내던 농민과 참여자가 사회적 농업 활동을 계기로 관계를 맺는다. 이 같은 새로운 관계에서 참여자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social skill}을 증진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support}를 경험할 수 있다. 농민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³¹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인사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인]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챙기더라는 것이죠.”(B 사회적 농장 대표)

“어르신들은, 표현으로는, 사람 만나니까 좋다고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끼리도 사실 집에 있으면 안 만나잖아요. 다 자기 일하는 거잖아요. 자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좋다, 사람 만나서 좋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좋다, 같이 뭘 먹어서 좋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V 사회적 농장 대표)

“아는 할머니가 생기고, 아는 젊은이가 생긴 거죠. 서로 아는 사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 자식, 우리 동네 사람, 면사무소 직원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그동안. 그런데 지금 전혀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이 젊은 청년 열 두명이 [마을에] 왔다갔다 하는 거죠.”(M 사회적 농장 대표)

둘째는 **사회적 농장을 ‘만들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농민과 보건복지·교육 등 비농업 부문 직능기관 종사자의 관계** 차원이다. “농업 부문과 여타 경제·사회 분야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 기초할 때 사회적 농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반복 제기되었다. 사회적 농업은 영농활동을 바탕으로 하지만, 농업인만이 전유^{專有}하는 실천이라고 보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³²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 연구의 선두 주자이며 한국에도 꽤 알려진 하싱크^{J. Hassink}나 이아코보^{F. D. Iacovo}도 사회적 농업의 필요조건으로서, ‘서로 다른 분야 간에 새로운 관계 맺기, 소통, 협력’을 강조한다.³³ 하싱크 박사는 ‘농업, 돌봄 등 각각의 직능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을 넘나들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경계횡단자^{boundary spanner} 역할을 수행할 인적 자원’과 ‘협업을 위한 동기 유발’을 중요하게 언급했다.³⁴ 이아코보 교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행위자 간의 연

결’과 ‘부문들(농업, 보건, 교육 등) 사이에서 새로운 집합적 지식^{collective knowledge}과 혁신적 해법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환 과정^{process of transition}’을 역설했다.³⁵

사회적 농업은 ‘서로 다른 이들의 만남, 소통, 협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회 혁신의 핵심 요소를 간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종류의 실천을 가로막는 ‘칸막이 문화’가 퍼져 있다. 각 부문의 기관들, 특히 공공 기관들의 경우 경계선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이나 참여자에게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적 농장의 종사자나 영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에게 인건비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 일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장’ 관련 정책, 고용노동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은 인건비 성격의 급여를 허용한다. 그런데 지원 조건이나 자격이 ‘농장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행위자들이 접근해 활용하기가 아주 어렵다. 또 다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 급여를 들 수 있다. 농촌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다수가 수행하는 ‘영농사업단’ 등의 자활근로 사업은 그 취지와 내용이 사회적 농업 개념과 일치하는데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중복 지원’ 또는 ‘업무 분장의 불명확’ 등을 우려해 협력을 거부하거나 망설인다. 그 밖에도 각 직능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이 ‘전문성’ 문제를 들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에 미온적인 관행도 적지 않다.³⁶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경계횡단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2018년 당시에 이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했던 사례가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이다. 행복농장은 2015년에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 자체가 충남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의 농민들이 협력한 사건이었다. 이후,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협력하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들과 3년 정도 농장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2022년에는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상임이사가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는 사회적 농업을 계기로 농민과 비농업 부문 행위자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역의 보건기관을 찾아다니며 ‘함께 일하자’고 권유한 행복농장의 관계자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정신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소한 농장 환경에 노출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이들 모두가 경계횡단자다.³⁷

셋째는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차원이다. 앞에서 논의했듯, 사회 혁신은 새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관계나 협업을 만들어 내는 실천이다. 사회적 농업을 일종의 사회 혁신 실천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발상’이란 “농장이 농장이면서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³⁸ 상상력이다. 사회적 농업이 충족하려는 ‘사회적 필요’는 일차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이른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 농민의 필요일 터이다.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의 또 다른 측면인데, 그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수준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그 자체로 “사회의 행동 능력을 향상”³⁹ 하는 계기가 된다. 사회 혁신 논의에서 말하는 ‘사회’를 ‘지역사회’라고 본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행동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일까?

“단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역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의 주민이 지역성^{locality}을 지향하는 집합적 이해관심^{interests}에 바탕을 두고 행동할 때 지역사회가 구성된다.”⁴⁰ 즉, 단지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행동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러 주민이 지역의 어떤 문제를 두고 관심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때 비로소 지역사회가 출현한다. 그러자면 관심을 공유할 사람들(주민들), 이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 사건(계기), 모이는 장소(꼭 물리적 의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회의나 조직을 뜻할 수 있다)가 필요하다. 이때 지역사회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 논의할 장소를 두고 ‘지역사회의 장^{community field}’라고 부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장은 특정 지역의 주민 집단 안에 조직된 집단들이나 여타 상호작용의 장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를 가로지른다. 지역사회의 장은 특수화된 이해관계의 장이 지닌 여러 측면 중에서 지역성과 관련된 측면을 끄집어내어 연결하며, 서로 다른 영역들을 통합해 일반적인 전체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냥 두었으면 더욱 제한된 이해관심을 지향했을 여러 영역들 사이에 연결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수 이해관계 영역들로부터 지역사회의 장이 생겨나고, 이것은 다시 이들 특수 이해관계영역에 영향을 끼친다.”⁴¹

사회적 농업이 그저 농민과 특수한 필요^{special needs}가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머물 수만은 없다. 이들의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다수의 문제로 설정하고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 사회적 농업 실천은 그 자체로 새로운 ‘지역사회의 장’을 만드는 계기로 작동한다. 그렇게 마련된 장에서 각자의 좁은 이해관심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만나 더 큰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망하게 되고,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이 단초가 되어 지역사회의 행동 능력이 확장된 사례를, 한국에서도 여럿 관찰할 수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사회적 농업을 소개하는 짧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2020년의 일이었다. 강의를 요청한 곳은 거창군 농업회의소⁴²였다. 농업인들의 모임인 농업회의소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소개를 요청한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당일 강의장에 모인 면면^{면면}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대략 40여 명이 참석했는데, 강의장 왼쪽으로는 한눈에 봐도 농민임을 알 수 있는 중장년 남성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20명 정도 앉아 있었다. 오른쪽에는 남성도 더러 있었지만 여성들도 꽤 많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옷차림도 말끔한 편이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물어보니 오른쪽에 앉은 이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재활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 기관의 종사자였다.

중요한 것은, 왼편에 있는 농민들과 오른편에 있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물어보고 확인한 사실이다. 참석한 이들 거의 모두가 거창군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했지만, 평소에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농사짓는 농민과 보건·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서야 평소에 만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아무튼 이날 나는 ‘사회적 농업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도모해야 하는 실천’임을 강조하였다.⁴³ 거창군에서는 이후에도 이런 종류의 모임이 계속되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수십 명이 모인 ‘연구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 사회의 능력이 확장되는 과정의 중대한 사건으로 작용한 사례를 4장에서 소개한다.

농촌 지역사회를 돌보는 농민의 농업⁴⁴

농업사^{農業史}를 전공한 선배 학자에게 이렇게 부탁드린 기억이 난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농업·농촌의 변화를 한 마디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짧은 답변을 들었다. “농업은 발전했고, 농촌은 해체되었다.” 통계 지표만 보면 한국 농업은 수십 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반면에, 농촌 지역사회는 심각한 해체 위기에 노출되었다. 농업이 발전하면 농촌도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수만 평 농경지를 헤쳐 다니는 110마력짜리 대형 트랙터도, 안방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온실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스마트팜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줄지어 기다리는 대형 트레일러와 현대화된 농산물 물류 체계도,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는 관계없는 공허한 이미지다.

학교와 약국과 상점이 문을 닫고, 끼니와 이불 빨래를 못 챙기는 노인이 많고, 아이들은 방과 후에 그저 방치되고, 동네 할머니가 읍내에 나가려면 왕복 2차선 지방도로를 지나는 승용차라도 붙잡아야 하고, 한 해에도 수천 명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청년은 하릴없이 백수로 지내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져 격리되는 상황에서, 물색없이 떠드는 ‘농업 발전의 이야기’는 헛되고 헛된 말이다.

이쯤에서 ‘농업’과 ‘농촌’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반론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농업은 발전하는데, 농촌은 해체되는 역설’이 바로 그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가령, 학교가 문을 닫고 그나마 남은 아이들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학교를 유지하거나 없애는 결정은 교육 당국의 책임이지만, 시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농민의 아들 딸 아니던가? 나이 들고 병들고 빈곤해 처지여서 여러모로 운신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복지 계통 종사자들의 임무이지만, 그 어르신들은 얼마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농민 아니던가?

우리는 저마다의 직능이 뚜렷하게 나뉘고 갈라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농사는 농업인에게! 이처럼 사회 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것은 산업자본주의 체계가 성립한 이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분화는 불통의 씨앗을 간직하기 마련이며, 전문화는 폐쇄성의 암초를 만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사회 체계의 기능적 분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분화 과정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체제^{regime}가 중요하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각자의 직능에 충실한 주민들이 많지만, 그 사이에 소통과 개방성을 장려하고 드높이는 실천이 더불어 펼쳐져야 한다. 현재의 기능을 성찰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의 경계^{境界}를 뒤흔들고, 그어진 금을 밟았다고 비난받거나 처벌당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라고 상찬^{賞讚}되며, 한 동네 살아가는 일이 다르다며 안 만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궁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별 것 아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어느 면^面 지역 파출소장은 홀로 사는 빈곤층 노인 집집마다 순경을 정기적으로 보내 안부를 살피는 ‘문안 순찰’ 제도를 운영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용의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농촌 노인들 안부를 챙기고 다녔으니,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고 비난해야 하는가? 경찰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하면서 노인들 안부 이사를 챙긴 것은 질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런 사례를 두고 혁신이라 이른다.

마찬가지 논리로, 농사짓는 농민이 지역사회의 아동들(알고 보면 한두 집 건너 아는 집 자식이다)을 농장에서 돌보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일을 하는 농민더러 교직이라는 울타리를 침범했다고 비난할 텐가?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내 소원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살다가, 자식 죽으면 그 다음 날 죽는 것이다”라며 탄식한다. 고등학교 졸업한 발달장애 청년을(역시, 알고 보면 한두 집 건너 아는 집 자식이다) 일주일에 3~4일 농장에 와서 소 먹이 주고, 풀 뽑고, 농사일 거들고, 밥도 같이 먹고, 소액이라도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권할 수 있다. 그렇게 농사일도 조금 하고 농장 식구들의 돌봄을 받는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 영역을 농민이 넘보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농사짓는 사람이 농민이지만, 농민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볼 수도 있다. 그런 혁신적 실천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다. 농민만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다. 농민만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농민과 더불어 농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협동이 반복되고 쌓여서 농사가 교육이 되고, 농사가 돌봄이 되고, 농사가 문화가 되는 지역사회를 두고 비로소 ‘공동체’라고 부른다. 그런 공동체라야 농업 발전이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매개한다.

3.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사회적 농업 실천을 촉진·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7년 정부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 내용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가 포함된 일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게 2012년이었고, 국내 학술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13년이다. 정부가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주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간접적 계기로서,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적게나마 형성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 부문 안팎에서 다기능 농업을 펼칠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농정 패러다임 전환론’이 제기되었다. 다기능 농업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생소한 실천이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 뒤에는 한국에서도 농업의 경제적·환경적 위기와 더불어 ‘삼중 위기’⁴⁵를 구성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다. 둘째, 사회적 포용⁴⁶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 농업 부문에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포용 그 자체를 명시적 목표로 삼은 정책의 사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정책을 들 수 있다.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 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드물지만,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청년 구직자에게 농업을 가르쳐 자영농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돕는 취지의 직업교육훈련 농장 vocational training farm도 생겨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천과 정책이 확산되면서 농업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접충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정부가 사회적 농업 실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의 보조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다. 2022년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83개소에 이른다. 그동안 사업 내용도 분화되었다.

2018년 정책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충남 홍성군의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비롯하여 완주, 영광, 제천, 청주, 청송, 거창, 무주, 해남 등의 9개 시군에 소재한 농장을 대상으로 경상비 위주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연간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장 5년까지 지원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보조금의 용도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뉘는데, 첫째는 사회적 농장에서 진행하는 농장활동 프로그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사회적 농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인근의 농업인, 보건·복지·교육 관련 직능 기관 및 단체 등의 행위자들과 협력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는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보조금의 일부를 농장 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하였다.

〈표 1〉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사업의 개요

세부 사업 내용	지원 내용	비고
사회적 농장 ⁴⁷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지원 ▶ 개소당 6,000만 원 이내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비	▶ 2018년 9개소→2022년 83개소
거점 사회적 농장 ⁴⁸	▶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 개소당 2억 원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시설비	▶ 2020년 3개소→2022년 7개소
지역 서비스공동체	▶ 농촌 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업체 등과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개소당 9,000만 원 (코디네이터 활동비 3,000만 원 포함) ▶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	▶ 2022년 신규 22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2a)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0년부터는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을 선정하여 지역 내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형성 지원, 교육, 홍보, 조언,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 사회적 농장 가운데 성과가 뛰어나고 타 사회적 농장을 지도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네 곳(홍성, 청송, 영광, 제천)을 2020년에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으로 선정하였고, 2022년부터는 세 곳(횡성, 완주, 강화)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선정된 일곱 곳의 거점농장에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연간 보조금 6,000만 원 외에 2억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추가 자금은 자체의 사회적 농업 활동이 아니라 타 사회적 농장이나 관계자에 대한 지원(자문, 교육, 모니터링, 홍보 등)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거점농장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는 학계나 공공기관의 인적자원에 바탕을 둔 전문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사회적 농업 실천의 주를 이루는 ‘농장활동 프로그램’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의 교육 및 자문이 유효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2022년부터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신설·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역 서비스공동체’란 ‘농촌 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라고 정의된다.⁴⁹ 이 사업이 의도하는 바는 기존의 공적(公的) 복지체계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농촌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 노인을 비롯한

여러 수요자에게 돌봄, 교육, 건강관리, 집수리나 세탁 등 ‘생활돌봄’⁵⁰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밖에도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가적인 정책 실험이 있었다. 완주와 익산, 두 곳의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의 지역공동체 기반 모델을 구축하려 시도했고 이를 지원하였다. 여러 사회적 농장이 팀을 이루어 확장된 형태의 농장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 농장과 농장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활동을 조율할 인력으로 ‘코디네이터’를 정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2018년부터 전국 수준의 사회적 농업 관련 집체 교육을 연 1~2회 시행하였고, 농식품공무원 연수원의 교육과정에도 사회적 농업 교과를 신설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단위들에 대한 자문, 교육 등의 지원은 거점농장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보조사업 시행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농촌 시군의 일반 주민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의 수요가 있었다. 이에 호응하여 2021년에는 농촌 시군의 다양한 직능단체 종사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의 지역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포럼 및 토론회 형식의 학습을 별도로 조직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⁵¹ 희망하는 농촌 시군의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의 분야 중간지원조직이나 여타의 단체로부터 공모받아 실시하였다.

4. 실천 사례

4.1. ‘꿈이자라는뜰’, 발달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돌보는 농업⁵²

‘꿈이자라는뜰’은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사회적 농장이다. 이 농장이 입지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는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는 20여 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홍동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늘공동체가 있다.

홍동초등학교와 홍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학교 특수교사들의 문제의식이 ‘꿈이자라는뜰’의 탄생 배경이다. 2004년 홍동중학교의 특수교사 L씨가 발달장애 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번 씩 학교 밖으로 산책을 나오곤 했었다. 그러다가 풀무농업고등학교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 밖에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수업을 해보자는 아이디어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특수교사들은 ‘농업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위탁보호자 가정에 들어가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은, 자립적인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꿈이자라는뜰’을 창립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2009년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최초의 본격적인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면하게 되는 자립의 문제는 학부모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애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었다. 홍동초등학교 교사 H씨, 홍동중학교 교사 B씨, 풀무농업고등학교 출신 농민 C씨 등 몇몇이 초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늘공동체에 실습지를 만들고 지역 주민교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친 학습 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는 관내의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꿈이자라는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적 자립 능력을 키우고 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그들을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꿈이 자라는 뜰”이 도전하고 있는 과제다. ‘꿈이자라는뜰’이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비전은, ①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직업자립,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직업 자립’이라는 첫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꿈이자라는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활동의 원칙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채소·화훼·축산·주곡 등의 유기재배 농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자연과 벗하는 노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고른 신체 발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농업 생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두 번째 비전은 이 사회적 농장이 전지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 원칙과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에게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한다. 둘째, 사업운영,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생산물 유통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물망을 만든다. 셋째, 일방적인 교육과 지원 방식이 아닌, 마을 구성원 전체와 상호부조하고 서로 배워가는 방식을 만든다. 넷째, 장애인과 운영 조직이 개인의 인간성과 지역의 공동체성을 복돋우는 촉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꿈이자라는뜰’은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매주 6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원예농업교실(초등학생 대상 꽃밭교실, 중학생 대상 꽃나무 교실 1, 고등학생 대상 꽃나무 교실 2), 어울림교실(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목공교실(중고등학생), 풍물교실(초등학생) 등이 있다. ‘원예농업교실’은 텃밭과 농장에서 꽃, 나무, 허브, 채소 등을 직접 키우고 수확해서 요리를 해서 먹거나 상품을 만드는 학습 과정이다. 풀무농업고등학교의 텃밭과 온실, 자체 농장 등의 실습지에서 진행된다. ‘어울림교실’은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산, 들, 내, 논길을 오랫동안 걷거나 강강수월래 같은 공동체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다. ‘목공교실’은 학생들이 지역에 소재한 갯골목공실에서 목수와 함께 필통, 수납장 등을 만들며 도구를 사용하고 나무를 만지는 법을 배우는 학습 과정이다. ‘풍물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꿈이자라는뜰’이 흥동면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농업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하늘공동체, 흥성군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인 부모회, (지역사회 내 단체인) 갯골생태농업 연구소, 지역의 장애학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우들의 교육과 실습에 이용되는 실습지(흥동초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하늘공동체 등)와 사무실(풀무농업고등학교 지역교육관) 등의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적자원으로 마을 주민교사 7명(자원봉사활동)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보조원 4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꿈이 자라는 뜰’은 아직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조직이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도이지만, 향후의 목표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배운 직업능력을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취업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아마도 농장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관내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한 전원학교 사업의 일부 예산으로, 이후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실험적인 시도로서 “꿈이 자라는 뜰” 학생들이 생산한 허브 등 원예 묘종을 매년 5월 지역사회에 판매하고 있다. 이 판매사업에는 A농업고등학교생협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그 묘종 판매액이 500만원 정도였다. 2017년에는 흥동 지역에서 규모가 크고 유력한 유기농생산자단체인 흥성유기농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묘종을 판매하였다.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꿈이자라는뜰’의 법인격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일을 처음 준비하던 2009년부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당시 토론에서는 풀무생협이 협동조합이지만 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받았고 풀무학교생협이 사회적기업인 동시에 협동조합이고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을 갖추었듯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과 직원 인건비 등 경제적 자립 문제를 고려할 때 ‘협동적인 농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도 검토해볼 만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꿈이 자라는 뜰’은 지역 내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집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사회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맹아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장이라는 형태로 신체적·정신적 약자를 보살피는 지역의 조직적 활동이 출현한 지 오래 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수백 개의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설립 과정과 운영 구조 두 측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전형적인 구조와 잘 들어맞는다. 아직은 협동조합 법인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진화의 과정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협동조합이 초기 단계에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2. 행복농장, 만성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을 돌보고 재활을 돕는 농업⁵³

농장은 크지 않았다. 농지 1,000평 남짓에 올려 놓은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전부다. 여러 가지 허브와 꽃, 상추를 재배한다. 농작물을 돌보는 것이 농업이라면, 훌륭한 농민은 사람을 돌보는 데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농장은 스스로 제작한 자료에서, 농장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행복농장은 2016년 한해 동안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게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미혼모, 탈북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과 목공, 요리 등을 운영하는 ‘행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하여 한해 동안 운영한 결과 행복농장은 2017년에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는 게 도움이 될 듯하다. 4박5일 간 진행되는 ‘일반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행복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농업 활동의 기초다. 한해 동안 2~3회 진행하는데, 매회 10~12명이 참여한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⁵⁴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기간 중 오전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농장의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저녁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에서 면담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 4명을 선정해 2주~3주에 걸친 자연구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심화과정에서는 농업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건강 측면의 프로그램은 비중이 줄어든다. 행복농장은 2016년에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들 가운데 3명을 고용하였다. 둘 중에 한 명은 인턴 자격으로 일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턴 급여를 지원한다.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농장에서 3명의 사회적 약자가 직업재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같은 돌봄농업 실천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 행복농장의 실무 책임자인 최△△씨나 옆에서 항시 일을 돕는 젊은협업농장의 정□□씨는 정신과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한다. 농민이 진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 있다고 말한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들인데, 시설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딱히 할 일이 없는 이들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농장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재활 기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공장에서 단조로운 작업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농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에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본다.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곳에 고용되어 일한지 1년이 지난 이를 보면 ‘처음보다 인상이 많이 환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사도 자연스럽게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곁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림 2〉 행복농장에서 2016년에 실행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개요

자연구시 프로그램: 복지로 또는 가족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로 향하는 가족을 돕고 사회 속에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	대상	교육내용	유형	지역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비고
1. 일반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성인	농업 체험	박람회	서울	자연구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 또는 자연구시 홈페이지	5-10명	농업 체험 프로그램
2. 일반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성인	농업 체험	박람회	서울	자연구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 또는 자연구시 홈페이지	5-10명	농업 체험 프로그램
3. 일반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성인	농업 체험	박람회	서울	자연구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 또는 자연구시 홈페이지	5-10명	농업 체험 프로그램
4. 일반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성인	농업 체험	박람회	서울	자연구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 또는 자연구시 홈페이지	5-10명	농업 체험 프로그램
일반 자연구시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5. 일반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성인	농업 체험	박람회	서울	자연구시 농업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 또는 자연구시 홈페이지	5-10명	농업 체험 프로그램

행복농장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고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행복농장의 경험 그 자체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아주 초기 단계이며 숭한 난관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첫째, 농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다. 행복농장을 예로 들어보자.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전부인 이 농장의 규모로 볼 때, 최적의 노동력 투입은 2명이다. 재배기술이나 마케팅 등 여러 조건이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비닐하우스 다섯 동에서 원예작물 재배는 부부가 가족노동으로 꾸려갈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남편과 부인이 일년 내내 하루종일 비닐하우스에서 일해야 대략 4,000만~5,000만 원쯤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규모다. 즉, 이곳에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농작업만 해야 한 가족이 먹고살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테다. 그런데 자연구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 당연히 농업노동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2명에 농장 직원 1명이 곁붙어서 보살펴야 한다. 인턴 등으로 고용한 이들의 농작업 속도나 양은 평균적인 농민 수준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행복농장의 연간 농업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은 판로가 안정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돌봄에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을 할애한 탓이 크

다. 그 같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는 것도 아니다. 가령,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은 국가로부터 이리저리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대략 1인당 한달에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행복농장의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그 같은 요양급여 제도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충남정신건강증진센터가 조직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파트너일 뿐이다. 이 프로그램은 홍성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을 토대로 운영되는데, 행복농장에는 ‘강사비’ 항목으로 금전적 대가가 돌아온다. 참가자 수에 관계없이 1일 3만 원 정도다.

둘째, 시설 및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비닐하우스 몇 동과 행복농장의 고정 인력 3명으로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여자 10여 명을 돌보기 어렵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행복농장에서 10명 이상이 동시에 농업활동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들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행복농장에서는 두세 명만 농작업을 진행하고, 한두 명씩 다른 농장에 분산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장이 여섯 개쯤 된다. 오전에는 각 농장마다 한두 명을 배치받아 농작업 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오누이 권역으로 다시 모여 충남정신건강센터 측에서 나온 직원이 진행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농장에 고정 인력으로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해 있는 상태가 이상적일 테다. 언론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 농촌에서는 언감생심이다. 결국 지역의 사회복지 혹은 보건복지 분야 직능 종사자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로부터 인적 자원을 필요한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셋째,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이 단지 농업이라는 포장지를 둘러쓴 또 하나의 사회복지 시설일 수는 없다. 즉, 사회적 농장을 찾아오는 이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류일 수도 있고, 농장에 고용됨으로써 갖게 되는 직업적 관계일 수도 있다. 사회적인 경험은 재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농촌 마을 주민들의 상당한 이해와 용인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농장이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농촌 마을 공동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행복농장의 사례를 보자. 농장이 터를 잡은 농지는 마을 주민에게 임차한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내 공간은 오누이권역 다목적 회관을 빌려 사용한다. 인접한 곳에 자리잡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행복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취하지 않으면 행복농장은 경영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주변의 여섯 농장들이 자연구시 프로그램 참가자를 받아 농업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지 않았다면, 행복농장의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제약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4박5일 동안의 일정 동안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산리 부녀회 등의 협력이 있었다.

4.3. 젊은협업농장, 청년 농민을 키워 내는 농업

장곡면에는 ‘젊은협업농장’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이 있다. 홍동면에 있는 풀무학교는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졸업한 후에 농사 짓는 졸업생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이는 지역사회의 몇몇 사람들에게, 그리고 풀무학교 안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 풀무학교를 나오든 홍동면으로 귀농을 했든, 농업에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결국 농민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다. 왜 농사를 짓지 않느냐는 물음 앞에 돌아오는 대답은 ‘농사를 시작할 만한 자본이 없고, 농사를 지으면 먹고살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어릴 때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에 참여해 본 경험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은 아주 힘든 일이다.

지역사회 안에 ‘진짜 농장을 만들어 파종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농사를 배우고 지역사회를 이해하여 정착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을 설립하게 된 문제의식이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귀농 목적지가 되어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플랫폼이 필요했던 것이다.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사회는 또한 그 자체로 젊은이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었을까? 우여곡절 끝에 뜻을 같이하는 농민 몇몇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장곡면 도산리에서 땅을 빌리고 비닐하우스 서너 동을 만들어 쌈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지역에 튼튼하게 자리잡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도산리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젊은협업농장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들였고, 처음 시작할 때 영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었다. 도산리의 고령 농가들이 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젊은협업농장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역사회 외부에서도 든든한 도움이 있었다. 삼선장학재단의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는 ‘청년 인턴십 장학사업’이다.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한 청년 몇 명이 이 후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조합원은 45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합원 대부분이 홍동면과 장곡면 주민이라는 점이다. 협업농장의 일꾼과 ‘교육생’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아니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진만 보더라도 풀무학교 이사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도산리 이장, 젊은협업농장 생산자(2명)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협업농장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협동조합임을 알 수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2017년 현재 비닐하우스 8동에서 쌈채소를 재배한다. 이런 농사에서 얻는 소득은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이지만, 대체로 6~12명 정도의 젊은협업농장 사람들(운영진과 교육생)이 농사짓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득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규모를 확대해 더 높은 농업소득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젊은협업농장은 고소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 수입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젊은협업농장의 기본 목적은 ‘돈을 많이 벌자’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기르자’는 사회적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에 들어온 청년들은 하루종일 농사일만 배우는 게 아니다. 농사일은 오히려 제한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오후 4시를 넘어서면 농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 이후 시간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협업농장에 머무는 신규취농자 가운데 어떤 이는 마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젊은협업농장을 졸업(?)한 후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농장일을 하면서 인근의 장곡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나서는가 하면, 젊은협업농장이 소재한 도산리 일대 권역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무장 일을 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방문객이 많은 홍동면과 장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한, 지역 안내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자본이 아주 풍부한 대농의 영농승계자라면 영농기술과 농업경영체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면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로지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일 뿐인 청년 소농에게 마을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의 월급쟁이에게도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농촌 생활에서 그 중요성은 차원을 달리한다. 직장인은 몸만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농민은 몸뚱이만 있다고 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토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모조리 내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빌려야 한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도 이웃 농민에게 얹혀서 팔아야 할 때가 잦다. 그럴려면 인간관계와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 같은 관계의 밀도는 대면접촉 빈도에, 즉 이웃과 어울린 시간에 비례한다. 청년 농민이 이웃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접촉하느냐는 문제는 뜻밖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은 농사일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마을 행사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과 마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정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월급쟁이에게도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농촌 생활에서 그 중요성은 차원을 달리한다. 직장인은 몸만 회사에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농민은 몸뚱이만 있다고 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토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모조리 내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빌려야 한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도 이웃 농민에게 얹혀서 팔아야 할 때가 잦다. 그럴려면 인간관계와 신뢰가 쌓여야 한다. 그 같은 관계의 밀도는 대면접촉 빈도에, 즉 이웃과 어울린 시간에 비례한다. 청년 농민이 이웃과 얼마나 자주 어떻게 접촉하느냐는 문제는 뜻밖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은 농사일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마을 행사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농업과 마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정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협업농장에서 1~2년 일하고 배운 청년들이 100퍼센트 모두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농민으로 정착하는 경우에는 젊은협업농장의 조합원이 되어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지역 주민’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 정착하기는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실천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다.

4.4. 여민동락공동체, 농촌 노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협동 조직⁵⁵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은 전형적인 인구 과소화 농촌이다.⁵⁶ 면 인구가 2,000명 남짓,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변변한 상점이나 음식점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주민 대부분은 노인이다. 십수명의 사람들이 10년 전 묘량면에 귀농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했다. 이 활동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묘량면에 귀농한 사람들 다수가 사회복지 실천가였고, 이들이 지닌 농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여민동락 공동체 활동의 씨앗이었다.

2007년에 귀농한 이들은 휴경지를 임차하여 밭농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영광군 관내 11개 읍면의 농촌복지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들의 활동은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졌고, 그 가운데에는 농업활동이 결부된 것들도 있다. 여민동락 공동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관련된 이들이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008년에 작성한 ‘여민동락 설립 정신’이 소개되어 있다. 설립 정신은 5개 조항으로 표현되는데, 다섯 번째 조항에는 주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지역 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되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 농업을 거론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있는 귀농인들이 ‘동락원’이라는 이름의 협업농장을 운영하였다. 지역의 노인들이 내어놓은 휴경지를 토박이 주민들과 함께 경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시풀, 콩 등 ‘모싯잎 송편’⁵⁷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작물들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작목 선정은 모싯잎 송편 가공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싯잎 송편 공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묘량면에 거주하면서 거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이 취업해 일하고 있다. 노인들 중에는 모싯잎 재배 작목반에 속해서 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묘량면사무소 소재지에 마련한 주간보호센터⁵⁸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밖에도 묘량면에 생필품을 구매할 상점조차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 생필품 구매 협동조합’인 ‘동락점빵’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동락점빵’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이다.

여민동락 설립 정신

1. 여럿이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건설

억압과 소외와 빈곤이 없는 평화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실천에 동참한다.

2. 농촌복지를 통한 생명공동체 실현

우리 삶의 원류이자 민족생존의 뿌리인 농촌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살리고, 21세기 농촌복지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위해 연대한다.

3. 지역복지와 노인복지의 한국적 모델 연구와 복지교육 실천

노령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노인복지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환경을 조성, 열린복지를 위한 복지인 양성과 교육에 주력한다.

4.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복지의 인간화와 전문화 구현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조건과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복지활동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도모하고,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한 복지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5. 지역일체형 자립적 지역복지 공동체를 위한 유대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을 새롭게 살리는 기관과 지역이 한몸을 이루는 지역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나아가 지역의 인적자원과 문화적 자산, 유관기관 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료: 인터넷 카페, 여민동락공동체

여민동락 공동체의 다각적인 실천들 가운데 노인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은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해 설계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농업활동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 또한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민동락 공동체의 책임자인 권○○씨는 그런 활동들의 취지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⁹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귀촌해서 1년 반 정도 지역 조사를 했어요. 노인 복지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찾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설립을 했죠. 노인복지시설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시설로 지정이 되었죠.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모시다가 장기요양보험 시설로 지정되서 등급자들도 함께 모셨죠. 무료로 하면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요. 등급은 못 받았어도 병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무료로 모시는 거죠. 근데 병증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환경을 같이 봐요. 경로당이 없거나 멀어서 못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자 중에 마을이 소규모고 멀리 나가지 못해서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모셨어요. 지역 사회 조건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협력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너무 외롭거든요. 보호자들 동의를 받아서 모셨어요. 그렇게 처음에 1년 간 운영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지역사회 어르신들 중에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이러한 시설을 거친 후에 나중에 증상이 심해져 요양병원을 가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살다가 요양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을에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려고 한 거죠.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에 보면 건강, 빈곤, 고독과 같이 노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노인보건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고 매우 건강하고 잘 살아 그러면 큰 도움이 필요 없죠. 빈곤하면 돈이 필요해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외로움, 고독과 관련하여 정서적 도움을 주려면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건데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마을에서 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자리 증진 사업을 한 것은 빈곤과 관련해서 한 것인데 떡집하고 작목반을 만들었죠. 그게 지역 차원이었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마을에서 본인이 하는 일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 조사에 따라 50만 원 이하 수준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그게 모시떡인데 모시가 쉽기 때문에 추진하였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분들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죠. 마을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다가 했던 것이 품앗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일주일에 한번 씩 경로당으로 모셨죠. 어르신들이 마을 주민들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해결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도 자원봉사하고 여러 활동을 했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11년 차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떡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달 평균적으로 28~35만 원 정도 급여를 가져갔어요. 작목반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 12만 원에서 32만 원을 챙겨가세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고 구체적 근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죠. 어르신들마다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수입에 대한 의견이 다 달라요. 인터뷰를 했는데 빈곤하지 않지만 무료해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할 일도 없고, 땅도 별로 없고, 소일거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나온다는 분들도 있고, 용돈도 돼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작목반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나는 참여해서 우리 동네 언니들 돈 좀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와요. 이렇게 무료함, 빈곤, 사명감 등이 섞여서 해요.

작목반 전체 인원은 30명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나와요. 경지는 휴경지를 무료로 임대한 것도 있고, 길목 좋은 데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있죠. 경제적인 부분이죠. 초창기에는 모시값이 비쌌어요. 1kg당 7,00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워낙 떡집이 많이 생겨서요. 그러다보니 이걸 팔아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추, 양파, 마늘, 보리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작목반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농한기에 일이 없으면 소득이 안 들어오니깐 밭을 놀리지 말고 1달에 10~20만 원도 괜찮으니 밭을 돌리자라고 했어요. 농약을 뿌리거나 하지 않고 겨울에는 풀을 안 매니 심어놓고 쪽 기다리면 되니까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속 가냐 마냐 고민이죠. 떡 공장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다른 떡집에도 납품하죠. 기존에 납품하는 떡 공장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줄었거든요.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이죠.

4.5.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과 사회적 농업⁶⁰

여기서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서로 다른 직능에 종사하는 행위자들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 사례를 소개한다. 완주군의 핵심 연대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분석한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실무 책임자 등과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을 통해 그렇게 형성된 ‘새로운 관계’는 단지 사회복지기관에 평소에 돌보거나 데리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치매 노인 등을 사회적 농장에 ‘연계’하는 정도의 협력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 실천을 매개로 관계 맺은 행위자들이 돌봄의 문제 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라는 것에 동의하고, 사회적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실천까지 모색하는 등 ‘확장된 의미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으로 전진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 정책이 향후에 지향해야 할 목표를 일정 부분 선취^{先取}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의 확산 및 발전 과정을 모색하는 노력에 유의미한 경로 이미지를 제공한다.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과 사회적 농업

전라북도 완주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장은 2022년 현재 6곳이 있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고령 노인, 정신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배경이 다양한 이들 226명이 6개의 사회적 농장을 오가며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한다. 이례적으로 밀도가 높고 실천이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완주 지역에 형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결망과 협력 활동이 있었다.

완주군에서 사회적 농업이 비교적 빠르게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이라고 약칭)이다. ‘완사넷’은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상호 연대를 토대로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한다는 목적하에 2017년 12월에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2022년 현재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창업공동체 등 84개의 조직이 조합 원으로 가입해 있다.

‘완사넷’이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착수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참여자를 공모할 때 ‘완사넷’의 이름으로 응모하였다. 응모

할 때는 ‘완사넷’이 하나의 단위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세 곳의 ‘두레농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였다. ‘두레농장’은 2009년부터 완주군이 기획하여 추진한 정책사업의 명칭이나 농업생산 단위의 명칭이다. “두레농장은 공공이 제공하는 공동의 생산시설에서 농촌 노인과 귀농·귀촌자가 함께 농업 활동을 하는 모델로서, 생산적 노인복지 실현, 로컬푸드 생산 거점 확충, 귀농·귀촌인 인큐베이팅 등 복합적인 목적을 지니고”⁶² 시작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10개의 두레농장이 있었고, 12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두레농장에서 일하는 노인 1인당 월 소득 47만 원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⁶³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두레농장은 행정리보다는 읍·면 단위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편되었다.

〈표 2〉 완주군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내용	참여인원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꿈바라기 농장	청년 발달장애인 돌봄 및 자립 도모[화전마을]	12
	기쁨의 농장	뇌병변장애인 및 고령 노인 돌봄	5
	마음꽃 농장	정신재활(경증) 돌봄[마음꽃복지센터]	8
키울협동조합		발달장애아동(18명) 및 가족(52명) 돌봄	70
완주로컬푸드공동체영농조합법인		중등학교 발달장애 청소년 진로체험[완주중학교 특수학급]	12
		고등학교 발달장애인 돌봄(4명), 농업인턴십(1명)[고산고등학교]	5
		성인발달장애인(5명) 및 가족(9명) 농업교육	14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해봄		뇌병변장애인 돌봄	10
		발달장애인 돌봄	10
		다문화가정 아동 돌봄	10
		고령 독거노인 돌봄	20
		지역청소년 농업체험	10
		독거노인 반찬나눔 서비스	40

자료: 이효진(2022),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완주군 사회적 농업의 확장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2022년 제2기 3회차 농촌정책 심화 워크숍 자료집, 94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8년 무렵에는 두레농장 활동에 참여하던 노인들이 더 나이 들면서 참여자 수가 줄어 활동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⁶⁴ 그리고 두레농장이 고령농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등 농업활동 참여자 집단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다”⁶⁵는 제안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장 몬테벨로Montebelo가 완주군의 농업·농촌 정책 계획을 통해 소개된 바 있었다. 두레농장과 관련하여 완주군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및 활동가 사이에서 그렇게 공유되었던 문제 인식은 2017년에 설립된 ‘완사넷’에도 전달되어 있다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완사넷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및 민간 포럼’이 개최되었다. 완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모이고 연결망으로 조직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었다. 포럼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여러 개의 분과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사회적 농업 분

과’와 ‘장애인 분과’가 조직되었다. 이들 분과를 구성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행위자 그룹이 되었다.

〈그림 3〉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 포럼의 분과 구성



자료: 이효진(2022),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완주군 사회적 농업의 확장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2022년 제2기 3회차 농촌정책 심화 워크숍 자료집, 76쪽.

예를 들자면, 장애인 분과의 다정다감협동조합과 드림사회서비스협동조합은 각기 사회적 농장인 ‘꿈바라기 농장’과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 만들어지게 된 모체였다. 사회적 농업 분과의 비봉평치두레농장과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자 협동조합인 이랑협동조합은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결합하였는데, 이 그룹에 참여했던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농장 ‘키울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울려 연대함으로써 단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한 것만을 성과로 거론하는 것은 부족하다. 완주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실천 사례 하나를 꼽자면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욕구 및 일상생활 능력에 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완사넷’의 주관하에 2019년 한 해 동안 장애인 분과 참여자들은 7차례의 포럼과 선진지 견학을 한 차례 진행했다. 두 번째 포럼에서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과 장애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던 중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차 포럼에서 논의하고 조사가 진행되어 11월에 보고서가 나왔다.

〈표 3〉 2019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장애인분과’ 포럼 진행 경과

구분	포럼 활동 내용
1차 포럼(2월 15일)	*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방안 논의
2차 포럼(5월 2일)	* 일자리플러스사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 사회적 농업과 ‘장애인 여가활동 및 일자리’ 연계 방안 논의
3차 포럼(6월 24일)	*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설문 조사 논의
4차 포럼(8월 5일)	*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설문지 배포 완료
5차 포럼(9월 23일)	*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중간 점검
6차 포럼(10월 21일)	*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분석 완료 * 조사결과 보고회 일정 논의 * 하반기 선진지 견학 관련 논의
7차 포럼(11월 18일)	*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회 일정 논의 * 하반기 선진지 견학 세부 일정 논의

자료: 완주군·완주군소셜굿즈센터·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2019), 《완주군 장애인 일자리 욕구과 일상생활력에 관한 조사보고서》, 완주군·완주소셜굿즈센터·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4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완주군 장애인 일자리 욕구 및 일상생활력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제안한 과제

- ① 먼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청장년 장애인 자조모임 운영
- ② 취업교육 욕구에 따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 접근 방안 모색
- ③ 취업 중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내용 개발
- ④ 건강한 시간제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 상권 분석
- ⑤ 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접근 시도
- ⑥ 정부주도형 정책형 장애인 일자리 모형 창출

자료: 완주군·완주군소셜굿즈센터·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2019), 《완주군 장애인 일자리 욕구과 일상생활력에 관한 조사보고서》, 완주군·완주소셜굿즈센터·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52~53 쪽.

통상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데 ‘완사넷’이 주도한 이 조사사업에는 몇 백만 원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완사넷’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조사 작업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 포럼과 병행해 진행한 조사연구의 주요 결론을 보고서는 위의 글상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하였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 형성된 사회적 경제 연결망 안에서 활동할 때 ‘원자화된 개별 주체로 운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일 수 있다’⁶⁶는 것을 완주군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경제 연결망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행위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의 저수

지로서 일방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연결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 실천은 되먹임하여 그 스스로 배태된 지역사회 내 협력의 연결망을 두텁게 재구성한다.

시사점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 연결망이 튼튼하게 형성된 경우 그것이 지역사회의 의제 형성 및 담지자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 그런 의제 가운데 하나로 공유됨으로써, 사회적 농장 하나의 개별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보다 더 넓은 폭으로 그리고 더 오랫동안 추진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농업은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주로 보건, 의료, 교육)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과거에는 “농촌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전통적인 자조연결망^{self-help network}에서 유래했는데, 오늘날에는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건강 돌봄^{community-based social/health care}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⁶⁷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인데, 이 같은 “혼종성은 사회적 농업의 중요한 특징”⁶⁸이자 사회혁신의 요소이며, 성취해야 할 과제이다. 서로 다른 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의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연결망 전략은 사회혁신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이처럼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경제 연결망은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의제를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그것을 실현할 추진력을 갖게 된다. 그 움직임 속에서 의제와 실천은 단순히 ‘사회적 농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천을 지향하는 형태로 더욱 확장된다. 사회적 농업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완주군의 장애인 일자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실천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이 그 사례다.

〈미주〉

- 1 Iacovo, F. D. and O'Conor, D.(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11쪽.
- 2 '현대적 형태'라고 단서를 붙인 까닭이 있다. 현재의 사회적 농업 실천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실천은 근대 이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있었다. 조선 시대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다만 그것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수백 년 혹은 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회적 농업의 기원을 찾는 일은 실익이 없다.
- 3 사회적 농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코 바살리아의 활약을 소개한 한글 자료로는 근년에 번역, 출간된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존 풋 지음, 권루이안 옮김, 문학동네, 2020)을 참고하라.
- 4 '유럽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 연맹'European confederation of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의 홈페이지(<http://cecop.com>)를 참고하라.
- 5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결사체이다. 1942년부터 비영리 결사체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보건 및 복지, 제3섹터, 시민사회, 지방분권, 정부 재정의 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특수한 이탈리아의 배경에서 출현한 협동조합 형식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1991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돌봄, 보건 측면의 돌봄, 교육 서비스, 주택 공급, 재가 돌봄, 아동 돌봄, 문화 활동, 환경보호 등의 활동과 일반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the disadvantaged people}'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수행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개관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Thomas, A.(2004), "The Ri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5(3): 243~263.
- 6 2015년경에는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단위가 1,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http://socialfarmyouth.eu>를 참고하라.
- 7 Fazzi, L.(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123쪽.
- 8 김정섭·이정해·김경인·안석(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9 김정섭(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 10 김정섭·이정해·김경인·안석(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9쪽.
- 11 Hassink, J.(2017), *Understanding Care Farming as a swiftly developing sector in The Netherlands*, PhD. Thesis,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25~26쪽.
- 12 Iacovo, F. D. and O'Conor, D.(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21쪽.
- 13 김정섭(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 14 SoFarEDU(2020), *The Textbook: Social Farming in Higher Education -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for university level courses*, SoFarEDU, 8쪽.

- 15 참여자들만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짓는 농민들도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일방향의 편익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편의상, 여기에서는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다’고 썼을 뿐이다.
- 16 Iacovo, F. D., Petrice, J., and Rossignoli, C.(2015), "Social farming and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Proceeding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iculture in an Urbanizing Society, Denmark: Alborg Universtiy, 327쪽.
- 17 ‘현대적 형태’라고 단서를 붙인 까닭이 있다. 현재의 사회적 농업 실천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실천은 근대 이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있었다. 조선 시대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다만 그것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수백 년 혹은 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회적 농업의 기원을 찾는 일은 실익이 없다.
- 18 사회적 농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코 바살리아의 활약을 소개한 한글 자료로는 근년에 번역, 출간된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존 쏫 지음, 권루이안 옮김, 문학동네, 2020)을 참고하라.
- 19 ‘유럽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 연맹European confederation of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의 홈페이지(<http://cecop.com>)를 참고하라.
- 20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결사체이다. 1942년부터 비영리 결사체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보건 및 복지, 제3섹터, 시민사회, 지방분권, 정부 재정의 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특수한 이탈리아의 배경에서 출현한 협동조합 형식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1991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돌봄, 보건 측면의 돌봄, 교육 서비스, 주택 공급, 재가 돌봄, 아동 돌봄, 문화 활동, 환경보호 등의 활동과 일반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the disadvantaged people’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수행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개관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Thomas, A.(2004), "The Ri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5(3): 243~263.
- 21 2015년경에는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단위가 1,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http://socialfarmyouth.eu>를 참고하라.
- 22 Fazzi, L.(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123쪽.
- 23 사회적 농업은 농민에게는 ‘반응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 존재’로서의 잠재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농민의 농업이 세계를 조형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강조한 플루흐(J. D. van der Ploeg)의 논점과도 궤를 함께한다. “플루흐의 논점을 따라가자면, 것처럼 강인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농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농민층이 된다. 그 실천-투쟁은 다양한 특징을 드러낸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혁신적인 농업노동, 이웃과의 협동, 참신한 발상과 실험, 커먼즈commons 형성과 관리, 지역에 대한 자율적 거버넌스 창출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2019), 《새로운 농민: 세계화 시대의 농촌 발전》, 김정섭 옮김, 도서출판 한국농정.] 반응적 존재와 적극적 존재에 대한 상설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질 들뢰즈(2001), 《니체와 철학》, 이경신 옮김, 민음사.]
- 2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사회’를 이렇게 풀이한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가족, 마을, 조합, 교회, 계급, 국가, 정당, 회사 따위가 그 주요 형태이다.” 사회의 종류는 아주 많지만, 사회적 농업에서 사회는 대체로 지역사회local community를 가리킨다고 해도 좋다.

- 25 어떤 주민이 대상자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마땅히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 26 Shucksmith, M. and Chapman, P.(1998),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Exclusion", *Sociologia Ruralis*, 38(2): 225~242, 230쪽을 참고. 농촌에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주된 요인은 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공간적 분산과 사회적 상호작용 밀도 감소라고 지적된다. 이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Farrell, G., Thirion, S., and Brunet, B.(2000), *Fighting social exclusion in rural areas*, LEADER European Observatory.
- 27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http://www.jahwal.or.kr>).
- 28 그 밖에도 차상위수급자 등 다른 이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9 유럽의 맥락이긴 하지만, 사회 혁신의 특징을 요약한 후 농촌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논의한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라. Neumeier, S.(2011), "Why do Social Innovations in Rural Development Matter and Should They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in Rural Development Research? - Proposal for a Stronger Focus on Social Innovations in Rural Development Research", *Sociologia Ruralis*, 52(1): 48~69.
- 30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2011),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43쪽.
- 31 이하의 세 인용문은 사회적 농업의 편익에 관해 나눈 면담 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다음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라. 김정섭·이순마·김수린·허주녕(202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분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32 김정섭·나현수(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1~2쪽.
- 33 하싱크와 이아코보, 이 두 사람은 각각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인물인데,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온 적은 없지만 하싱크 박사는 2018년에 그리고 이아코보 교수는 2018년과 2019년에 한국의 사회적 농업 현장과 사회적 농업 관련 토론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 34 Hassink, J.(2017), *Understanding Care Farming as a swiftly developing sector in The Netherlands*, Ph.D. Thesis, Amsterdam Institute of Social Science Research, University of Amsterdam.
- 35 Iacovo, F.D., Moruzzo, R., Rossignoli, C., and Scarpellini, P.(2014), "Transition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Lessons from Social Farm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327~347.
- 36 김정섭·나현수(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4~5쪽.
- 37 그 같은 협력 연결망(network)을 잘 형성한 곳일수록 사회적 농업 실천이 더 잘 확산될 것이다. 행복농장 외에도, 평소에 모르고 지냈던 비농업 부문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 협력을 요청하고 사회적 농업 실천을 시작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충청북도 보은군의 성원농장은 보은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농업회사법인 팜앤씨티’는 무주 종합사회복지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단, 무주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 국립 인터넷드림학교,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력 연결망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익법인들과 전라북도지방법원이 후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 관계를 맺어 활동

하고 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부문 조직들의 연합 조직인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농업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이랑’,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한 해 뒤인 2019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곳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지역 수준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금곡영농조합법인은 인근 지역의 장애인 돌봄기관들과 협력해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사회적 기업 ‘콩세알’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과 농업인이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과는 관계없이 농업인들과 비농업 부문 직능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농업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례도 등장했다.” [김정섭·나현수(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3-4쪽.]

- 38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이고, 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장소’라는 인식은 옳지만 불충분하다. 그런 인식만으로는 사회적 농업이나 다기능 농업에 관한 논의에 바짝 접근하기 어렵다.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상상력 없이 탈영토화는 불가능하다. 농장이 농장이면서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농업의 상상은, 농산물 생산의 지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지층을 동시에 관통하는 배치가 가능하다는 상상에 다름없다.”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125쪽.]
- 39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2010), *Study on Social Innovation*, European Union/The Young Foundation, 18쪽.
- 40 Robinson, J. W. Jr. and Grenn, G. P.(2011), "Developing Communities", In J. W. Jr. Robinson and G. P. Green (eds.), *Introduc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 service learning*, Thousand Oaks: Sage, 55~70, 2쪽.
- 41 Bridger, J. C. Jr., M. A. Brennan., and Luloff, A. E.(2011), "The interactional approach to community", in J. W. Jr. Robinson and G. P. Green (eds.), *Introduc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 service learning*, Thousand Oaks: Sage, 85~100, 89쪽.
- 42 농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인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 농정에 참여하려고 조직한 농업인의 자율적 조직이다. 지방 농정에서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43 강의 중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사회적 농업은 짬뽕, 즉 농업 부문만의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보건이나 복지 부문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 44 한국농어민신문(2018년 12월 11일).
- 45 Ploeg, J. D. van der(2008), *The new peasantries: struggles for autonomy and sustainability in an era of empire and globalization*, London: Earthscan, 10~11쪽.
- 46 ‘social inclusion’의 번역 용례가 몇 있다. 사회 통합, 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함 등인데 제각기 조금씩 다른 말맛을 지닌다. 광범위하게 합의된 번역어는 없다.
- 47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을 ‘사회적 농장’이라고 부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농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8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농장들에게 조언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조력(助力) 행위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 중간지원조직에게 그런 조력 활동을 맡기고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그 역할을 맡은 조직을 ‘거점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거점농장’이라고 약칭한다.

- 49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50 황영모(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Issue Briefing》, 209, 전북연구원.
- 51 9개 농촌 시군에서 진행되었다.
- 52 이 서술은 2013년 무렵의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요즘 ‘꿈이자라는뜰’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최근의 변화까지는 상설하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꿈이자라는뜰’의 설립 과정과 초기 운영 과정에 대한 묘사로도 사회적 농업이 어떤 실천인지 가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 본다.
- 53 앞의 ‘꿈이자라는뜰’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행복농장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 글에서 묘사하지 않은 활동이나 관계들이 추가된 것이다. 그렇지만 행복농장이 추구하는 목표와 사회적 농업 실천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 54 이하, ‘충남정신건강센터’로 줄여 쓴다. 몇 년 전에 장곡면에서 가까운 홍성군 홍북면에 충남정신건강센터가 설립되었다.
- 55 여민동락 공동체는 2018년을 전후하여 어르신들과 농업 활동을 함께하는 단위로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사회적 농업 실천은 이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맡은 역할이지만, 사실상 여민동락 공동체 전체의 관계망을 함께 살펴보아야 전모를 알 수 있다.
- 56 한국 농촌의 1,200여 면 지역 평균 인구는 약 4,000명 내외다.
- 57 영광군의 특산물이다.
- 58 이 주간보호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다.
- 59 이하의 인용은, 2017년 6월 여민동락 공동체 권○○씨와의 면담 내용이다.
- 60 김정섭·김미복·김수린·허주녕·권오현·하인혜·남원호·오단이(2022),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0~127쪽의 내용을 대부분 옮겨온 것이다.
- 61 고산면(꿈바라기 농장, 기쁨의 농장), 봉동읍(마음꽃 농장, 키울협동조합), 용진면(완주로컬푸드꿈드림영농조합법인), 소양면(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해봄) 등이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업시행지침상으로는 하나의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사회적 농장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한 단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확장된 형태로 실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지원사업 대상으로 분화해 나가기도 하였다. 가령, 키울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 그 사례다.
- 62 성주인·송미령·권인혜·노승철·정문수(2014), 《완주군 농업·농촌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 완주군, 153쪽.
- 63 성주인·송미령·권인혜·노승철·정문수(2014), 《완주군 농업·농촌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 완주군, 155~156쪽.
- 64 당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자가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 65 성주인·송미령·권인혜·노승철·정문수(2014), 《완주군 농업·농촌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 완주군, 155~156쪽.

- 66 김정섭(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9쪽.
- 67 Hassink, J.(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 Iacovo and D. O'Conor (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ARSIA, 21쪽.
- 68 김정섭·나현수(2019),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9~11쪽.

지역서비스공동체, 의미와 방향

“농촌생활돌봄을 중심으로”

Jeonbuk 지역연구원
연구위원, 황영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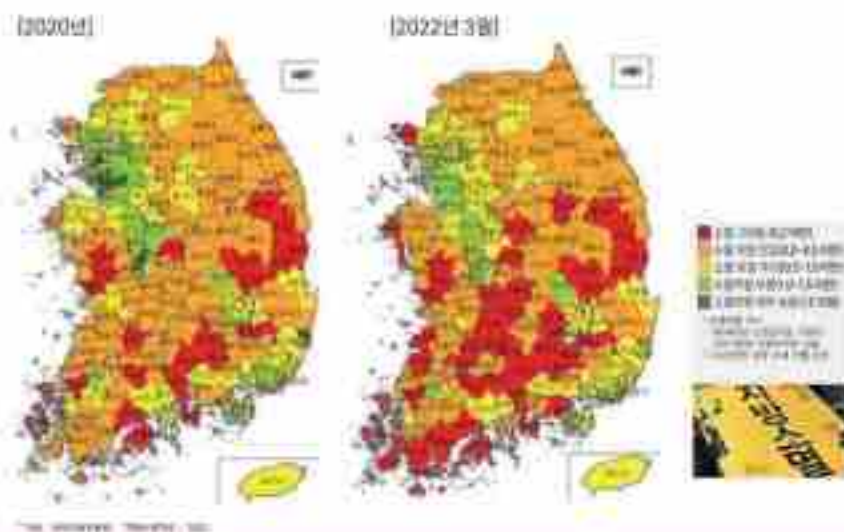
1.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2. 농촌생활돌봄에 주목하다
3. 농촌사회서비스정책, 시작
4. 농촌생활돌봄의 작동 사례
5. 농촌생활돌봄의 방향 과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령화와 과소화의 위기



축소사회, 과연 위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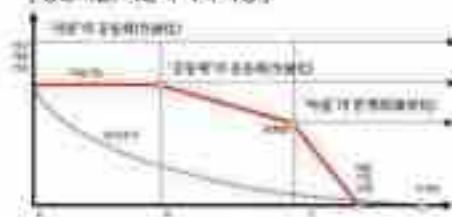
문명사회의 급속한 붕괴에 직면한 여러 세대가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화하는” 방법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과정
대형도시, 대형 기업으로부터 위기는, 사고발생
위험의 사해를 예방하는 원동
후회할 때 회고할 것은 생생하고 개방적인 세상
여러분 고향만큼 속에서 부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치적까지 살아남는 세대는 몇몇인가

1. 전통은 허물어 떨어졌는데, 후대사회에도 역시로 보는 인구감소의 위험성
2. 후대사회에 의지한다-지속가능성 있는 인공적 사회의 존재
3. 전구체로 남성과 함께 보면-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4. 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5. 축소사회는 허물어 떨어졌는데, 후대사회에도 역시로 보는 인구감소의 위험성
6. 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7. 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8. 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9. 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10. 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전구체로 보면-공기 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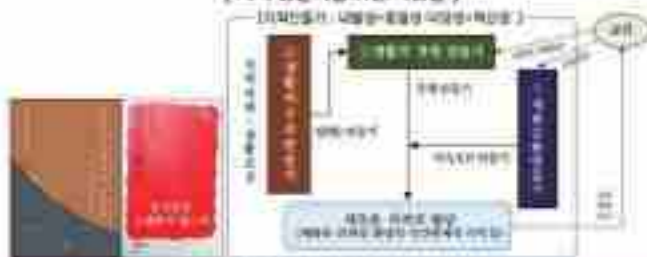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인구연구원, 2015년

‘농산촌-마을’, 소멸하지 않는다

[농산마을, 기능의 약화 과정]



[지역 만들기를 위한 기본틀]



자료: 한국인구연구원, 2015년

● 지역만들기, 중심축 견지

① '생활의 질' 만들기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② '생활의 질' 만들기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③ '생활의 질' 만들기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지역+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 자원정책, 개선방향 과제

① (지역정책) 보조금(補助金) → 공적금(公助金)으로

② (지역정책) 보조금(補助金) → 보조금(補助金)으로

③ (지역정책) 중앙(中央)정부 → 지방정부(地方自治)로

[illegible]

'농촌생활돌봄'이 필요한 이유

●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의 필요

- 농촌주민은 생활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필요·요구에도 절대적인 사회복지 인프라 부족과 보완 시스템(체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생활상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 생활SOC 부족 → 도시지역보다 경제적·사회적 취약에 더해 노동 → 정책과 사회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
- 공적부조 방식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선제적·예방적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농촌주민은 최소한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머물러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일정한 격리가 있음

* 서울특별시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2019년 제정)

* '농촌과 도시'가 겹쳐서 되는 시기에 집중되면 정책 선점의 기회를 마련해 놓지 않을 것이라 중앙 스스로 생각해 왔었고, 또다시 사회적으로 인접한 수요의 관점을 유지를 할 것임 (Minister of justice, 2020)

● 공적부조를 넘어 '생활돌봄'으로

- 취약한 생활 SOC 기반·세대수 고령화된 농촌지역 사회의 현실 →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한 이른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새롭게 필요
- 생활돌봄 서비스 : 기존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르게, 지역사회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역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회자본의 형태로 주목
- 농촌생활돌봄 : 농촌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실현으나 받지 못하는 '생활 서비스' / 정보기, 말벗,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농촌 생활돌봄, 대응방향

●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대상'을 세분화

- (1) 농촌지역에서 생활돌봄 필요 서비스 필요 대상 : 공적부조와 격리적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가 되는 '취약계층'을 우선 집중
 - 65세 이상 고령자는 농촌주민의 27.2% 수준, 중점 돌봄 서비스 제공받을 복지정책 수급자 →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책대상
- (2)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기반으로 대다수 농촌주민,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어 생활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
 - 공적부조 대상 아닌 일반 고령자, 다문화 가족, 귀농·귀촌 가족 등은 생활상 돌봄 필요·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대상자 →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의 다양화

대상	서비스	보정된 정책 구분(단위)
취약계층-수급자 (공적부조 대상 서비스)	노년돌봄, 장기요양 등에게 규정하는 공적부조 서비스	<p>취약계층 27.2% 일반고령자 17.2% 다문화가족 12.2% 귀농·귀촌가족 12.2% 합계 68.8%</p>
일반·고령자 다문화·귀농·귀촌 가족 생활돌봄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일반·수요	

●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

-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계층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생활상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지만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생활 서비스'가 많음
(예시) '장보기 대행, 발발, 아동세탁, 농민기 공동급식, 활동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수단 지원, 병원 동행, 주택관리, 직업훈련·취업 상담 등'으로 조사됨(국, 2019)
- 농촌주민이 원하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생활돌봄' 방식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유용한 방안
- '생활돌봄'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성원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포괄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

구분	항목	세부내용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	노년돌봄 장기치장 공적부조	간병활동(식사·세면·목욕·등 구강·신체·화장실·의복·주변), 가사생활(취미·생활보조·수납·주방·청소·대행), 생활·정신지원, 주거환경·여가활동 지원, 안전확인(방화), 생활요구(운동·건강), 서비스연계·교통보장·관리·보호·건강보장·병원관리·주거보장·사회활동여건) 등
생활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비 공적 돌봄서비스	장보기 대행, 발발, 이동지원, 농민기 공동급식, 활동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수단, 병원 동행, 주택관리, 직업훈련·취업 상담, 가전제품·후대전화 이용지원, 비동행, 교통수단(버스·기차·도·택시, 우편·택배, 스카이프·이메일 등)

●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담당인력과 지역화'

- 공적부조 전달체계에서 돌봄 서비스 담당인력으로 일할 자격기준 충족한 자, '노년요양보호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료인 면허증 소지자' 등에 주를 이룸
- 고령화·과소화된 농촌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공적부조 담당인력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며 서비스 범위(사업과 활동)를 맡고 있는 실정
-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에서 요구하는 지원은 '장보기, 발발, 세탁, 교통수단 지원, 돌봄, 상담, 전차제품 이용' 등은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은 적음
- '주민' 자체는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하는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결국 사회활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귀농·귀촌 청년 등을 전반으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상	담당인력과 자격기준
공적부조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면허소지자 등
생활돌봄 서비스	지역 기존 인력(생활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노인 등)

●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담당주체와 제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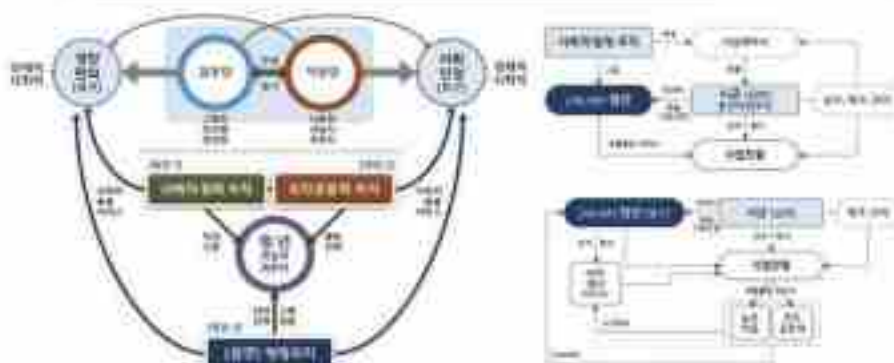
-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 정부와 정책 대상이 직접 관계(신청→심사→관리)를 맺고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인력(공·외부 인력)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음
- 생활돌봄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할 때, 생활 제갈함 관심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으므로 주민
공동체 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지역의 사회자본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역량으로 축적
- '농촌주민+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뤄지는 관계 맺기 →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파생적
결과(생리)로 나타나는 것 (생활역량으로 구체화)
- 생활돌봄의 활동주체로 지역사회 공동체 대표적 형태인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 공동체 조직을
세우고, 협상은 일일 협회·재정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중추적 역할 수행이 적합한 방법

개 항	담당주체와 제공방식
공적부조 서비스	행정·대상자 직접관계(신청→심사→관리) 외부 전문인력
생활돌봄 서비스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공동체 조직, 행정은 프로그램 운영·지원

농촌 생활돌봄, 추진방안

● 기본개념

- 농촌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다중목 생활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조직'이 활동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담당인력 고용지원과
행정(일·연)에 생활돌봄 수요 대응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정책



농촌사회서비스정책의 시작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정책방향

● 추진방향

- 시장과 공공분야에서 재화·서비스 공급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농촌사회에서 경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서비스 구축
- 농촌 지역사회에서 급·변 강에도 발현하는 생활 서비스의 압급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서비스 공동체 육성

● 사업목적

- 농촌 지역사회의 돌봄, 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식량, 의계, 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추구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조·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농촌 서비스 확대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진단기관 신설
- '사회적 농업, 돌봄마을 조성' 등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정책 사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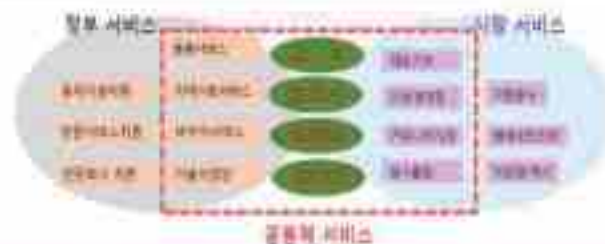
[참고] “농촌 경제사회활성화 지원센터”의 역할과 개념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추진전략

● 추진전략

-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구심점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육성 등으로 농촌지역에 자립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서비스 성장 생태계 조성
- [일련주체 조직육성]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단체(조직) 연합 조사를 통한 기본 대마터 구축, 사회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특화 공동체·사회적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 [전문인력 역량강화] 농촌 사회·생활 서비스 전문가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별·대상별 농촌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가치확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생활 서비스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자립형 공동체 육성



[참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중 관련내용 (경제부처 활동, 2017.12.)

④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 (필요성)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농업·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하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적 참여하도록 장려
- (정책사업 참여) 농촌유학, 순회형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시혜를 발굴하여 홍보
- (통합돌봄 연계) 농촌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

[참고]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중 관련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2.1.3.)

④ 재능·낙성, 사회적 경제 등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이주 전·후 기간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활동·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농촌 사회적경제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도입(22~)
- 사회적경제조직, 취약업, 지역공동체 조직화, 서비스 수요 발굴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활동 인력의 채용비 지원(월 200만원)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본개요 :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 활동의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
 - 농촌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 교육, 주거, 교통, 교육,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문화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사업대상 : 농촌 지역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 조직형태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법) 및 기타
- 조직 구성 : 마을 공동체(마을) 농촌주민,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함께 들어 공동체 구성 (서비스 제공 단체, 사회·복지 비영리기관, 사회적협동, 세력소, 문화재단, 협회, 수리업체 등)
- 활동방향 : 지역 내 불균 등 필요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업관리 등 (중요본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서비스 공동체 조직의 법적 활동규정서 참조)
- 지원금액 : 총 90백만원(농촌진흥청 및 서비스 제공비 4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해마다 신규 사업자는 해마다 50백만원(국비 및 지방비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해마다 1년 포함) 해마다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공동체 서비스(예시)

구분	서비스
보건의료	· 병원 다동 차량 운행 · 치매안심 봉사, 건강교실 ·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원격의료) · 실버, 청사, 건강 여생 사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 다문화 지원지원, 방문미용서비스 · 다문화 세력, 안전세일, 광복기, 청소년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 · 일용부, 주택관리, 생활 복지지원 서비스
교육·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7자) 등) · 영유아 교육, 교육 · 단체연회관, 문화유치, 공연, 도서관서비스
영양·건강	· 영양수업, 건강교육, 요리, 보양제, 전기 수리, 노후 차량 점검 · 농산물산지, 농산물, 밭농사, 가스카터기, 안전교육,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청결 교육 · 경로당 일식공간 설치, 산책로 만들기, 방범순찰
친환경	· 공공일자리 연계, 연료 절감, 합법, 취업 컨설팅 · 사회적 돌봄 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현황]

구분	지역서비스공동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역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역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지역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지역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지역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1.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2.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정



[참고]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 기본개요

- 마을단위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통합적 돌봄서비스 확대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휴식산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① 농촌 돌봄마을 : 사회적 약자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희망하는 저 대상으로 농업·농촌 자원과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지역 마을
- ② 시범단위 조성 : 사회적농업 및 복지 복합시설, 여가 활동, 거주 주택, 주민 네트워크 시설 등
- ③ 돌봄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농촌주민·일반인 등 대상별 적합하고, 의료·보건·식물·교육·보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성
- 서비스전달체계 구성시 단지내 시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사회적경제조직, 주민 학교) 적극 활용

● 주요내용

- 농촌주민 등 통합적 돌봄서비스제공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리모델링 비용 지원
- 시설 구성·규모 통합설치 여부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 지자체 결정, 가능한 기존 주택 시설 등을 돌봄 구역으로 설치
- ①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복지 서비스 제공에 가능한 복지관·주간보호센터·요양시설·요양병원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설치
- ② 공동농장·식물가공시설·만대방·교목장 등 농업활동 통한 돌봄 관련시설 종합적 구성 설치
- ③ 주민교류센터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돌봄 대상자들에게 이대 추진에 필요한 시설
- ④ 산책로·정원·공연장·체육시설 등 활동공간, 임시거주주택 등 일반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 시설

4

농촌생활돌봄의 작동 사례

* 이 예시는 “산촌(山鄕)고요고, 풍요로(豊饒)한 농촌의 조화를 위한 농촌(農村)의 발전”을 주제로 하여 “농촌(農村)의 발전”을 주제로 하여



사례지역, 충남 홍성군 장곡면

● 지역개황

- 16개 법정리, 32개 행정리, 1,599가구, 총 2,831명, 고령화율 49.9%, 면적 54.9km²
- 노인모임, 마이돌봄, 캠페인 더불어 생활, 결혼이주여성, 보건소 기능확대, 마을복지 활동, 교통 복지, 사회활동 등 이슈 발굴 - 장곡면 2030 일원계획 수립 공동 학습회(총 7회, 총 532명)



장곡면 생활돌봄, 수요조사



[돌봄수요]

- 타 지역 요양원 입소 40명 / 타 지역 노인주간보호센터 17명
- 방문요양 82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2명 / 개인요양 2명

[돌봄자원]

- 요양보호사 50명+ / 사회복지사 4명+ / 간호(조무)사 2명+
- 이동봉사, 문화예술 행사, 돌봄농장, 집 가전 수리봉사 인력 등

[희망활동 활동]

- 문화여가활동(건강체조, 방학치로, 마을공동체, 청소년일자리, 동아리 등) 14개 마을
- 공동급식 12개 마을
- 집안정리(건강관리, 치매초기관리, 노인건강관리, 한살림한마당) 11개 마을
- 일상생활지원(의식도움, 위생관리, 의식도움, 이동도움, 보살도움, 보살업(주) 등) 7개 마을 → 주민출발
- 정서지원(거점방문, 일반, 위문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개 마을
- 공동주거 2개 마을 / 주거환경개선 1개 마을 / 노인영양지원 1개 마을

[장곡면 돌봄]

- 교통지원 / 마을버스 개선 - 이동지원
- 학교활동 중단위, 요양시설/주간보호센터/물리치료/약국/문화센터 등

장곡면 생활돌봄, 담당주체

분야	구분	장곡면사무소	장곡읍행정복지센터	장곡읍행정복지센터	학교/단체
보건	생활돌봄 (건강관리, 건강검진 등)	보건소 보건지도, 건강검진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동	이동돌봄서비스	이동돌봄서비스 제공	이동돌봄서비스 제공		이동돌봄서비스 제공
노동	사회적응 / 장애복지	사회적응 / 장애복지 제공		사회적응 / 장애복지 제공	사회적응 / 장애복지 제공
생활돌봄 주요사업	배우자보호사업		배우자보호사업		공공성 서비스 제공
	노년자보호사업		노년자보호사업		
	노년자보호사업		노년자보호사업		
생활돌봄 주요사업	노년자보호사업	노년자보호사업 제공			노년자보호사업 제공
	노년자보호사업	노년자보호사업 제공			노년자보호사업 제공
안전	안전관리	안전관리 제공			안전관리 제공

장곡면 생활돌봄, 운영체계





[참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와 효과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조(진천군 사례)

- 사업내용 : 주거지원, 방과후 보건의료·건강·방문요양,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재가자립생활 기반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병문 환원 연계, 거점돌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가 복지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 중앙정부 사업 이전 : 기존 복지제도의 큰 사각지대와 지역 복지자원 부족 → 지역사회 생활 어렵고 시설 원조 모든 병행 진행
- 중앙정부 사업 이후 : 주거, 의료, 요양, 복귀생활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실업 곳에서 건강한 노후 기대



● 지역사회통합돌봄, 주요성과

- * 사업·법인 중심 활동에서 지역사회 공공체 중심 활동으로 변화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집단
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공간 조성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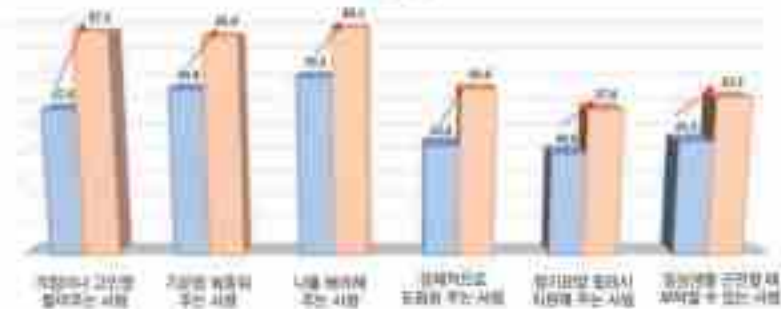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대효과

- 통합돌봄 사업 참여 전·후 사회적 관계망의 조사결과 → 거점돌봄센터 사업을 통해 이웃간 교류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되었다고 평가

농촌사회 통합적 돌봄의 기대 효과

노출 수준



5

농촌생활돌봄의 방향 과제



돌봄의 배경, 사회적경제

● 노동빈곤층의 확대

- 고용을 통해 경제적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경제활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working poor) 더욱 확대

● 사회적 배제의 심화

- 빈곤과 취약한 생활환경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함유하는 제도·서비스·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병리현상인 이른바 사회적 배제의 심화



사회적경제, 주요역할

● 노동시장의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 노동시장에서 주체·기간·노동시간 권력 비대칭성은 노동자 입장에 대한 통제권의 여지를 남기지 않음
- 취약 계층·실업위험 저·노출, 노동자행동조절·사회적기법, 실업위험 대응 공동체 자기고용 전략 채택

● 지역사회 미 충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이웃 협력미·책여 시장공급 없거나, 정책인식미 부재하거나, 복지재정 부족으로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
- 노인·영유아·장애인돌봄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의료사업, 자원순환·교육·문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낙후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재생 담당

- 불균형발전으로 낙후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 대적 위한 재생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진출이 확대됨
- 지역사회 자원·역량 활용한 내밀적 재생전략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새로운 사회투자 전략으로 고려

●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 강화로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술적 관리의 백발·과할 리미
- 사회정책·경제정책 통합하려는 사회적경제 통해 고용·복지 권리 회복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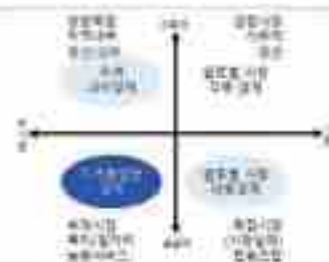
농촌지역과 사회적경제

● 농촌 지역사회, 현상과 특징

- 공간적 독립성이 강하며 자원동원·활용이 도시보다 제약됨 → 이런 제약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과에 관심을 두고 실행(지역사회의 역사결정 패턴에 영향)
-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한 경제활동(지역 특산물 등·활용권)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규모 공동체 경제활동이 활발한 특징을 가짐
- 농촌 지역사회는 공간적인 특성으로 '마을단위'로 파악하는 특성이 강하므로 다수 마을을 결합한 연계와 네트워크가 효과적인 정책선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주목

●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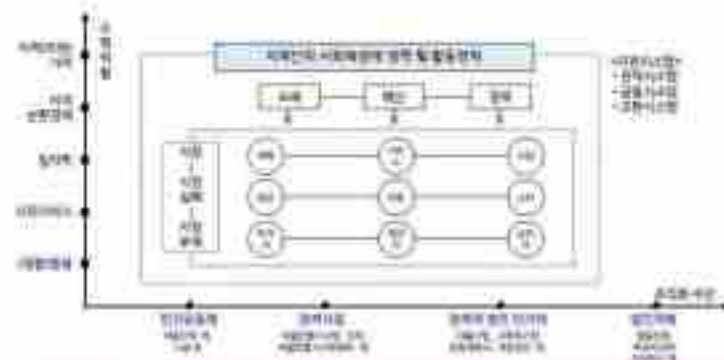
- 이윤창출의 매력에 약해서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거나, 합계 인식이 부재하거나, 복지대형 부족으로 정책(정부)을 통하여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회서비스 제공·매출
-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내발적 재정전략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새로운 사회투자 전략으로 고려
- 농촌지역사회가 처한 현실은재의 구조적 맥락을 고려할 때, '지역통합형 경제활동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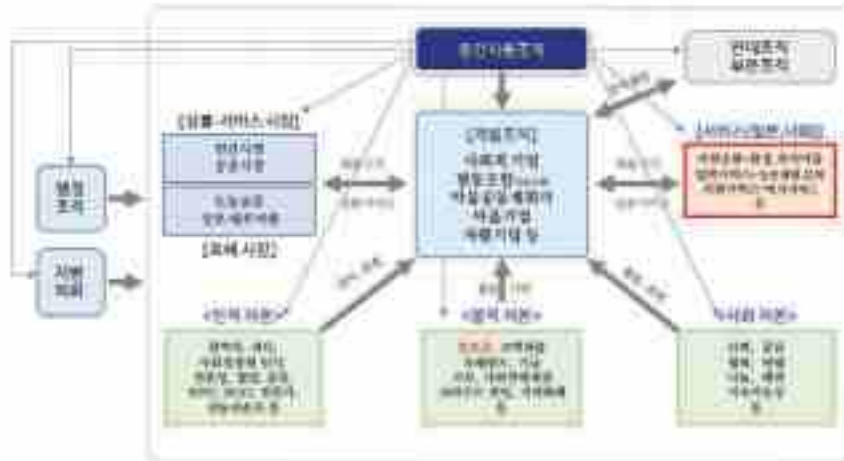
농촌 사회적경제 대응영역

● 사회적경제 조직 수행역할

- 전 계층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조건 개선, 정책요소에 있어 '집단의 생활역량 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기획 (집단으로 발휘될 생활역량)
- 생활역량: 자립형 역량, 상호협력 역량, 사회적 역량, 마을에 대한 역량, 의사결정 역량 등 → 계단 - 집단으로 발휘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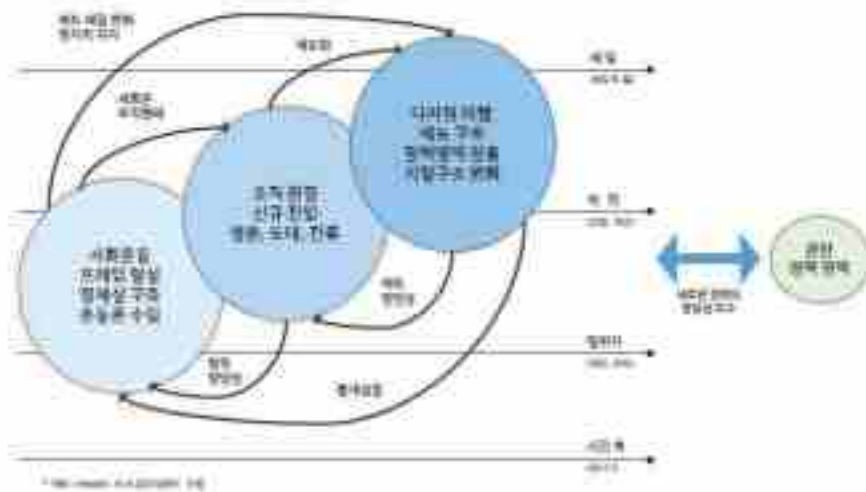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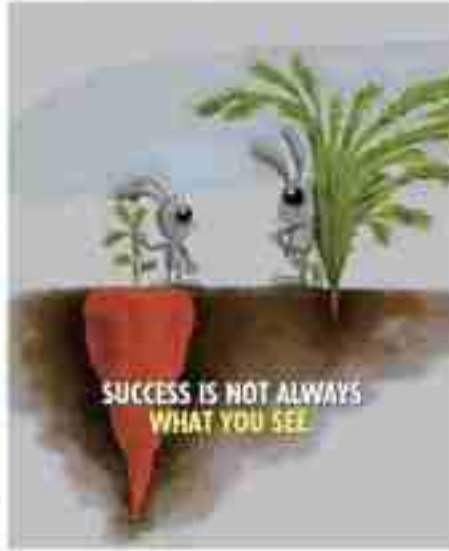
자료: 농촌사회경제연구원, 농촌사회경제연구원

【참고】 새로운 정책의 상호작용과 통합화 과정



자료: 농촌사회경제연구원, 농촌사회경제연구원

두 개의 시선과 시각



감사합니다

hymism@daum.net



30일 - 2일차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전문가 강의

안병은(행복한우리동네의원, 협동조합행복농장)

사례발표

최정선 (협동조합 행복농장)

패널토론

도을주 (호미랑농업회사법인(주))

권영선((주)그리니쉬)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안 병 은

1

행복한우리동네의원장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대표이사
비영리기관 '세계의심장' 상임이사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사장

2

마음도 아플 수 있다.

3

마음이 왜 아픈 걸까?

4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과 종류?

5

몸과 마음이 지칠 데로 지쳤는데
우리는 왜 돌보지 않는 걸까?

6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면
어느 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7

When your car breaks
down you can get help
within **60 minutes.**

When your mind breaks
down it can take
18 months.

rethink severe mental illness - www.rethink.org

8

I. CARE IN THE COMMUNITY

9

질문 1.

당신은 정신질환을 앓고 싶나요?

10

질문 2.

우리는 왜 미친 자들과 함께 살고
싫어하지 않을까요?

11

질문 3.

한국 사회에서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인간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2

슬픈 기억 하나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만났던 중년 여성, 그녀는 '미쳤다'는 이유로 손과 발에 쇠사슬을 한 상태로 오랜 기간을 그곳에 계셨습니다.

13

슬픈 기억 둘

의과대학 정신과 실습 당시 느꼈던 정신과 치료의 한계,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약물치료 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4

슬픈 기억 셋

정신과 수련 당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 여건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나,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 그분들은 병원에서 만성화가 되어갔습니다.

15

Speech of J. F. Kennedy in 1963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신질환자 관리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번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현재 수용중인 정신질환자의 수가 몇 십 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16



What is a Social Entrepreneur?

Social entrepreneurs are individuals with innovative solutions to society's most pressing social problems. They are ambitious and persistent, tackling major social issues and offering new ideas for wide-scale change.

Rather than leaving societal needs to the government or business sectors, social entrepreneurs find what is not working and solve the problem by changing the system, spreading the solution, and persuading entire societies to take new leaps.

Social entrepreneurs often seem to be possessed by their ideas, committing their lives to changing the direction of their field. They are both visionaries and ultimate realists, concerned with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ir vision above all else.

"Social entrepreneurs are not content just to give a fish, or teach how to fish. They will not rest until they have revolutionized the fishing industry."
— Bill Drayton

Each social entrepreneur presents ideas that are user-friendly, understandable, ethical, and engage widespread support in order to maximize the number of local people that will stand up, seize their idea, and implement with it. In other words, every leading social entrepreneur is a mass recruiter of local changemakers—a role model proving that citizens who channel their passion into action can do almost anything.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citizen sector has discovered what the business sector learned long ago: There is nothing as powerful as a new idea in the hands of a first-class entrepreneur.

17

II. 우리동네를 꿈꾸다

18



내가 꿈꾸는 혁명?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

19



20



21



22

III. 행복 농사를 짓다

23



24

자연구시 自然求是

맛있는산채와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으로
자연농장 속에서
문화 체험의 선장물
자연구시 하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
자연구시자연구시



25

농부학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6

꼬마 농부학교

영주포스트농부학교
축수교육 18살 미만
초·고·중
월 2회
원예, 제철 음식



27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일하기

자양구시 코존그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협력
모임 4회, 교육 2회

고령화 2명
시절에서 주거복지



28



마지막 삶의 거소居所를 짓다

IV. 캄보디아에서 우리동네를 꿈꾸다

31



마을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32

Dr. An. Rymaszew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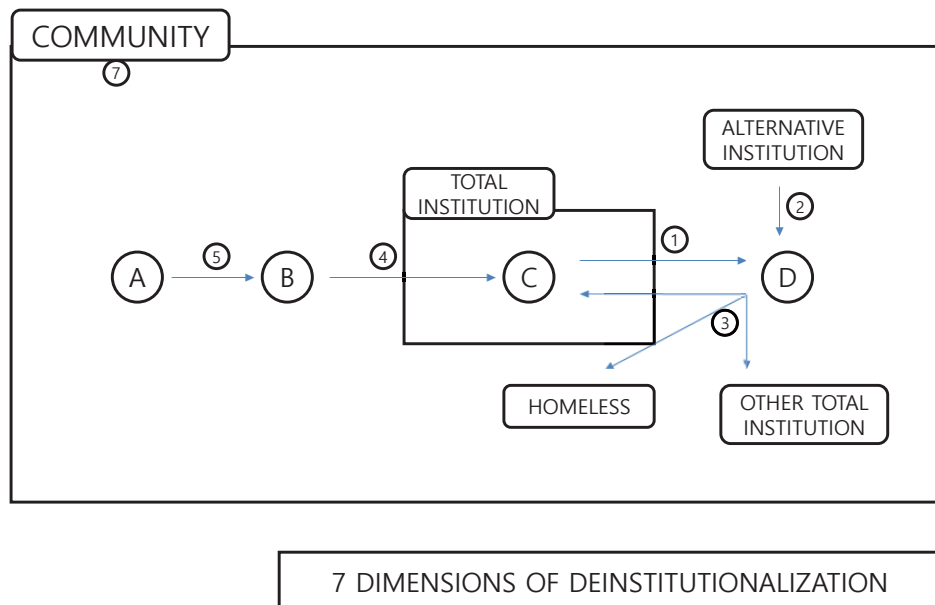
35



36

미친 자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37



7

38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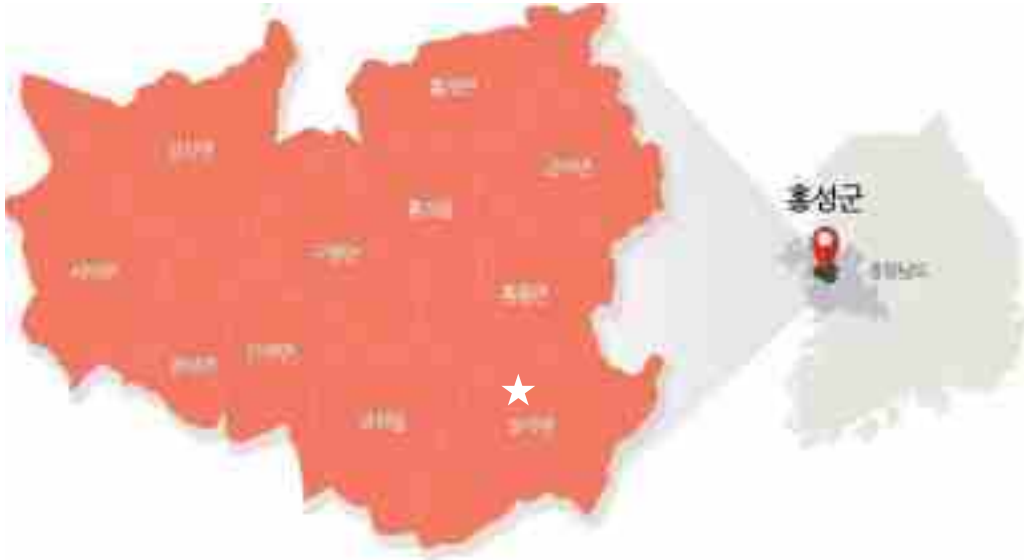
1



2




행복농장 소개 > 위치



3



행복농장 소개 > 연혁

2013

 '농업과 돌봄, 마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2015
 농장의 독립적 운영 목표, 농장 이전
 시설하우스 4동, 스태프 3명
 꽃모종, 허브, 멜론, 미니토마토, 상추 등 재배
 자연구시, 정신과외래진료청소년, 장애인가족텃밭 활동 등
 돌봄프로그램 진행

2017
 자연구시 기본과정 2차례 운영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세미나 개최
 마을 경관 조성 사업 준비 모임 시작

2019
 자연구시 2차, 홍성군보건소 돌보는 농부학교
 장곡초 꼬마농부학교, 도산2리 커뮤니티케어 운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을 경관 관리 활동

2014

2014년 4월 행복농장 개소식 만성
 정신질환자 대상 자연구시 시작

2016

2월 협동조합 등록
 자연구시 참가자 교육 및 인턴십 진행 치유형농
 업체험비즈니스모델기반구축사업 진행 농장 작
 업장, 요리실습장, 휴게공간, 브랜드 개발 다양
 한 대상의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2018

농림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년차 자연
 구시, 금마중학교 돌보는 농부학교 운영 돌봄농
 업 연속세미나 <장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바질
 페스토 가공허가 준비 국제정신건강학술문화제
 부스 참가

4



행복농장 소개 > 연혁

2021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박 2일 돌봄프로그램 진행
유기농 허브차 개발
돌봄활동 지속, 마을 경관 조성 및 관리 사회
적농업 자료집 및 생태치료프로그램 개발
사회적농업세미나 <돌봄&생태치료를 관하여>, <사회적농업 콜로키움 1,2차> 진행
경인·대전·충남권 사회적농업 뉴스레터 '사이통산' 발행

2020

경인·대전·충남권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선정,
돌봄활동 지속
마을 경관 조성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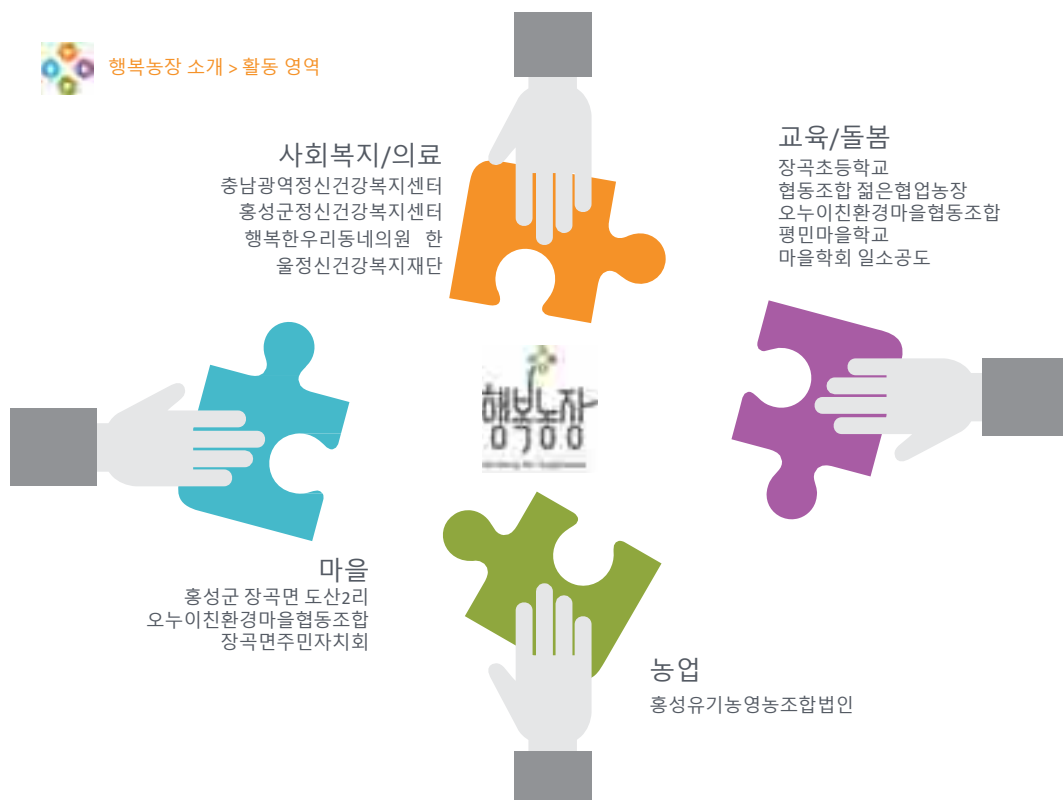
2022

대전·충남권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선정
자연구시 진행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농업 실습 (아우학교, 동림자유학교)
마을주민 화합 잔치 개최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민간담담회 개최
사회적 농업 뉴스레터 '사이통산' 전국 발행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장 개별방문지원 대
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공동학습모임

5



행복농장 소개 > 활동 영역



6



행복농장 소개 > 조직도



7



행복농장 소개 > 현황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2구 소재
시설하우스 230평 4개, 총 1,000평
3개 동 작물 재배, 1개 동 휴식 공간, 작업대, 육묘장
스태프 3명(2015년 자연구시 참가자 중 고용 1명)



©민택기

8



행복농장 소개 > 생산 작목



9



행복농장 소개 > 유기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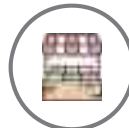
허브



꽃모종



허브가공



직거래



홍성유기농
영농조합



지역장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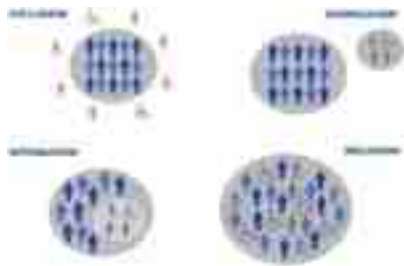


사회적농업 Social Farming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의 재활·교육·돌봄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 활동

F.D. Iacovo, 2008



사회 통합 Social Inclusion

오래전부터 유럽 농촌에서는 장애인, 미성년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영농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지역사회에 통합시켰다.

사회 연대, 사회 부조, 사회 통합에 기반을 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실천이므로,
사회적 농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F.D. Iacovo, 2008

11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운영 및 관리지침을 고시함

12

행복농장 소개 > 거점농장 역할

2023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농장 사업

1.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민·관간담회
2.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워크숍
3. 사회적 농업 해외초청세미나
4. 사회적 농업 공동학습모임
5. 사회적 농업 뉴스레터 '사이통신' 발행
6. 개별농장 방문 지원
7. 사회적 농업 교육 및 자문 지원
8. 사회적 농업 사업설명회
9. 사회적 활성화 지원사업 브로슈어 제작
10. 대전·충남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11. 사회적 농업형 생태치료프로그램 연구
12. 전국거점농장협의체 정기회의 및 사업진행

13

사회적농업 실천

1.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업 교육, 재활 프로그램 <자연구시>
2.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돌보는 농부학교> 연중 운영
3. 지역 학교 특수학급 아동청소년 대상 농업 교육 <꼬마농부학교> 연중 운영
4. 청소년·청년대상 사회적농업 실습교육
5. 커뮤니티 케어(장곡면 도산리)
6.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홍보 부스 참가

14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업 활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몸
과 마음의 건강을 되
찾고자 하는 직업재
활 프로그램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협력
기초과정 2회
(심화과정, 인턴십으로 연계)
성인만성정신질환자
농업 직업자활 프로그램



15



활동	기간
수업준비	4월 ~ 5월
수업	6월 ~ 7월
수업후	8월 ~ 10월

인턴십/고용

3~6개월 인턴
현재 고용 2명
(행복/오누이)

16



돌봄농업 실천 > 자연구시

자연구시 自然求是

기초
과정

4박 5일 / 2박 3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일상적인 기초 농업 활동에 참여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농장 및 지역, 일정, 농작업 소개
농작업 협동조합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보리밭, 그 외 지역 농가
마을 만나기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마음 나누기 호흡, 이완, 몸살림 체조, 하루 소감 나누기
자연 느끼기 근교 나들이, 자연물 만들기 체험 등



17



돌봄농업 실천 > 돌보는 농부학교

돌보는 농부학교

홍성군보건소 만성
정신질환자 대상 월
2회
농작업 체험 및
직업자활
요가, 요리, 원예 활동



18



돌봄농업 실천 > 장곡초 꼬마농부학교

꼬마 농부학교

장곡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아동
농교육
연중
원예, 체험 활동



19



돌봄농업 실천 > 농업 교육

청소년/청년 사회적농업 실습교육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실습 대안
학교 2주 농촌살이 서울시청년허
브 <별의별 이주 〇〇>

평민마을학교
젊은협업농장 연계



20



돌봄농업 실천 > 장애인 고용

장애인, 비 장애인 함 께 일하기

자연구시 프로그램 통해
성인만성정신질환자
인턴 4명, 고용 2명

고용된 2명은 시
설에서 주거독립



21



돌봄농업 실천 > 커뮤니티케어



마을돌봄모임

communitycare

마을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장애인+비장애인 모임

요리, 만들기, 나들이 등 자조모임
출퇴근, 병원 통원, 약 관리 및 생활 관리 도움

22



돌봄농업 실천 > 세미나

함께 사회적농업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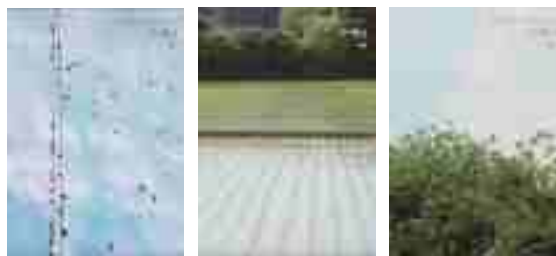
23



돌봄농업 실천 > 자료제작

사회적농업 공부자료제작

사회적농업 뉴스레터 '사이통신'
생태치료프로그램 매뉴얼 자연
기반치료 외국자료번역 사회적
농업 운영매뉴얼개발 (성인발
달장애를 중심으로)



24



돌봄농업 실천

사회적농업네트워크구축



정신건강학술대회, 사회적농업 관련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강의 진행 등

25



돌봄농업 실천

사회적농업네트워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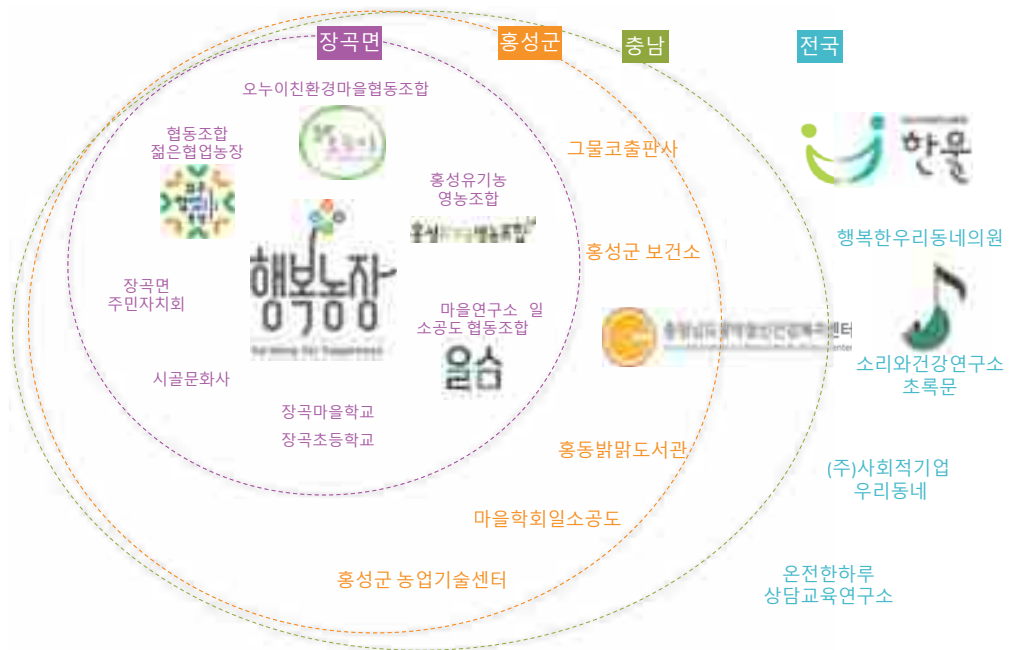


대전·충남권 공동학습모임, 개별농장방문, 전체모임 등

26



돌봄농업 실천 > 네트워크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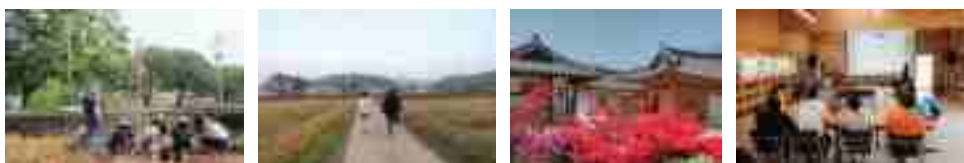


29

행복농장과 마을



마을 공간 : 숙소(예절교육관), 강당, 세미나실 사용
 마을 저수지, 동산, 농장, 논둑길 등 마을 정원 만들기
 마을 잔치 등 행사 공동 주최
 자연구시 참가자 인턴 고용(1명)
 마을 경관 조성 사업 준비 모임 시작



30



행복농장과 마을

마을경관 환경돌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화단 가꾸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정주
환경개선, 새뜰사업 연계

커뮤니티 가든 조성
공동환경관리활동
소득으로 연결

사회적농업
마을경관조성 계획



31



행복농장과 마을

행복부엌

마을 공유부엌 활용
자체적 공동급식
일자리 창출 독거
가구 돌봄



32



행복농장과 마을

행복농장 가공직판장 계획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마을 가공장 및 판매장 건립 계획



33



행복농장과 마을



34

호미랑 사회적농업농장

장애인 활동 사례 발표

대표 도은주

가치 있는 것을 함께
일구고 만들어 가다









공존의 꽃을
피워내는 곳









농장의 꽃,
모두의 행복이 되다










호미랑 사회적농업농장은

가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력소개

경영학박사 권영석
농산업시스템경영전공

- (주)그리니쉬 농업회사법인 대표
- 신지식농업인(농림축산식품부)
- WPL 멘토링교수(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예술문화 명인(한국예총)
- (사)농어촌산업유통진흥원 회장
- (사)한국치유농업협회 수석부회장
- (사)한국화훼협회 부회장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이사
- (사)한국융복합산업진흥원 지도교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업체주임교수
-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보건복지부)
- 착한기업(경기도)

'그리니쉬를 통해
사회적농업 실현을 꿈꾸는
원예 전문가'



2

2



위기의 농업

코로나19 기후 인력난

고조선 이후 농업이 위기가 아닌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도 항상 성공하는 농업인들이 있었다.
화웨이8기 우리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3

3



농업·농촌의 현실

노동력 감소 (50대 이상 75.3%) 70대29.4%, 60대27.8%, 50대18.1%

(노령화)

자연인구 감소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인건비 상승

기상이변

자연재해 년 중 발생

경영비 증가

재배지 이동

농가소득 미흡

삶의 질에 영향

생활만족도 미흡

비전제시 미흡

과소화
(농업인 4.3%)
농촌약화 (50
조, 1.5%)
시골살이 (도
시집중화)
청년농업인
(11%)

농가103만6천가구
231만7천명
1인가구 (1,604)
2인가구 (3,906)
2020년 농가소득 (4,503만원)

농업소득 (1,182만원)
농외소득 (1,661만원)
이전소득 (1,426만원)
비경상소득 (234만원)

축산(8,812), 화훼(8,952)
2021년 농가소득(4,776만원)6.1%

인건비 상승 - 불법 외국인 고용 언제까지 가능 할까?

농촌 어메니티자원
자연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
도농복합 상생 치유농업 & 사회적 농업

청년이여 돌아와라 - 먹고 살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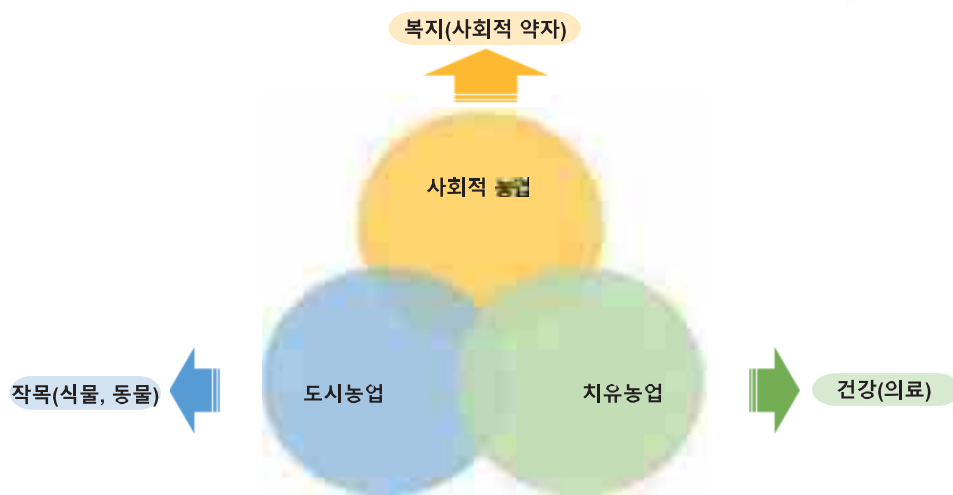
기회의 농업

신기술 6차산업 신유통 환경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생각을 전환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트
렌드를 앞서가는 노력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

5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간의 관계



발전추이	1990년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체험기반 농업활동	도시농업	치유농업	

6

정신장애인 고용률 현황



[2022년 상반기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 순위]

단위 : 명, %

순위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1	간장애	14,144	7,307	51.7
2	지체장애	1,185,697	549,744	46.2
3	언어장애	2,696	1,171	43.4
4	시각장애	250,195	107,762	43.1
⋮	⋮	⋮	⋮	⋮
14	뇌전증장애	6,909	838	12.1
15	정신장애	104,213	11,807	11.3
장애인구		2,583,530	940,575	36.4

정신장애인 고용률 11.3%로

15개 장애 유형별 고용률 순위 중 **최하위**

-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도보다 1.8% 상승
- 정신 장애인 해당각 평균 1,000명씩 증가하지만, 정신 장애인의 고용률은 0.4% 소폭 상승
- 정신장애 인구 수는 15개 장애 유형 중 5위(10만4,213명)로 높은 편이지만, 고용률은 11.3%로 **최하위**
- 특수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미비
- 정신장애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사업주의 고용이 소극적
- 취업 가능한 자를 세대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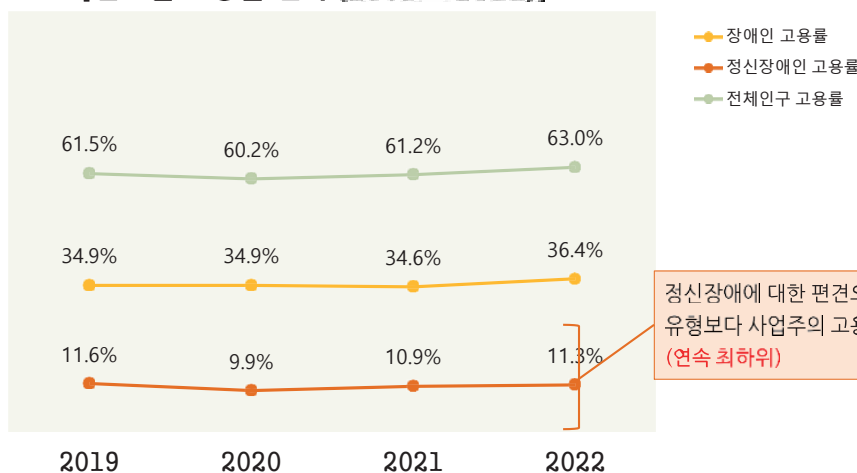
7

7

정신장애인 연도별 고용률 현황



[연도별 고용률 변화 (2019 ~ 2022)]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업주의 고용이 소극적
(연속 최하위)



8

8

그리니쉬 사회적 농업 고용 모델



그리니쉬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를 위한 고용

3주간의 장애인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단계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식물 선별부터 분갈이, 제품 포장까지 실질
적 장애인 고용창출과 **홀로서기**를 위한
자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신장애인의 고용 이유

- 정신질환 장애인의 화훼작업을 통한 원예치유 효과
- 식물을 활용한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의 회복
- 식물성장을 관리하고 원예상품을 생산하는 **성취감**
- 위축된 마음에 **자신감** 회복
- 원예치료는 본래 **합천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에게
원예 활동을 시키는 것에서 시작
- 신체적 장애가 없어 동작과 공간의 제약이 적음



9

9

그리니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원예치유 프로그램 **비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치유를 위한 고용’ 효과 극대화



10

10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성장의 정원

#심화 원예치유 프로그램
#장애인 취업능력향상
#단계별 직업교육

만남의 정원

#단기 원예치유 프로그램
#사회적 농장 활동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

대화의 정원

#다회기 원예치유 프로그램
#다채로운 원예 활동
#식물과 대화



11

11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12

12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사례 1) 민관협력 화훼자활근로 사업 추진



오산화훼농장 개소
화훼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



생산된 초화를 도시조경에 활용

13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사례 1) 민관협력 화훼자활근로 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

- 추진시기: 5월~9월
- 시행횟수: 총 6회
- 참여인원: 1회 5명(20명) 4회 100명(400명)
-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여성, 어르신 등)
- 활동내용: 1회 5명(20명) 4회 100명(400명) 진행 꽃화분 꾸미기, 관엽식물 분갈이 등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근로 참여자가 재배한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의 문화복지와 심리적 지지에도 기여

14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사례 2) 성장의 정원



- 추진시기: 10월~12월
- 시행횟수: 총 10회/주 1회
- 활동시간: 총 6시간/주 5시간
- 참여인원: 6명(1회 평균)
- 대상: 특수학교 학생
- 활동내용: 화훼농업 관련 전문재활, 식물 분갈이 작업, 식물 품질 관리, 육묘 심기 등

성장의 정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특수학교 학생 중 **3명은 취업에 성공**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관련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 향상, 작업 학습능력을 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



15

15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사례 3) 대화의 정원



다회기 원예치유 프로그램인 **대화의 정원**은 다문화 가정, 지역 어르신,
 장애인 가족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16

16

사회적 농업 활동 예시

활동성과

사례 4) 역량강화교육



농고·농대생, 청창농,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과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17

17

도농복합형 원예치유 사회적 농업 사회적 약자 공공일자리 창출 연계 운영모델(안)

롤모델

이든 프로젝트 [Eden Project]

최악하고 불려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낙후지역을 활성화 시킨 성공사례



영국 남서부 콘월에 위치한 생태 관광지(에코 투어리즘)

영국 4대 빈곤지역... 폐쇄된 채석광 부지에 지어진 세계 최대의 온실

지역경제 유발효과 연간 약 3,000억원 / 관광객 150만명 / 약 1,7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상시 고용 500명 중 75%가 고용 전 실업자 상태, 40% 정도는 50세 이상)



18

18

그리니쉬의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 실현



19

19



20

20

30일 - 2일차

노인과 사회적농업

전문가 강의

김영란 (목포대학교)

사례발표

이은경 (여민동락영농조합)

패널토론

이숙자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정훈영 (천안북도면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노인과 사회적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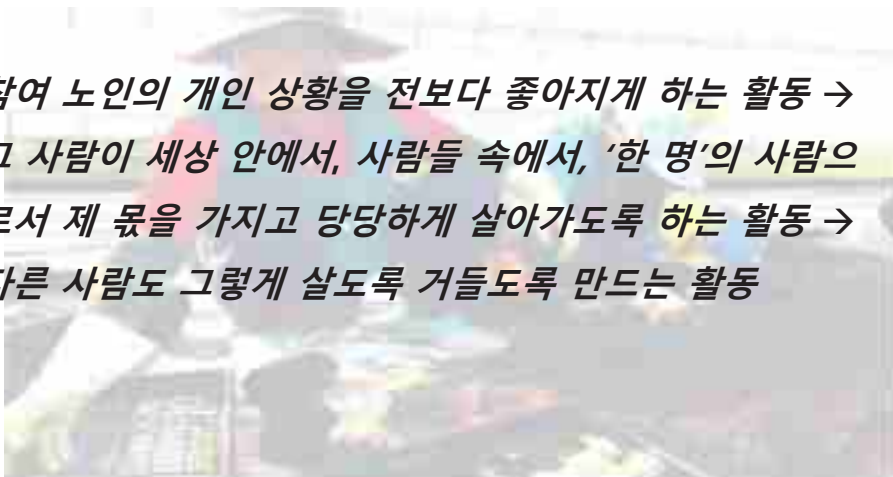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2023. 3. 3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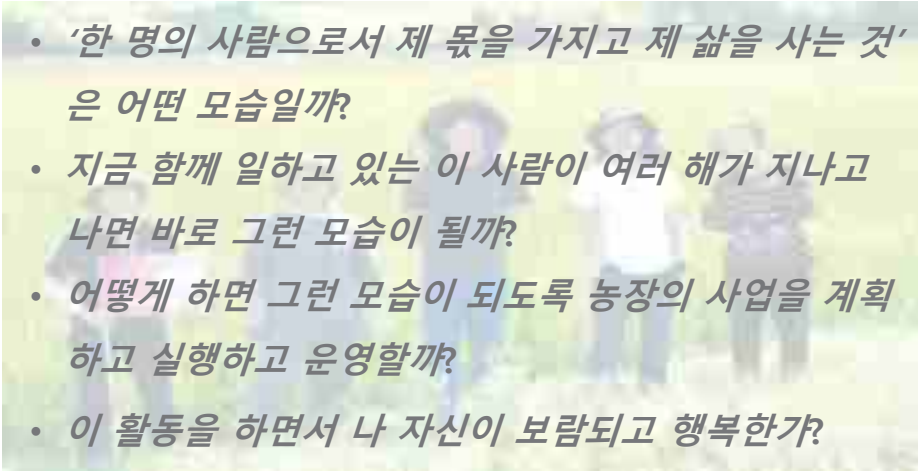
노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농업은?

**참여 노인의 개인 상황을 전보다 좋아지게 하는 활동 →
그 사람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사람으
로서 제 몫을 가지고堂堂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활동 →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거들도록 만드는 활동**



2

사회적농장의 활동가는?

- 
-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몫을 가지고 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 해가 지나고 나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될까?
 -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이 되도록 농장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운영할까?
 - 이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이 보람되고 행복한가?

3

누가 노인인가?

- 사전적 의미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
- #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질문에서는 72.5세
-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70세 이상

4

노인에 대한 담론

‘담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담론에는 그 주제의 체계적인 의미를 담는다. 노인이라는 말 혹은 주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가 사고와 행위를 만든다면, 노인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노인을 대하는 생각, 태도,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실천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5

노인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담론

호칭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의미	No人	Know人	성공한 노인
표현	“늙은이는 사람이 아니다”	“어르신은 도서관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미지	체념, 빈곤, 노망	지혜, 존경, 현자	경제력, 인생 이모작
문제점	이등국민이라는 인식	신비화된 존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소수의 노인

출처: 유범상, 이현숙, 2021
자료: 유범상, 유해숙, 2022, p.4

6

노인에 대한 새로운 담론

총체성의 관점

어느 날 갑자기 나이든 것이 아니라 유아/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개성이 내재화되어 노인이 되고,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는 시각

- 노인의 능력이나 특징은 사람 수만큼 다르다
- 노인을 그들 세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 그저 늙음이라는 특징이 더해진 존재, 즉 **‘나이 든 보통사람’**

→ 즉 **선배시민**

7

노인에 대한 담론 비교 분석

	늙은이	어르신	액티브시니어	선배시민
정체성	돌봄의 대상	존경의 대상	자신을 관리 독립적 생산적	공동체를 돌봄 변화를 만들
인식	늙 그런 이	현자	나를 묻는 노인	본질을 묻는 노인
태도	체념과 숙명	자애와 지혜	기회와 노력, 자기계발	비판, 관계와 구조의 변화
위험의 원인	개인	개인	개인	국가와 사회
실천	순응	해결책 제시	개인의 변화와 자선	관계와 구조의 변화
제도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집의 유형	연민의 집	가족의 집	가족의 집 (자신의 집)	시민의 집
관련 이론	분리이론	역할이론	신노년,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비판적 노화, 진보적 노년학, 시민권 이론

출처: 유범상, 이현숙, 2021
자료: 유범상, 유해숙, 2022, p.89

8

누가 노인인가?

노인이 문제인가?

왜 국가는, 사회는 노인이 걱정없이 노후를 지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회적농업은 노인이 걱정없이 노후를 지내도록 만들 수 있을까?

노인은 공동체 속의 존재(공동체 밖으로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로서**
시민이며,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적 존재인 동시에
나이들어 삶을 더 살아온 선배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연대하는 사람

9

사회적농업

왜 노인이 사회적농업의 대상인가?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 및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업 실천” (이아코보, 2009)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은 농업 실천”
(김정섭, 2017)

10

이러면, 이런 노인들

구분	특징	필요 정책
① 허약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이외에 현금수입 없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서비스로 해결하도록 지원 마을 단위 공동식사, 공동주거, 의료비/교통비 지원
② 빈곤한 / 무리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몇천 원밖에 벌지 못하는 부업을 하면서 생활을 꾸림 복지관 급식이나 밀반찬배달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과금/난방비/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함 재산, 공적연금 없고, 자녀들로 받는 경제적 지원 불충분함 주눅이 들어 경로당에 가지 않음 경제적 문제는 없지만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무리하게 시간을 보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단위 복지사업 제공 사회적 일자리 마련
③ 건강한 저소득 가구주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주로 70세 미만으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대부분 젊은 시절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거나 일용직 등의 일자리를 통해 근로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처럼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가 없는 농촌에서 이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④ 배우자 간병/손자녀 양육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노인의 정서상 돌봄당사자는 타인의 손에 돌봄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고, 배우자를 남에게 맡기고 싶어지 않음 조손가정 노인은 경제적 문제부터 손자녀 양육문제까지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함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세대차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심리적/정서적 지원

11

이들이 사회 안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 노인들에게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가능한가? 도대체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사회적농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통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사회적농장 관련자들에게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선배시민'과 연결하자면, 사회적농장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활동적인 노화를 이룬 노인(액티브 시니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 즉 주권자로서의 몫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는 이웃으로서의 몫을 가진 선배시민이 되어야 전적으로 사회에 통합되고 성공적(개인의 경제적 욕구나 경제 외 욕구 차원을 넘어)으로 노인기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12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노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 농장 활동가들은 참여노인들을 우선 Know人으로 존중하는가?
- 그들의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려하는가?
- 그들이 농장에서 주체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가? 그리고 주체적 존재로 대우하는가?

13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노인의 속도를 맞춘다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의 신체에 적합한 농업활동을 기획하는가?
- 농업활동은 참여노인들의 몸과 정신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사회적농장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14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노인의 외로움과 잡념을 덜어낸다

- 농장 활동은 참여노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한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접점을 만드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15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노인의 건강을 관리한다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 개인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 개인에 맞는 적당량의 농업 활동을 분배하는가?
- 농장 활동가는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참여노인들이 몸 풀고 정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가?

16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인생에서 처음이나 마지막일지 모를 여가를 즐긴다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수입을 위한 활동 외에도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가? 혹은 참여노인들은 그것을 농장 활동가에게 말할 수 있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이 원하는 여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가?
- 농장은 여가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17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장은 참여노인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예를 들어 월례회의)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농장 활동가는 농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참여노인과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만드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지역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 농장 활동가는 참여노인들이 마을과 사회에서 '선배 시민'이 되도록 하는가?

18

일제강점기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평생 정치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No人으로 간주되어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은, 노인을 수동적 존재로 여기고 대상화하여 '연대'가 아닌 '연민'으로 노인 개인의 욕구와 안위에 반응해 왔던 기존의 노인복지와는 달라야 한다.

19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은 저소득 노인의 생계비 마련(생산적 노화)이나 노인의 최소한 바깥 활동 독려(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노동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20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은 평생 농업에 종사했던 노인들을 Know人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노동능력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일상생활에 관여할 뿐 아니라 참여노인들 사이, 참여노인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협력과 연대로 관계맺게 함으로써 노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몫을 가지고堂堂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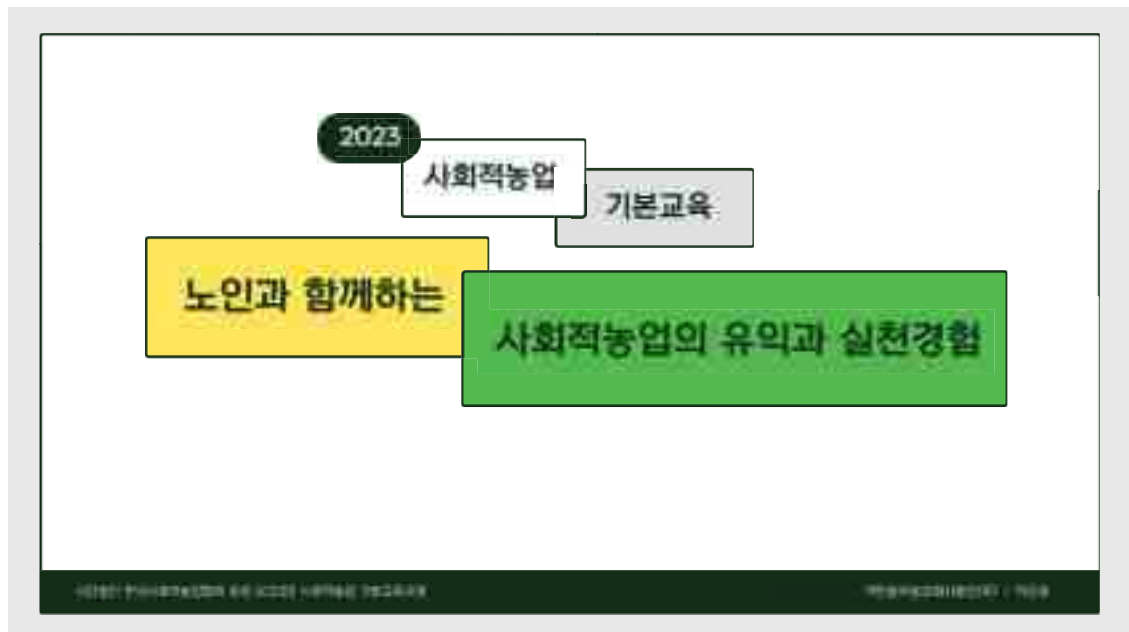
2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rkim@mokpo.ac.kr

22



1

사회적농업이란 무엇인가?

- 농민과 '사회적 약자'가 농사의 경험을 공유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
(물품, 교육, 일자리 등)
- 지역사회에서 대농업 부문 행위자 포괄 여력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함으로써, 활용하고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 농업이 농업생산 외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된다.

사회적농업(농업·농촌·농민)의 유익·교육·노년·사회적농업의 실천경험

1

사회적농업(농업·농촌·농민)의 유익·교육·노년·사회적농업의 실천경험

2

1. 사회적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2007년 병광 위촌, 지역조사 시작
-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과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여민동학공동체
- 2009년 자립형 마을기업 '여민동학 할매손' 설립, 영광특산물 모싯잎송편을 생산하는 공장
- 모싯잎송편의 원재료인 모싯잎과 송부령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영농직책반 모집
- 참여자는 고령의 특가어르신 비용이 높았고, 대부분 할머니 어르신들
- 마을마다 마을기업을 목표로 재7농장까지 확대 참여자 50여명
- 전담팀이 없고, 여민동학공동체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할매손, 동학합방, 지역복지팀)

- 2018년 여민동학영농조합법인 설립

여민동학-사회적농업

2

여민동학 영농-여민동학공동체 지역-여민동학-영광특산물-영광특산물-영광특산물

3

2.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 기초노령연금 8만3천원, 자발생활을 위한 30여만원의 소득을 희망하면 어르신들
- 참여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5만원~20여만원, 파생산 참여어르신 50만원 이상
- 작업내용 및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였지만, 참여만족도는 높은 영농사업단
 - 손에 익숙한 일 하는 농사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
 - 내 이름의 농장을 개설하기도, 내가 번 돈을 모으기도 즐겁다.
 - 현장에서 한여도 시집가면 못 보는데 여기서 본다.
 - 농사지식 알려고 묻혀고가 있는데, 힘 주시는 나를 동생들이 따워서 일 할 수 있다.
 - 80년만에 최고도 되보고 문명화도 된다.
 - 날마다 웃는다, 날마다 웃고 싶다.
 - 내가 번 돈으로 손주를 용돈도 주고, 자식들한테도 많이 준다.

(어르신 농작업 실태에 동행하면 서 촬영한 재기를 통해서)

여민동학-사회적농업

3

여민동학 영농-여민동학공동체 지역-여민동학-영광특산물-영광특산물-영광특산물

4

3. 공동체 복지, 영농사업단의 의미

술편을 만드는 활동과 그 원재료인 쌀, 모싯잎, 통부엌을 채비하고 공급하는 농사는, 농사문화재인 어르신들의 평생노하우를 한껏 활용한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고, 사람보기가 많은 농촌에서 20여개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작업 형태는 사람만나는 기쁨과, 소속감, 더불어 함께 이루는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었다.

영농사업단 운영현황

4

영농사업단 운영현황(단위:명) 2019년 1월~2020년 1월

5

4.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인력·물력 기능보강이 절실
- 지속가능한 영농사업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참여자 중심의 활동 체계를 정리
-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농촌복지의 모델을 잘 세워보고자

- 5만원(여의도 12달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는 일차리
- 1일 4시간 정도 노력이 신체적 능력을 배려한 농작업 활동(오시나 월거동부엌 농사 불가)
- 개인의 일상적 활동과 일차리 활동이 원활하도록 (요일과 시간)고정된 활동일정
- 교육과 문화여가활동의 확대
- 치매관리 및 복지정보 전달, 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행정지원 요구
(대표자운영회의 요청사항 중)

영농사업단 운영현황

5

영농사업단 운영현황(단위:명) 2019년 1월~2020년 1월

6

4.1. 사회적농장 시설 보장

- 농림사업과 병행하여 365일 농사가 가능한 비닐하우스 시설(50%지원 농림사업) 3개동을 마련하고
- 화합과 공동작업이 가능한 화합교육장(50명 비닐하우스)
- 활동거점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농막(6명 컨테이너)와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 여민동리 사회적농장(교육장 및 사무실 기준)을 중심으로 1km 반경이내에 5,000여명의 농지의 시설을 확보
- 농업용 전기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농림부농업진흥청

6

농림부농업진흥청 농업진흥사업추진단 농업진흥사업추진단 농업진흥사업추진단

7

4.2. 사회적복지사 교육

- 노인의 노년 고통과 깊은 허리, 고독감, 우울감 등을 이해하고
- 필요한 일을 설계하고 활동에 동행 할 수 있는 사람
- 사회적농장에서 운영자의 깊은 사람을 만나고 권대하는 일
준비물을 챙기고,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활동상태를 살펴보고, 벗장려하는 일
농과 담당자는 '꽃매니 10명과 잠깐 일해보니, 혼자서 하듯 하는 게 훨씬 낫다'

농림부농업진흥청

7

농림부농업진흥청 농업진흥사업추진단 농업진흥사업추진단 농업진흥사업추진단

8

9

- Figure 1**

8

Received 10 May 2006; accepted 12 July 2006

10

Keywor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social support

9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1–108

노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농업의 유익

- 사회적농장에서 농업전문가인 농촌노인이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
-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높은 속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외로움과 감념을 덜어낼 수 있다
-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 사회적농장에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2020 여민동관사회적농장 활동매뉴얼_어르신편,김명관,조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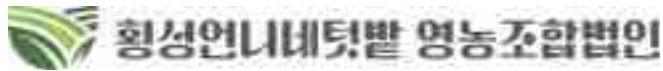
11

6. 사회적농업의 미래

- 노인의 삶과 욕구의 변화
- 가속화되는 농촌 인구의 위기, 20~30대 청년층의 공백
- 고령자들의 자립생활을 거드는 사회적농업의 필요시간은 앞으로 수년
- '도시형니어주들'과 '사회적농업인턴십' 등 대학생 및 20~30대 청년층의 단기 농장 프로그램 운영 확대 운영
- 노인과 청년이 농촌에서의 자립생활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동행자 조직으로의 사회적농장
- 노인과 청년이 공생하고,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지역의 의제를 거드는 사회적농업

12

사회적 농장



1

1. 황성언니네 텃밭 목표



-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 또 다른 농경문화를 만들고 자립, 자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 빈곤한 고령여성농업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내 장애인·아동·청소년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간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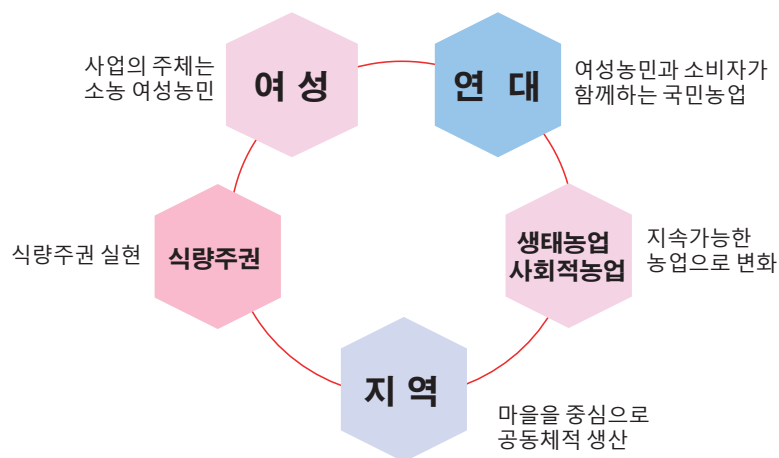
2. 횡성언니네 텃밭 현황



- 2009년 제철꾸러미 사업 (우리텃밭)으로 시작,
- 2014년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42 (횡성군농업인회관 2층)
- 시설현황 : 교육장 (횡성군 횡성읍 추동로 108-26)
공동체 작업장 (공근면 오산리, 횡성읍 추동리)
- 조합원 : 33명 (여성농업인)
- 자본금 : 101,150,000원

3

3. 횡성언니네 텃밭의 비전



4

4. 횡성언니네 텃밭 주요사업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기업



제철꾸러미

- 01 소비자 회원 ① 월 회비를 내어 ② 성·농민 생산자 공동체를 지원하면 생산자는 계절에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 02 일글있는 ①성·농민의 ②품으로 판매합니다.
- 03 고령·성·농업인 자립을 위한 소득활동



사회적 농장

- 01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실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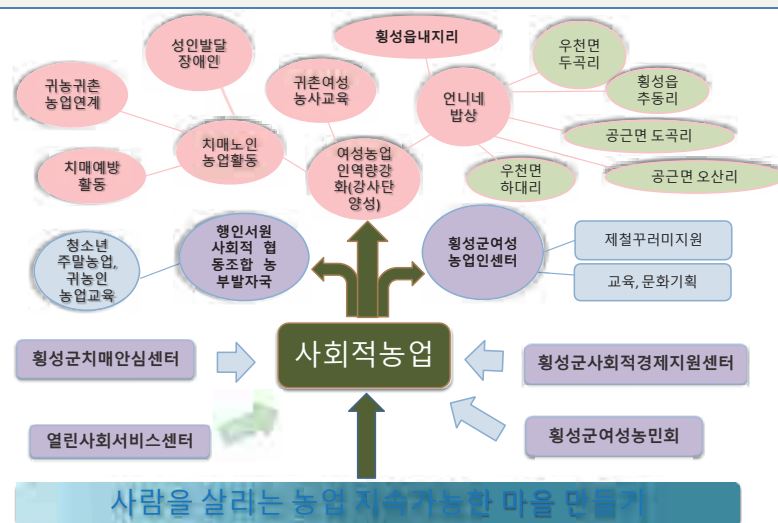
지역 네트워크

- 01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① 빈곤한 고령·성·농업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내 장애인·아동·청소년들 ②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간다.

5

5. 횡성언니네 텃밭 네트워크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기업



6

6. 사회적 농업 활동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고령여성농업인자립을위한 “제철꾸러미 활동”
돌봄	노인 반찬서비스 “언니네밥상”
치유	치매안심센터연계 “경증 치매노인 치유농업 활동”
교육	귀촌여성에서농업인으로의 정착지원 “함께하는텃밭” 농사 교육
고용	농업인 강사활동
교육	전통음식전수및가공 “언니네두레반”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농업활동을 통한돌봄”
교육	귀농귀촌희망자(6개월살아보기) “생산·유통교육활동”

7

7

사회적 농업 활동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고령여성농업인자립을위한 “제철꾸러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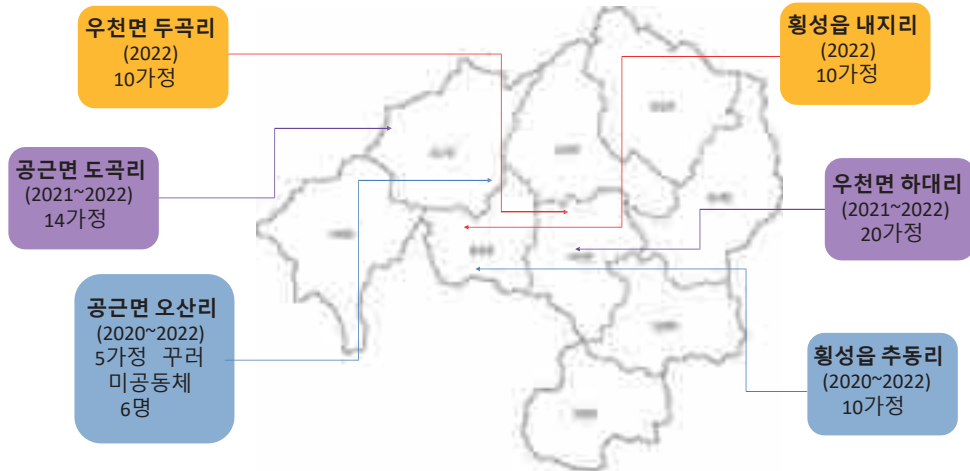


8

8

들 봄 노인반찬서비스 지역네트워크

횡성군 6개 마을 월2회 63명 고령어르신 반찬 나눔, 마을 주민 강사활동



9

들 봄 노인 반찬서비스 “언니네밥상”



10

들 봄

노인 반찬서비스 “언니네밥상”



11

11

치 유

치매안심센터연계 “경증 치매노인 치유농업 활동”



12

12

교 육

귀촌여성에서농업인으로의정착지원 “함께하는텃밭” 농사 교육



13

13

돌 봄

성인발달장애인 “농업활동을통한돌봄”



18

14

6. 네트워크 활동

강원도 청성군 청성읍 추동로 108-26
연락처 : 033-345-2470
이메일 : hsgys@naver.com



15

감사합니다



강원도 청성군 청성읍 추동로 108-26
연락처 : 033-345-2470
이메일 : hsgy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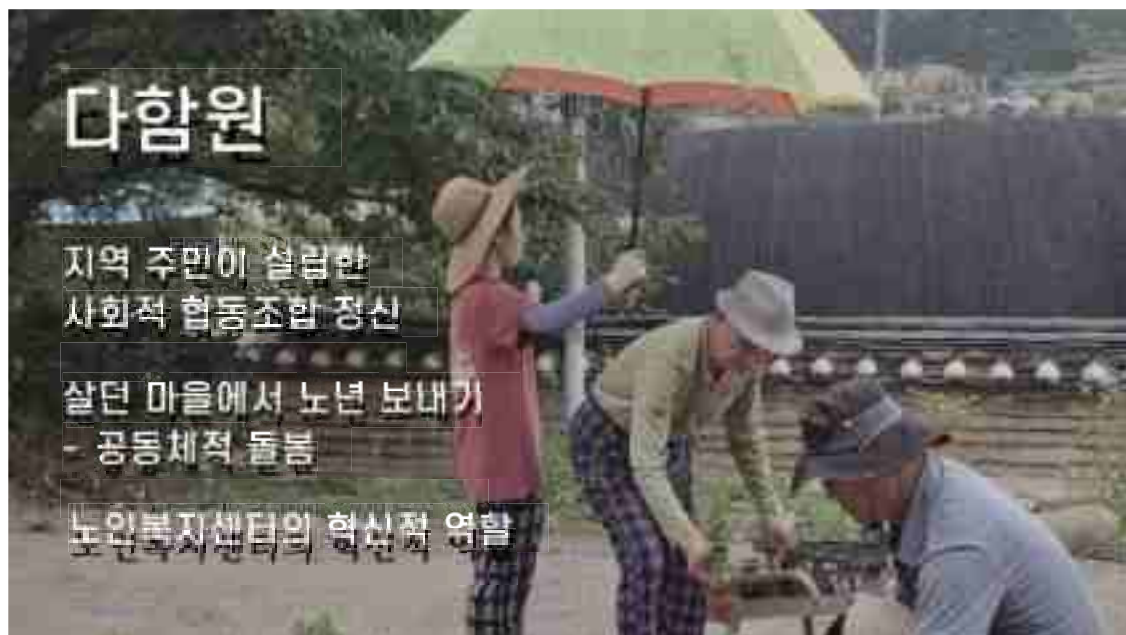
16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3년차 사회적농장
다함원

1



다함원

지역 주민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 정신

살던 마을에서 노년 보내기
- 공동체적 돌봄

노인복지센터의 혁신적 역할

2

유쾌하게! 있는 힘껏!

2021_1년차

원예활동
정원산책
작은 음악회
나들이 인
생책방 자
수
도자기



3

<농장 조성 - 강의실, 식당, 화장실, 산책로, 툼발, 농장>
<공부와 모방>

2021_1년차



4

차분하게! 앞을 내다보며!

2022_2년차

- 활동시간 조정 - 주 1회 정기모임과 농장 자립프로그램으로 변경
- 실무진 보강 - 사무회계담당 실무 인력 보강
- 농장 자립방안 모색 - 노인 일자리 시도

반려활동
정원산책
알자리 수업
요리수업
작은 음악회
나들이 체
합학습



5

지역의 필요에 한걸음 더!

2023_3년차

-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의 역할 변경
- 참여의 폭을 넓히기

노인복지센터 중점협력4개 마을회, 친환경농장, 천혜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위기청소년센터, 돌봄(복지통구)서비스센터, 복지공소, 권가업체, 서각협회, 건설기계사업장 등

- 프로그램

- 1 생활돌봄사업, 생활지원서비스, 마을공동체
- 2 참여여가사업
- 3 보·복사업, 원·복사업
- 4 교육문화사업, 환경친화적아이디어개발사업, 유망기업 발굴사업

6



7

성찰과 과제

1. 협력모임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체 발굴

- 자원봉사 모임
- 거점마을 리더모임
- 면 단위 행정조직 및 각급 단체

2. 자활(자립)능력 키우기

- 후원회 조직
- 농산물, 공예품 등 판매
- 연관 정책사업 시행

3. 복지문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

- 노인복지 선도지역 추구
- 생활 속 네트워크 강화
- '복지문화 지원센터' 설립

30일 - 2일차

청년과 사회적농업

전문가 강의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사례발표

문영규 (곡성 향꾸네 협동조합)

강승희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패널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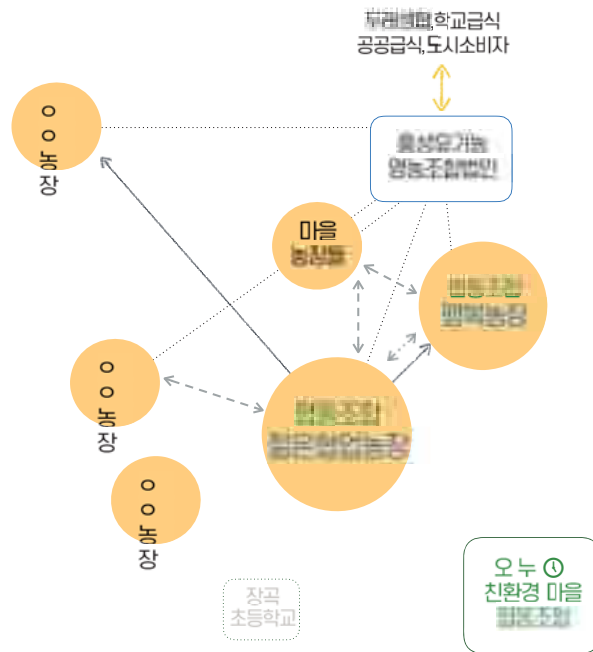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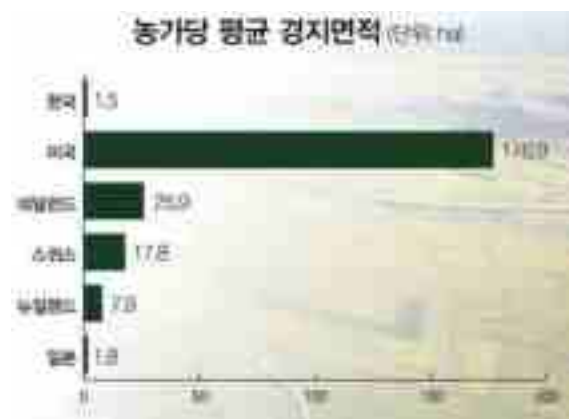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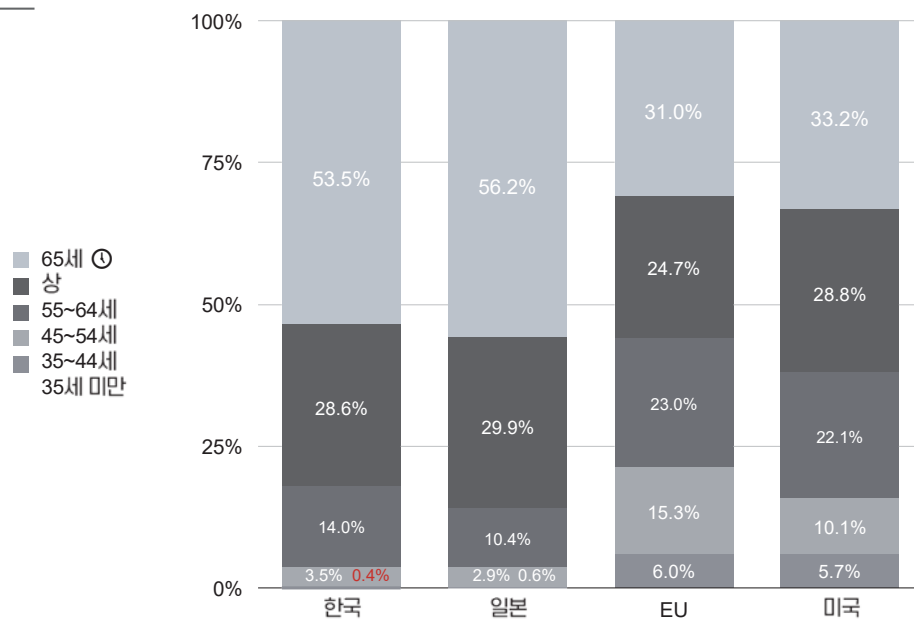
6



2013년 젊은협업농장

7

국가별 농가경영 주 연령대 비교



8

홍성군 농축산물 판매금액 별 농가호수 구성비

2014,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구분	농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만원~1억원		1억원 이상	
전국	1,088,518	121,718	11.2	661,642	56.6	197,673	18.2	67,442	6.2	56,005	5.1	29,259	2.7
충남	131,008	12,042	9.1	73,813	55.9	27,327	20.7	8,469	6.4	6,725	5.1	3,632	2.8
홍성	9,628	798	8.3	5,676	59	1,841	19.1	565	5.9	411	4.3	337	3.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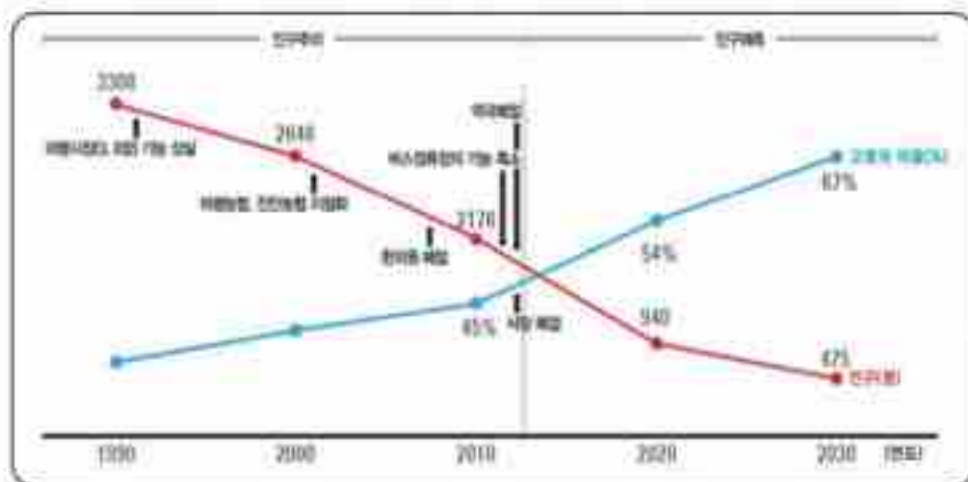
10



정호연은 "우리는 지난해 3월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0만 유로 차관을 받았다. 일부는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 나머지는 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이다. 원금 1000만 유로 중 원금의 50%를 '자본금'이라고 해서, 나머지 50%를 '대출금'이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시작해서, 현재 2014년까지는 1500만 유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원금 1000만 유로 중 500만 유로만 상환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며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호연은 "우리는 1000만 유로 중 500만 유로만 상환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며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호연은 "우리는 1000만 유로 중 500만 유로만 상환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하며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11

〈그림 4-2〉 농촌 면 지역의 서비스 공급 저하와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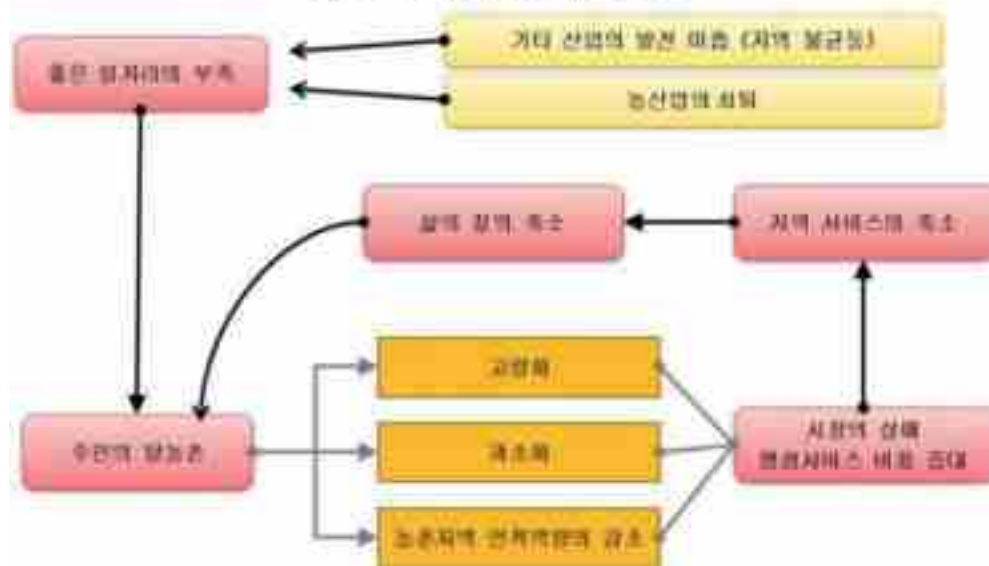


자료: 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선의 제공

KREI, 김정섭 외, **농가의 다면적 사회경제활동의 실태와 과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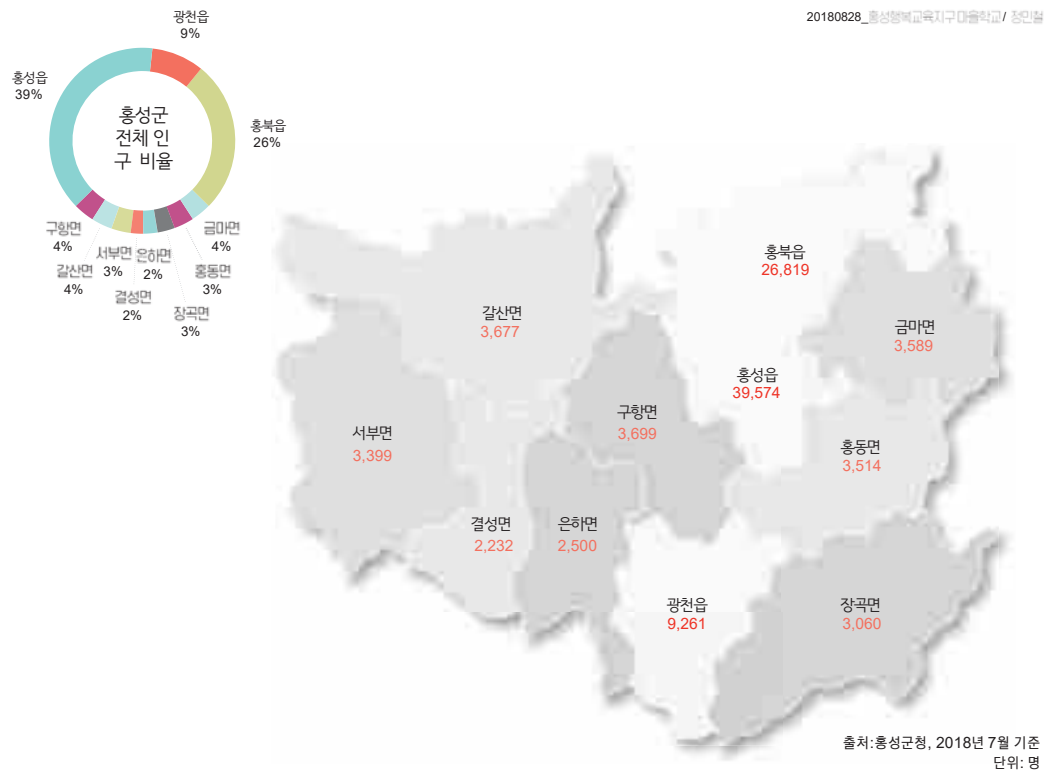
12

그림 9. 농촌지역 문제의 모식도



KREI, 김정섭, 농촌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지원 방안, 2017

13



1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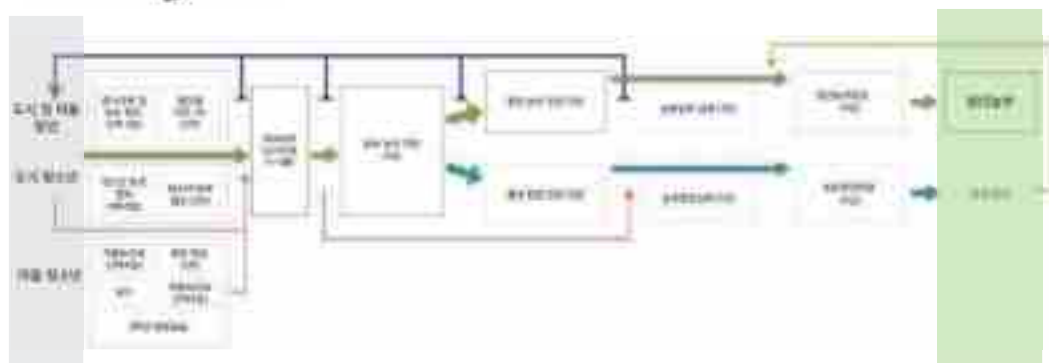
	옥포시	은평구	성북구	광곡면
면적(km ²)	50.60	29.70	24.57	54.90
인구(년)	238,426 (16)	497,920 (16)	438,031 (18)	3,100 (17)
행정구역	23개동	16개동	20개	32개리

18



19

정밀마을학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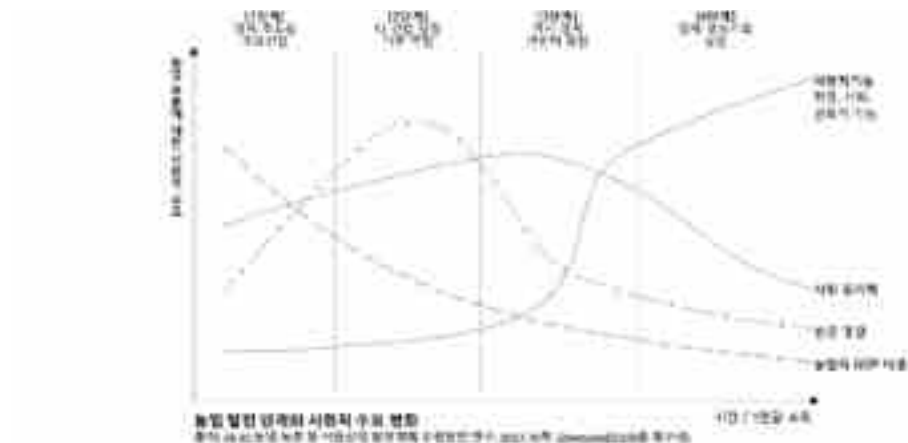
23

홍성군 농축산물 판매금액 농가호수 구성비

		2015					
구분	농가	판매금액	1,000만원 이하	1,000~3,000 만원	3,000~ 5,000만원	5,000 만원	1억원 이상
전체	1,000,518	11.2	56.6	18.2	6.3	5.1	2.7
농업	121,506	9.1	55.9	20.7	6.4	5.1	2.8
농가	8,638	8.3	59	19.1	5.9	4.3	3.5
			67%	19%	14%		
			농가 >> 농업			농업 >> 농가	

사회자본 (지역사회관계망)	차원	경제자본 (창업자금, 농신보)
명농활동 농촌생활	기술	신도농가, 신영농기술
농촌현장 지역농가	교육	농(수산)대, 농촌진흥기관
농촌사회기반 농민협	농민유형	(국유)자본 기반 경영자형

2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및 선유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환경 보전, 공공장소, 지역사회, 자원의 보전 유지 등에 기여하는 역할/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과 무역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명시/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Non-Trade Concerns)으로 규정/ EU는 공통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중심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시행
- 스위스 연방헌법상 농업정책 주요 내용: (1)농업의 기능(환경적, 사회, 공급/안전지원, 보존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연구 유지), (2)연방의 역할: 농업의 생산중수리부분, 전체적 차등금, 전체적 농가소득을 보전, (3)농민의 의무: 토양수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유지 등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업 생산 활동/ 스위스 법률에 의해 검사, 지불제/ 생태보전, 지불제/ 동물복지형, 지불제/ 다기능적, 작물다양성 생산 방식에 농 복등이 감지하는 조건
- 농촌경제연구를 2010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 응답자의 82.7%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가치가 있다고 응답/ 응답자 54.6%는 국가 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음으로 응답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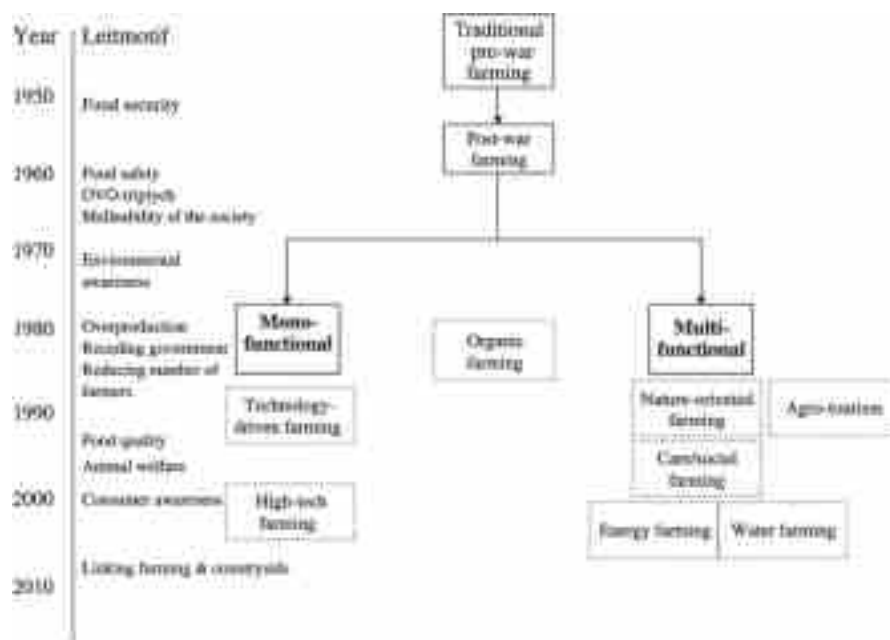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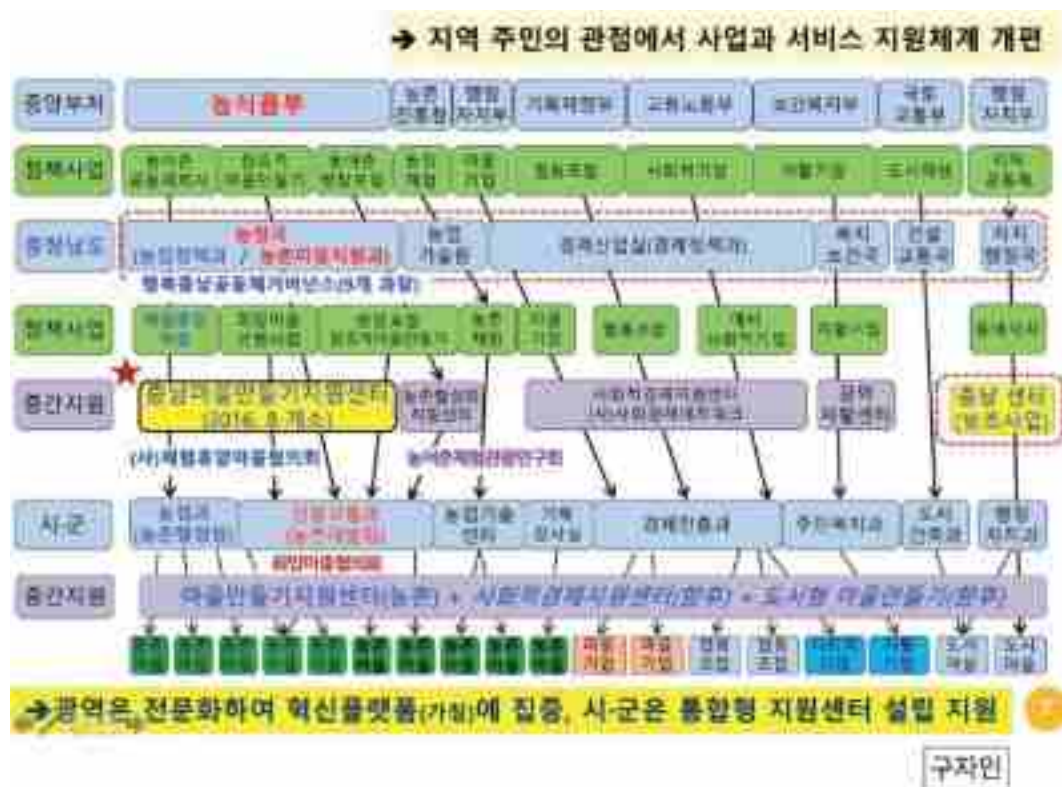


Fig. 3. Agricultural trends in the Netherlands from 1945 to present.

The Changing role of agriculture in Dutch society October 2009, The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147(5)

26



27



28



29



30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제임스 스콧

★ 농업·경쟁력의 '도덕경제' : 사람들이든(모습을 뒤집힌 '도덕경제')

- 농민들은 해탈을 위해, 즉 사회적 제약을, 규범, 지적 등을 통해, 해탈된 지역사회 내부의 조종 경제를 선택한다
- 농업 경쟁력은 시장 메커니즘을 선택한다

농민의 도덕경제 - '협동하는 지역사회'
남아프리카, 프리지아 북부 지역현장조사 현장

1. 지역사회 우선
2. 사람과 땅의 통일성
3. 순하게 농사짓기(farming gently)
4. 농민의 권리
5. 우리가 더 잘한다
6. 신뢰
7. 더디지만 꾸준한 진보
8. 우리는 혼자 아니다
9. 미래를 돌본다
10. 만족과 즐거움

농민의 도덕경제 - '협동하는 지역사회'
페루, 카다코아스 농민 지역사회 현장

1. 불일되고, 파괴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지역사회
2. 모든 구성원 ① 민족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통치되는 지역사회
3. 권리와 의무에 있어 모든 구성원 ① 공동체 지역사회
4. 노동을 유일한 부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지역사회
5. 외국의 요소들 ① 지역사회의 자원과 생산물 착취하게 두지 않는 지역사회
6. 모든 구성원 ① 주택, 보건, 먹거리, 교육, 고용 등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도록 보장하여 투쟁하는 지역사회
7. 지금 당장에 그리고 미래 지역사회 젊은 ① 들의 필요를 충족하려 능동적으로 일하는 지역사회

김영진 (농촌경제연구원) - 농민운동과 농업정책 강의를 자료 중 (201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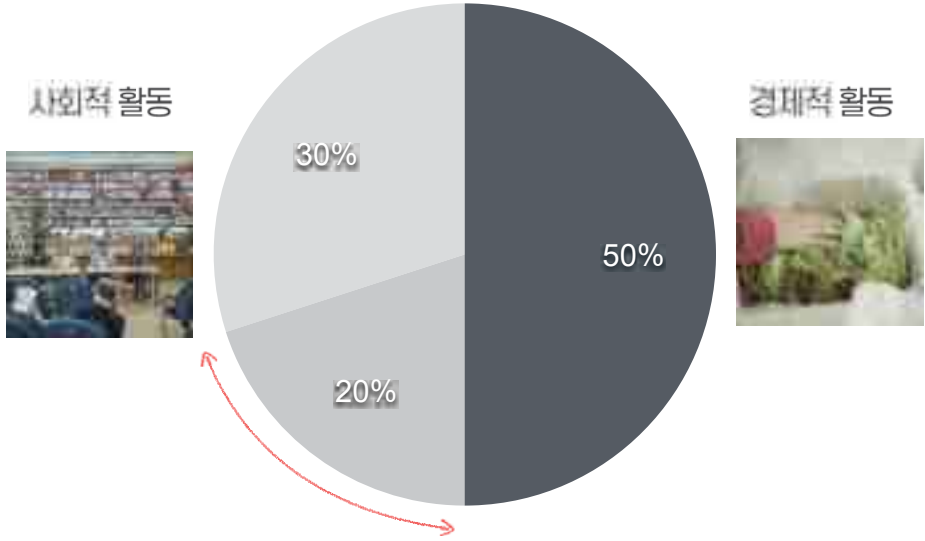
32



시간	활동	담당자	비고
17:30 ~ 19:00	1.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2.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3.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4.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5.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6.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7.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19:00 ~ 20:00	8.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9.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10. 대동과 피타하 양육사 (현장직) 종교개혁의식	김민준	

33

농업 vs. 사회적 활동



34



35



일일 프로그램

발달장애인과 자살예방교육
동성소년 일별활동지, 노
인복지관 등

대상에 따른 논 놀이
활동 수확 및 요리, 자연
놀이 일회적 체험
및 방문



1박2일 ① 상

자연과 정서교육가족캠프 노숙
인 자조모임 대안학교 학생사회 복
지실무자 위크숍 등

자연관찰, 체험, 지역탐방
목공, 요리, 농업 활동 등
농업*농촌 경험



연간 진행

자오나학교 월간 농사체험
2박3일 총 6회
농촌과 관계 맺기/자연의 흐름 알기

나사렛대 차교농업연구팀
정 2박3일 2회, 4박5일 1회
사회적 농업 및 지역 해

36



37



38



39

2018년도 정주환경 개선 시범사업

1. 개요

- 사업명 : 홍성군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 (3년, 36개월)
- 사업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2리
- 지역현황

가구 및 가구수	98명 (48가구)	주택수 및 주택밀도	1호 / 2.81ha
상수도 보급률	100%	하수도 보급률	0%
무허가 주택비율	73% (35호)	슬레이트 주택비율	46% (22호)
공매가 주택비율	4% (2호)	30년이상 노후주택	67% (32호)

2. 사업 내용

40



41



42



43



44



45



46



47



3. 꼬마농부학교

영국초등학교 동문인 학생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중 14회)



48



상주시민회관 / 노인 학습 활동 모임 운영

6. 커뮤니티케어

홍성군 광곡면·도선리 장애인사회참여인 모임





49



상주시민회관 / 돌보는 농부 학교

2. 돌보는 농부 학교

홍성군장성간경북지병대(보건의)
군내 만성질환예방과 다중 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중 14회, 총 19명 참가





50



51



52



15-00000

로 사임한 뒤에는 (1922.1923)
 ① 신정당에서 활동하였다
 ②, 1924년경

주: 2024년 12월 31일 기준

8569

23.24 $\frac{1}{2} \ln 2$ (b) $\frac{1}{2} \ln 2$

Self-Test Questions

1000-2000

7700-7701-0000

Source: *Author's calculations*.

電話 03-3462-1111 傳真 03-3462-1112

© 2000 Blackwell Science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47: 399–405

空想

中國銀行 2007 年 12 月 31 日

본회의(제1회)는 1945년 8월 15일 3시 30분에 14.25 노박 위원장이 임의제에 찬
 14표로 결의하는 결정을 채택하여서 1945년 8월 15일 3시 30분에 종료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Keywor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social support; self-esteem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

1.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1997, 34, 1, 1-15.



57



58



61



62



63



64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문화분과**

장곡·농촌·마을 활동의 간접적·직접적
장곡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연내 마을별 품앗이 활동 확대를 통해 주민의 화합을 촉진하고 장
곡면지역의 복지·문화 및 문화 활동 면에 서행하겠다고

2020년



2021년



65

**2022년
장곡면
문화분과
활동**

**장곡면주민자치회
사회적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공동체형**
2022년~2023년 (1년 분기 지원)
연간 500만원 지원

**장곡면주민자치회
주민생활향상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조직 육성형**
2022년 (1년 분기 지원)
연간 500만원 지원



66

Point 1

주민 주도
관계 중심
동행방구
추진

마을별 동행방구 상생동행
2~3개 마을 단위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차량사업



- 장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의)노동
 - 건강한 밥상나눔
 - 행복나눔상생동행
 - 출개어 주(주)상생동행
 - 행복나눔 장곡 택시
 - 행복차량사업
 - + 기타 상생차량사업



- 장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장곡면 행복차량사업
 - 장곡면 주민자치회
 - 장곡면 01행복동행
 - 장곡면 사회적농업사업
 - 장곡면 직능차량사업
 - + 면내 기업/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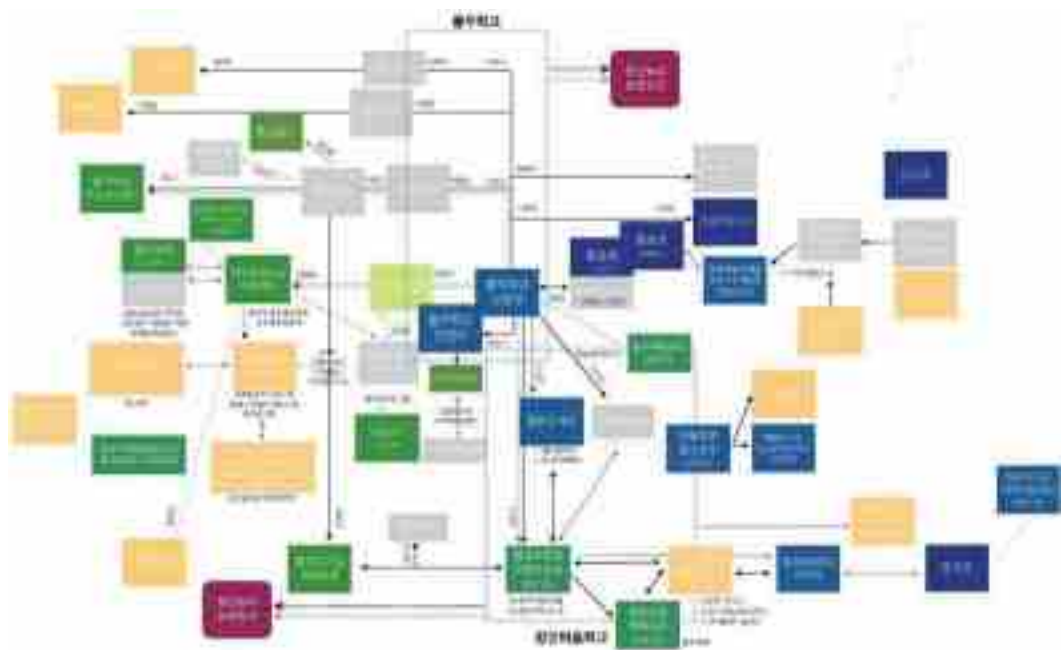
충청남도 충청남도

9

67



68



71

학습 : 지역교육, 풀무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평민마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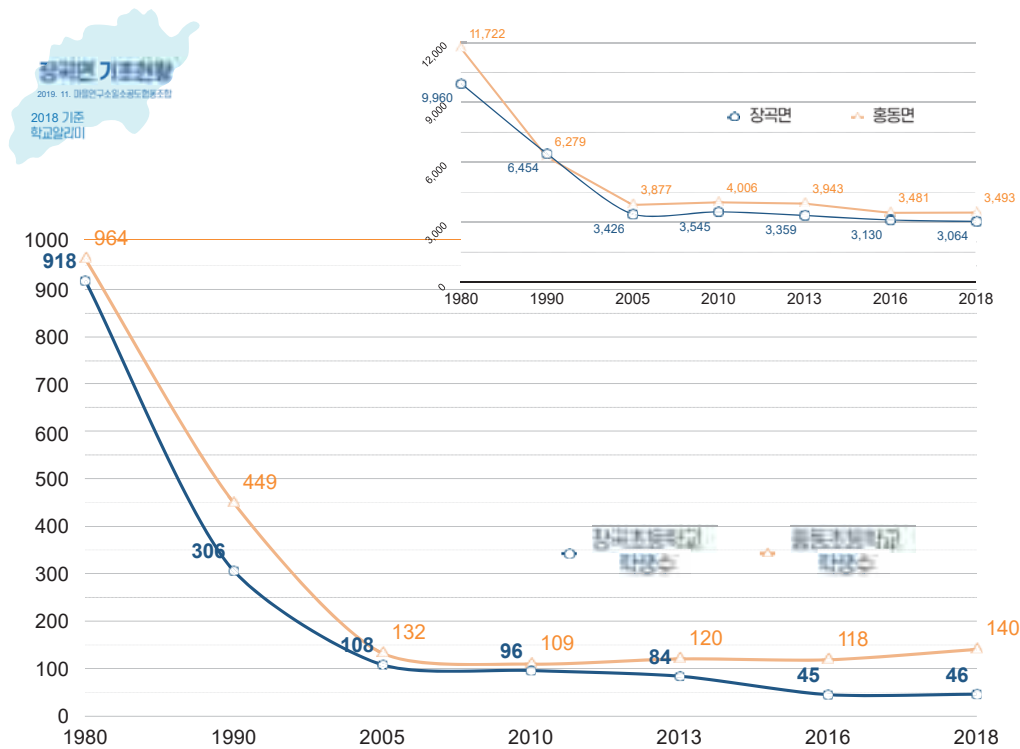
마을 : 흥동면, 장곡면, 농촌&청년, (협동)조합, ① 상 촌

농업 : 유기농업, 지역농업, 청년&농부

72



73



74



75



76



77



78



79



80

1. 향꾸네 사회적농업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향꾸네가 4년째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에 귀농청년도 대상에 포함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청년 농민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민의 수가 급격히 소멸하는 우리사회인 만큼 농촌 현장에서 운영되는 사회적농업 지원제도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험자로서 말할 수 있다. 여타의 청년 농민 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사실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지역은 청년 농민을 장려하는 정책은 포기한 듯 농사와 무관하게 ‘OO에서 한달 살아보기’ 등 지역유치 경쟁이 유행하기도 한다. 어쨌든 지역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맥락인데, 문제는 농적 가치를 갖고서 지역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혹 ‘청년들이 돈 안되는 농사를 지으려 하겠어?’ 하는 의식이 바탕이 된 것은 아닌지... ‘농촌’과 ‘청년’ 모두 어려운 사회적 주제이니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이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생태적가치, 자급자족, 퍼머컬처를 지향하는 청년들은 늘어나는데 이를 응원하는 적절한 정책은 마땅한 게 없다. 직업으로서 성공하는 농업(창업농, 시설농업 스마트팜) 형태만이 청년이 농촌을 찾는 이유인 줄 아는 듯하다.

사회적 농장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농사 시도 사례는 우리 나라에서 흔치 않은 좋은 경험적 자산이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농장이 많이 늘어나 청년이 농민으로 정착하는데 기댈 언덕이 되었으며 한다.

2. 향꾸네 사회적농업

2.1 향꾸네협동조합

향꾸네협동조합은 2013년 5월에 마을주민 11명이 창립하였다.

향꾸네협동조합(이하 향꾸네)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역공동체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삶의 추구, 전환적 삶을 추구하는 조합원의 행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해온 주요사업으로는 마을 커먼스 구축 -적정기술공방,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청년쉐어하우스-과 관련 사업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추구가치와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하는 이들의 합류와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마을에 정착한 청년들로 조합원수(46명)가 많이 늘었다. 농사품앗이, 작은도서관 운영, , 사회적농업 운영(청년, 아동/청소년), 마을학교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농촌파괴시설 유입반대) 대책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조합 성격은 사회적농업의 운영 목적과도 달아 있고, 참여 청년은 마을성격이 맘에 들어 정착해 살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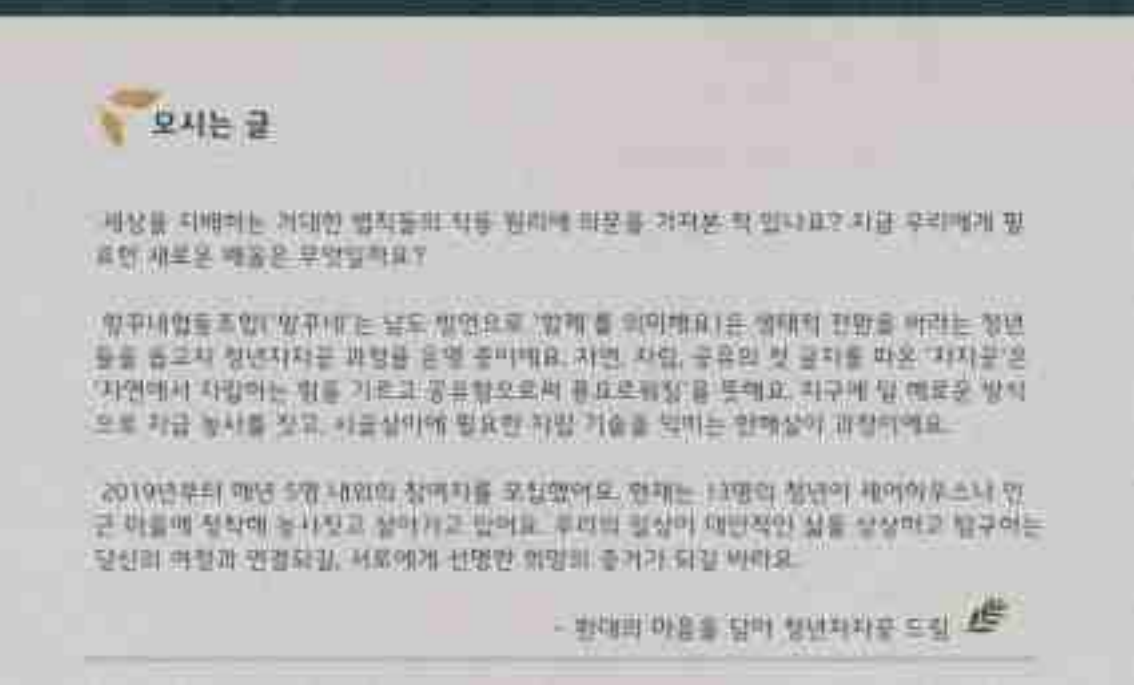
2.2 향꾸네 사회적농업 내용 소개

A. 향꾸네 사회적농업 장기 프로그램 '청년자자공'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고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는 삶을 지향하는 귀농 희망 청년’에게
기대 언덕이 되고자 한다.’

★ 과정 성격

교육대상으로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청년자자공'은 청년을 교육대상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대상자로 여긴다.




모시는 글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의 작동 원리에 파문을 거저본 적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배움은 무엇일까요?

향꾸네협동조합(향꾸네)는 낯도 낯먼으로 '함께'를 의미합니다. 생태적 경관을 버리는 청년들을 돕고자 청년자자공 과정을 운영 준비해요. 자연, 자립, 공유의 첫 걸음을 따온 '자자공'은 '자연에서 자립하는 힘을 기르고 공유함으로써 풍요로워짐'을 뜻해요. 친구에 달,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지금살이에 필요한 자립 기술을 익히는 한해살이 과정이에요.

2019년부터 매년 5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했어요. 현재는 13명의 청년이 세어하우스나 인근 마을에 정착해 농사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대안적인 삶을 상상하고 탐구하는 당신의 여정과 연결되길, 서로에게 선명한 위명의 증거가 되길 바라요.

- 반대의 마음을 담아 청년자자공 드림 

과정 안내

1. 자급농사 : 자자공 과정은 작금 논·밭 농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연농과 퍼머컬처 방식을 따르며 소가지(논작, 완감배로, 채소채, 비닐, 곡물)가 있는 농사를 지향하여, 먹는 안·다량어에 함께 짓고 알뜰함은 구역을 나누어 각자 자유롭게 지어요.
 2. 사골음식 : 절 (1회) 할파라 반과 풀, 밭에서 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요. 마을 이웃들에게 제철나물, 예주, 전장, 된장, 고추장, 두부, 전복죽, 수제맥주, 식혜, 전연발효법, 김장품 배워요.
 3. 생필자립기술 : 절 (1회) 직조기술, 목공, 무드커빙, 플랩, 간이건축, 비노질, 온수선 등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요.
 4. 탐방 : 절 (5회) 만나고 싶은 농부님 집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절 (3회) 치맥문화 및 자연 유산을 탐방해요. 농부님들과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자연살이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5. 토론 : 수시로 농사 및 생태 관련 도서를 읽고 생각을 나눕니다.
 6. 교류 : 모내기할 친구를 초대해 2박 3일간 농사일과 추억의 밭살을 함께하는 <모하지>를 진행해요.
 7. 배움다이어리 : 위 과정 외에도 학교방문수업 보조교사, 비록적대학 모임, 통영대 동아리, 수재 박주 동아리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희망하는 경우 자율 선택)
- *농사, 배움 등 세부 내용은 참여자들이 정해요. 일정은 주중에 진행하며 주말은 개인 시간을 가져요. 자자공은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예산을 사용해요. 별도의 참가비는 받지 않아요.
- **더 많은 이야기거, 궁금한 점은 검색창에 '양구내평동조합'이나 '청년자자공'을 입력해주세요. 구체적인 공식 SNS는 없지만 취재 기사, 방문 후기 및 구성원 인터뷰 영상 등을 볼 수 있어요.

B 사회적농장 단기교류프로그램 ‘모하지’

★ 자자공 청년들이 도시 청년들을 초대해서 단기 농촌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기	세부내용	인원
모하지	6월 (2박3일)	- 손모내기 : 귀농청년들과 도시청년이 함께 한다. - 시골음식 배우기, 맛보기 - 아나바다 (지구를 생각하는 활동), 농촌예술활동	20명
모하지 (가을)	10월 (2박3일)	- 콩수확/벼수확 및 갈무리 - 농촌예술 활동 - 귀농청년들과 예비귀농청년과의 대화	20명

C 사회적 농업 활동의 확장

① 대상 : 초·중·고 학교 학생

A. 교육농 활동

: 학교에서 수업형태로 생태텃밭정원 활동을 지도하며 생태교육을 하는 활동

B. 생태강사 활동

: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전환수업 진행

② 경과

- » 21~22년 학교생태텃밭정원 교육농 양성과정 진행
- » 21년에 곡성 지역에 3개 학교로 출발
- » 23년 곡성지역 12개 학교로 확산 (청년자자공에서는 3개 학교 담당)
- » 23년 생태전환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중비중

3. 향꾸네협동조합 사회적농업 활동을 통해 얻은 유익함

3-1 청년이 얻는 유익

① 향꾸네 사회적농업 ‘청년자자공’ 과정은 생태적인 삶, 농부의 삶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가치 측면, 방향성 측면에서 만족감을 준다. ‘OO지역 살아보기’와 달리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하다.

※경과 : ‘지난 4년동안 21명의 참가자 중 13명의 청년이 인근에 정착하였다.’

② 최소 1년간은 주거가 해결되기에 가장 어려운 진입장벽이 해소된다.

③ 농촌에서 자급자족/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농사, 자립기술, 지역과 농촌 탐방, 주제(책) 토론, 청년정착사례’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④ 먼저 정착한 청년들의 지지와 연대로 힘을 얻는다.

⑤ 지역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활동의 나래를 펼 수 있다.

- 지역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참여
- 사회적농업 운영위원과 스텝으로 참여
-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농사품앗이에 중심이 되고 있음
- 마을 일꾼(건축)으로 활동
- 다양한 문화활동 : 마을음악회, 마을영화제 개최, 품물패 설립 및 활동
- 지역 현안 문제(농촌환경파괴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지역 연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3-2 지역(마을 공동체)이 얻는 유익

① 향꾸네 협동조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소모임, 위원회에 청년이 결합하여 손과 머리가 되어 주고 있다.

지역(곡성) 공동체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 학교텃밭정원 교육농 활동, 다양한 동아리 소모임, 인문/생활 강좌 개설, 농사품앗이, 주제토론, 생활개선활동, 지역현안문제(농촌파괴형 개발) 저지 연대 활동 등

② 젊은 청년세대들이 마을공동체에 유입됨으로써 선배 귀농인 혹은 선배 세대들은 청년세대의 열정을 접하고, 주요 이슈(생태적 삶, 성평등, 사회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자극도 받고 생각도 넓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③ 타지역 청년들과 자연스레 교류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 생태농업, 기후위기 대응, 동물권, 파괴형 농촌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타지역의 청년들과도 교류와 연대가 일어나고 있다.

4. 운영상 어려운 점

① 농사실습과 정착준비라는 특성상 장기간 농사와 활동을 거의 매일 같이해야 하는데, 운영자의 전면적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 사업내에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은 어렵고 헌신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② 청년의 입장에서 정착을 위해서 주거대책이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데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소득 대책도 필요하다.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농민이 더 쉽게 유입/정착되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 단위에서 혁신적인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할 때다.

- 예) 마을내 청년농 장기 임대 (공동)주택 설립 또는 마련, 청년농 기본소득 지급

5. 변화

항꾸네가 운영하는 청년귀농을 위한 비밀 언덕 ⇒ 청년공동체로 변모 중

2023년은 청년이 사회적농업의 운영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했다.

항꾸네 귀농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마을에 형성 되어진 ‘청년 농부들의 공동체성’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어 주고 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청년들의 합류를 불러온다. 기성세대가 채울 수 없는 동질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항꾸네 조합은 청년들의 활동에 지원하고 보호하는 배경이 되어 주고 있다. 먼저 시작한 청년이 새로 올 청년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주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다.

2023년부터 운영위원장을 청년이 맡게 되었고 스텝으로도 참여한다.

청년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1

덕산면 마을 공동체 사례



2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를 꿈꾸며 일구온 마을



3

살고 싶은 농촌

사람과물자가 순순환하는 마을

0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자긍심의 회복-가치의 전환
2. 새로운 삶의 생태계
3. 교육, 문화, 의료, 복지
4. 이동권 보장
5. 문화가 있는 마을

02. 사람의 선순환

1. 젊은 층의 유입
2. 사회적경제 생태계
3. 자아성장과 실현 체제 구축

03. 자원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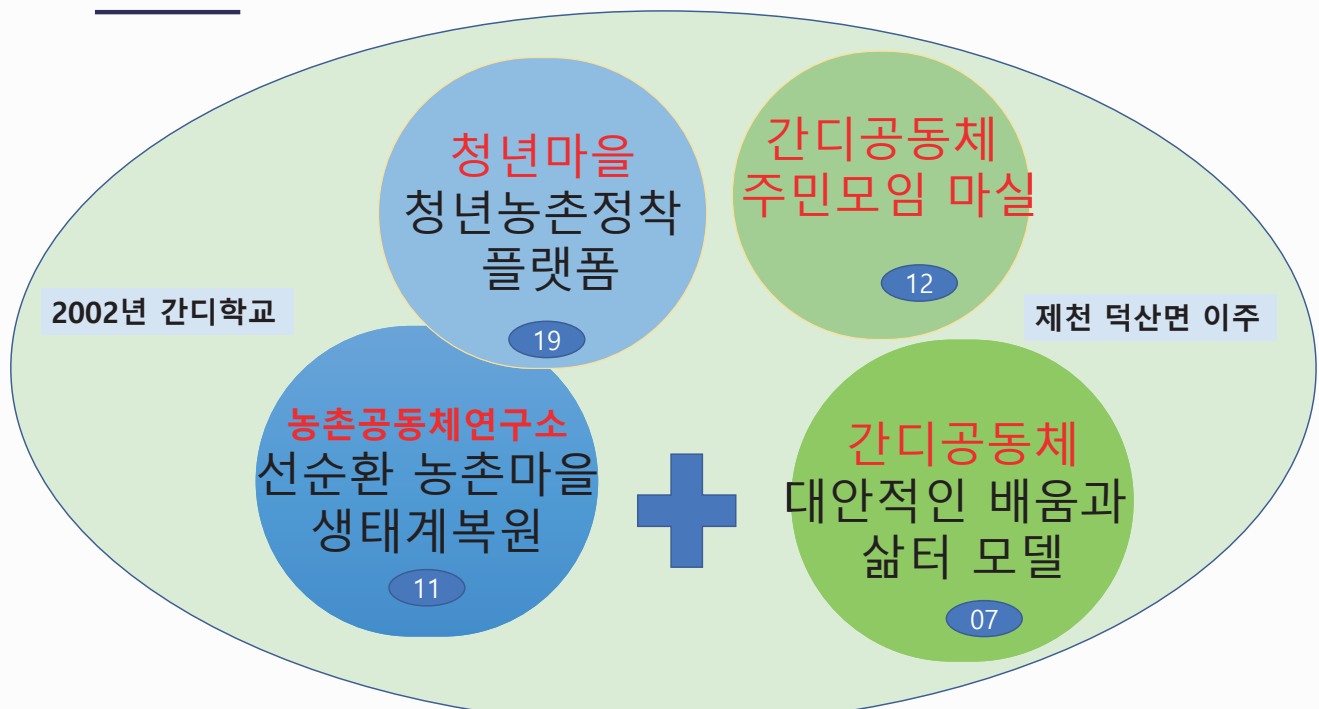
1. 관계망에 의한 생산과 소비
2. 기본소득
3. 자원의 선순환
4. 생태주의적 관점 확산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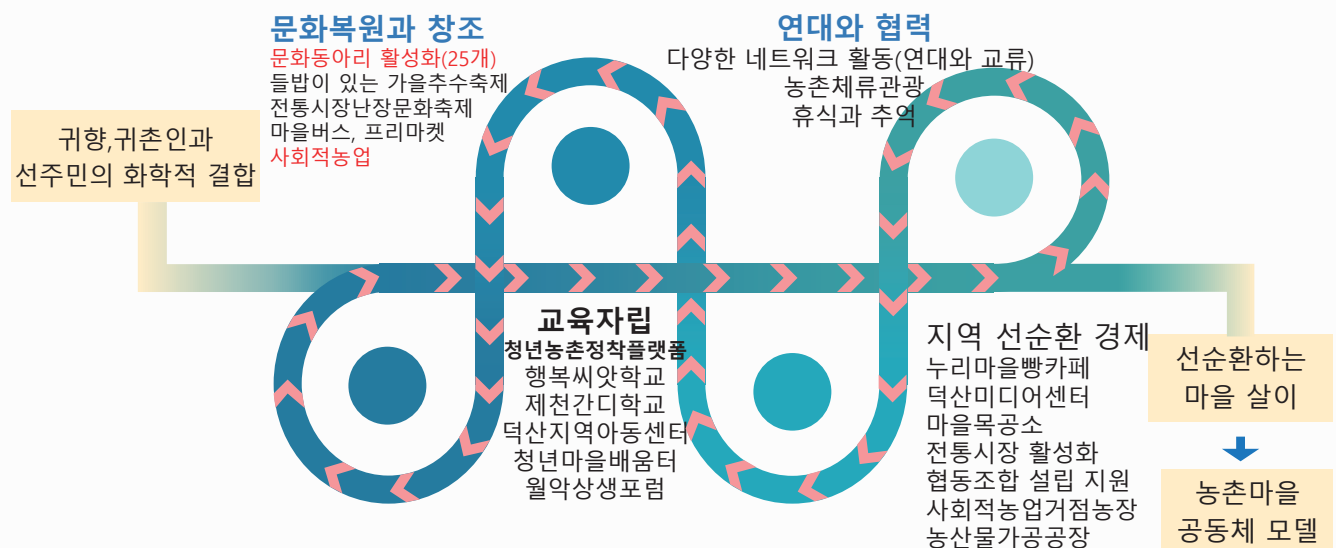
4

덕산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의 변화



5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 만들기



6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 공동체가 복원된다



7

선순환하는 마을 공동체문화

문화창조- 삶의질이 높은 농촌마을

작은 음악회 개최

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전통 축제 및 행사 복원

전통시장 난장 문화 개최

정주기반조성 -마을버스,목욕탕

8

보는 문화에서 직접하는 문화로

- 작은 음악회
- 마을 동아리 활성화 육성 및 지원
(25개 동아리 활동 및 공연 공간 제공)
- 연 5회 전통시장&난장&문화공연
- 대보름 행사, 어린이날 행사, 송년 잔치
- 다문화 정착
(일하는 곳에서 문화가 유통하는 곳)



농촌공동체연구소 문화사업들



간디공동체 (연대단체) 주민모임 마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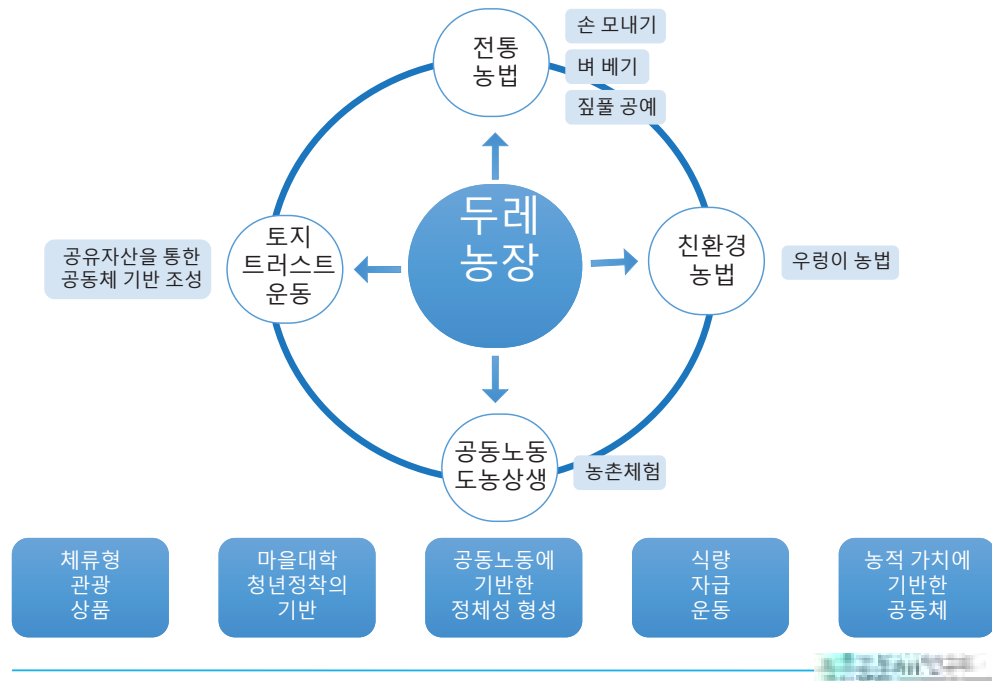
12



13



14



15

두레농장(공유지) 목적

첫째, 농촌마을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둘째, 4도3촌시대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 회복과 여유를 주는 희망의 장소

셋째, 협동이 필요없는 사회에서 협동이 필요한 사회구조 만드는 실험장

넷째, 진정한 상생의 도농관계
'상업농에서 전국민 자급농'으로 변화는 실험적 프로젝트

다섯째,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 유도
공유지 농사를 배우면서 삶을 가꾸는 농촌마을 대학의 내용과 근거지 마련

여섯째, 농사의 참의미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교육농장

일곱째, 공유지확보 운동

16



두레농장

17



공동텃밭

농사의 즐거움

귀촌인들이
사는 재미

두레농장 으로마련된 공유밭 중 200평
귀촌한사람들중 협동이 필요한 사업을 만들자에 동의하는 사람
먹거리나눔 협도조합 조합원중심

18

생산자협동조합 공시미



19

청년마을(주)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운영 (사회적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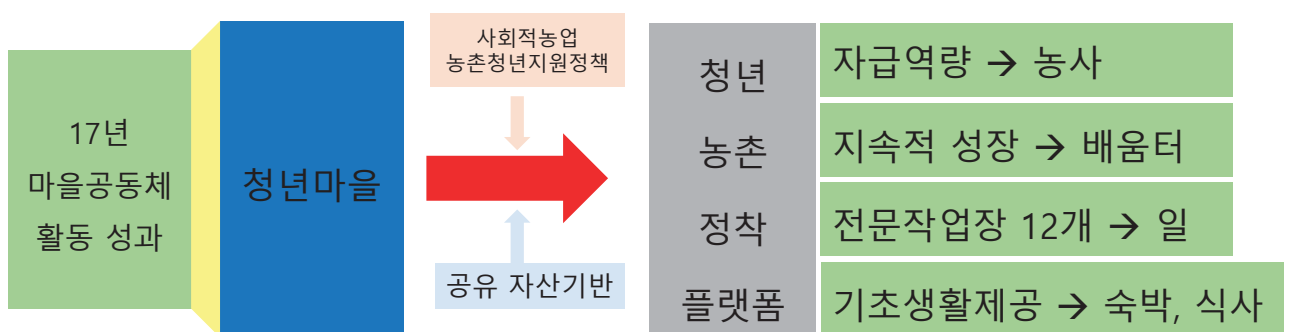
20



청년마을(주) 사명은

초고령화 과소화하여 사멸해가는 농촌에
도시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꿈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하고
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농촌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돕는 일이다.

청년농촌정착플랫폼



청년마을 시설현황



23

청년농촌정착 플랫폼 배경3 사회적 농업

청년마을의 사회적 농업 활동

1. 청년 농부프로그램

- 1) 청년농부 프로그램 - 1회 4시간 주3회 6명
- 2) 바보농장 - 덕산에 정착한 귀촌인의 만족도 증가와 청년멘토
- 3)덕산초 농사체험- 다시 덕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제공

2.청년마을 배움터

3.청년마을 작업장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24

청년농부



25

바보농장



26

덕산초등학교 농사체험



청년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농촌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청년이 배우고픈 내용을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



강의 제목	강좌수
동양고전	24강
영상교실	32강(아동, 청년, 노인)
페미니즘	10강
동물권	5강
일본어는 처음이라	32강
영어수다방	24강
독서토론	24강
수상스키	6강
그림교실	24강
발효교실 (술)	18강
요리교실	32강
친환경 자재	6강
천연염색	6강
서예교실	18강
목공교실	12강
우드카빙	3회
약초교실	6강
배드민턴	6강
아카펠라	12강

작업장 활동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자신의 일이 되도록 작업장(장인, 전문가)을 만나 삶을 배우고 기능을 익혀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창업하여 독립하는 것을 돕는 과정.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문화를 누리며 지원자가 되고, 청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정착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주민주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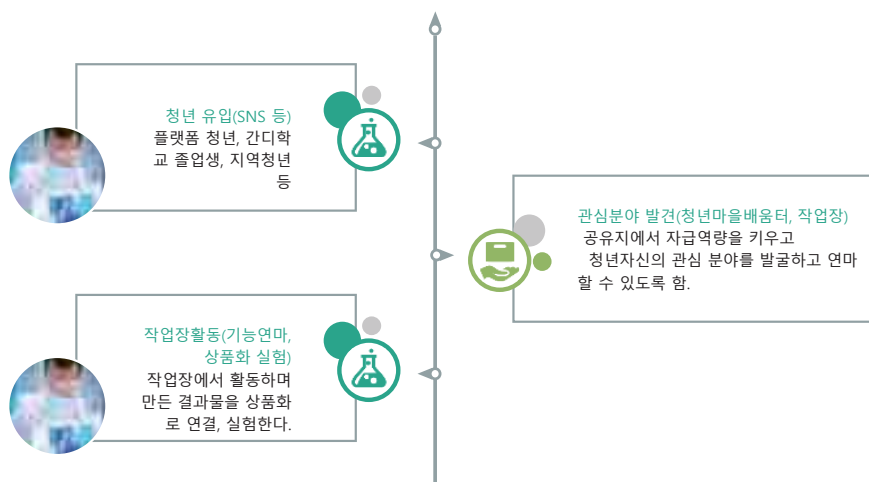
이 활동 전체 과정을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이라한다.

구분	청년마을작업장	작업내용
직영	농사 작업장	영농활동
	덕산미디어센터	유튜브 등
	덕뿌네공방	공방
	오지 갤러리	문화활동
	음식 작업장	
제휴/네트워크	작은집건축학교	5평 집 짓기
	정평건설	나무집 짓기
	누리꿈터	지역 교육
	간디학교	대안 교육
	셀렘공방	향초, 비누
	심심한책방	만화, 그림
	월악산힐링푸드	농산물 가공
	누리마을빵카페	제과제빵, 음식
준비중	에어비엔비 숙박	
	관광두레	농촌관광, 공정여행
	비건식당	완전로컬푸드 식당
	쇼핑몰직거래	도농 교류, 제품 판로 개척
	마을119	마을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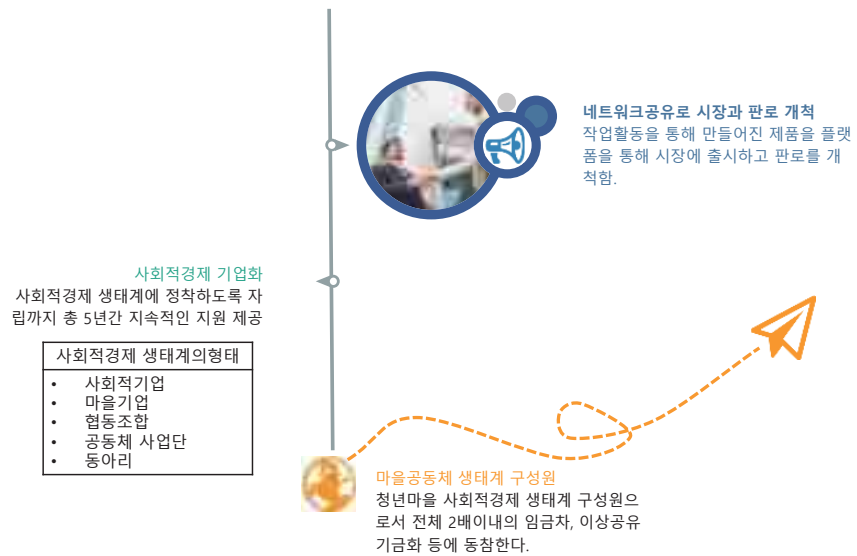


29

사회적 경제생태계 인큐베이팅 과정(작업장)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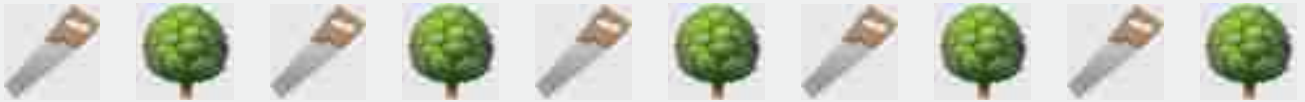
31

청년농촌정착플랫폼 구조



32

농촌에서 (독박이로) 살아보기



프로젝트형 성과 발표 / 사회적경제창업형



2022.04 -2022.10 (6개월)

33

독박이들

팀프로젝트



덕뿌네공방

개인프로젝트(솔구&수영)



시골언니프로젝트

개인프로젝트(짜미&별)



34



나무와 도구를 이용하여 **독딱독딱**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독딱** 끝내는
서툴고 부족해서 **독딱대도** 해내는

- ✓ **이론부터 적용까지** : 농촌 사회적경제 배움 & 실습 📌 사회적기업가육성과정
- ✓ **따로 또 같이** : 청년 개인 적성/희망에 따라 자율성 부여 & 인적/물적 지원
- ✓ **사람과 사람 연결** : 선이주 청년/선배와 멘토-멘티 연결 & 마을/지역 알아가기

35



짜미(최나현)
/ 팀 대표, 기획



별(한별)
/ 기록,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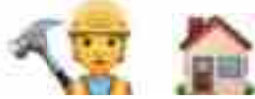
솔구(박솔희)
/ 목공방 운영, 관리



수영(김수영)
/ 회계, 안전

36

덕부네공방



- ✓ **지역 정착 후 목공을 직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두 참가자가 만든 팀
- ✓ 기술(능력), 창업 등 **전문성 향상** 위한 개별 상태 점검 및 디벨롭
- ✓ 보다 '**목공**'에 **집중**된 다양한 활동과 제품 개발 🍷 **수익 창출** 고민
- ✓ 향후 **사회적경제**와 결합하여 **마을 내 창업** 준비(2023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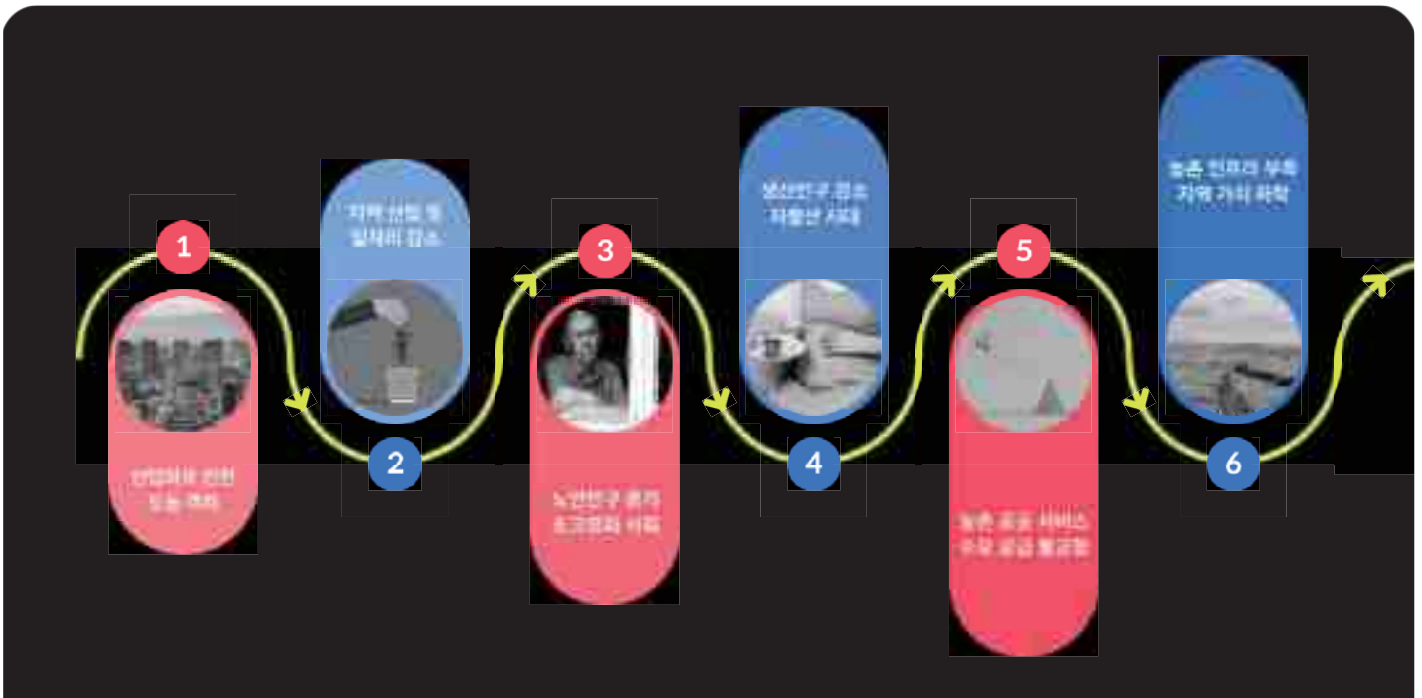


- 지역 특성 담은 자체 제작 목공 제품 **14종** 개발 & SNS 운영
- 외주 의뢰 제작 및 납품 : **총 6회**
- 목공 교육 의뢰 및 워크숍 진행 : **총 9회**

38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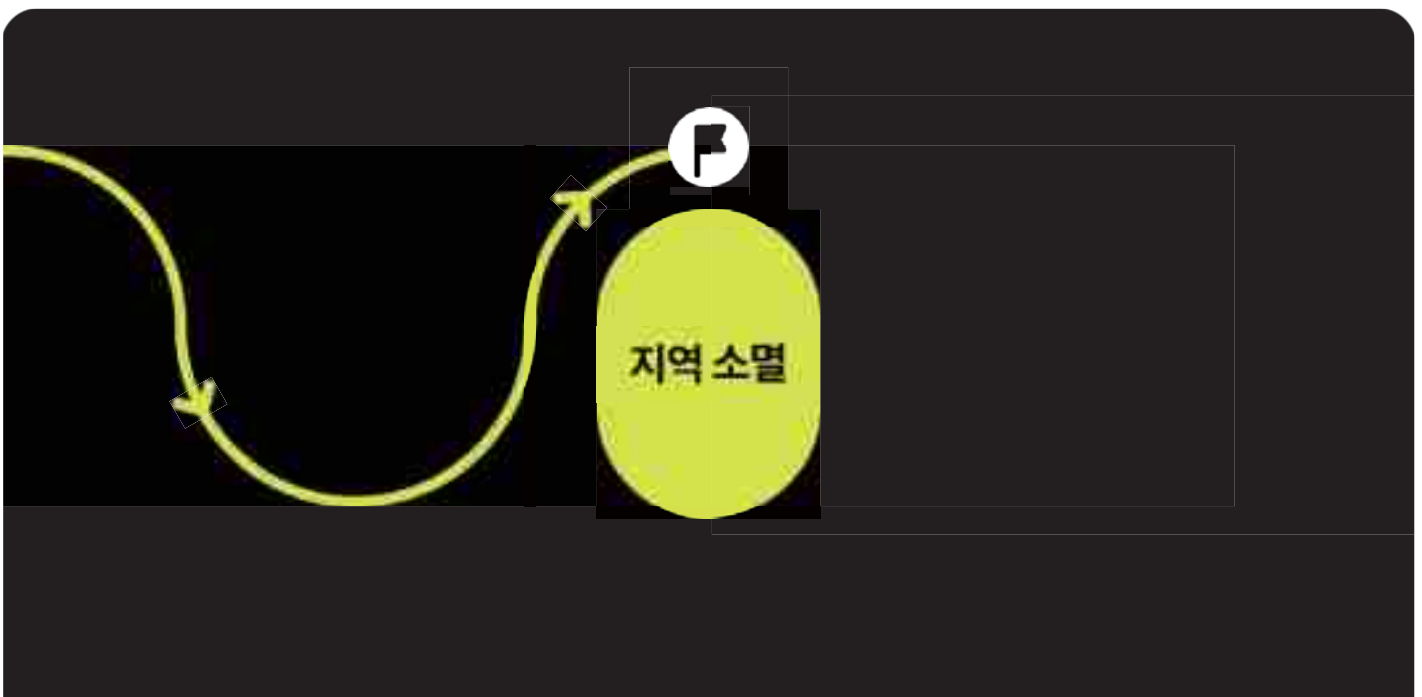
덕후네교육



39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덕후네교육



40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덕뿌네공방

덕뿌네공방 팀원



"주체적인 일을 찾아서"
삶을 디자인하는 여행 기술자

2008년 3월 창립
그레픽 + 웹 디자인 3년차
가정학사 1년차
직업인간학교 2주, 4주
덕뿌네공방 1주, 2주

대표
박윤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생활한 사회를 꿈꾸는 독서

창업자
사회초급 3년차
독서한 창업 2회, 4회
책공작소 3주
덕뿌네공방 1주, 2주

일반
정우영

"종이에서 하는 사회를 상상하자"
소주와 인문학이 함께 할까?

마케팅/기획 이사
소주와 인문학 동아리
책공작소 3주, 4주
덕뿌네공방 1주, 2주
장학 장학 프로그램 기획자 1명

일반
박유미

41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덕뿌네공방

덕뿌네공방과 함께

덕뿌네공방은 다양한 분야의 자매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덕뿌네공방

+

지원협조



덕산누리협동조합

사회복지

지역서비스공동체

덕산방문요양센터

생활기술

작은집건축학교

단지설공방

지주 기획

신활리플러스사업

직업전문학교

42

시골언니프로젝트



- ☀ **시골언니프로젝트**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 교육사업
- ☀ 전국 8개 지역(기관) 참여 : 두 참여자 **직접 기획한 사업 최종 선정&운영**
- ☀ 지역 청년 일/작업을 도시 청년 여성과 연결 📠 농촌에서 **대안적 삶** 고민
- ☀ 5박 6일 농촌캠프 / 총 2회 / 각 15명 (**총 30명, 신청자 70여명**)



43



44

덕산 청년 마을: 시골언니 프로젝트

시골언니와 함께하는 5박 6일 농촌 캠프

농촌은 잘 모르지만 살아보고는 싶어!

- * '밭도시', '밭서울'을 지향하며 새로운 삶의 환경과 가치관을 고민하는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대안공간으로 제시
- * 귀농귀촌, 시골에서의 삶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지역의 정보와 커뮤니티를 연결



- 캠프 2회: 5박 6일 / 15명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일대
- 덕산 지역과 커뮤니티 소개 / 청년 정착 지원 인프라 소개
- 지역 내 청년 농부, 작업자, 활동가와의 연결
- 청년 여성의 감수성과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

- * 유사한 고민을 가진 청년 여성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
- * 농촌에서 다양한 직업, 가치관, 활동, 가족형태 등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 청년과의 만남
- * 지역과 연결고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비밀언니'가 되어주는 덕산 청년 마을



45

주요 프로그램 소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목공 워크숍(목공방)



비건요리워크숍



제빵 워크숍(헝가리)



46

📢 참여자 4명 중 3명 지역살이 연장 결정! 📢

- 내년(2023년)에는 지역 완전 정착 위한 **구체적 준비** 단계 진행 예정
- 이외 구성원 또한, **주요 관계인구**로 남아 도시와 덕산을 연결 짓는 프로젝트 지속적 고민/참여 예정
-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통해 **참여 청년 과반 이상** "지역살이 연장 통해 지역 정착 고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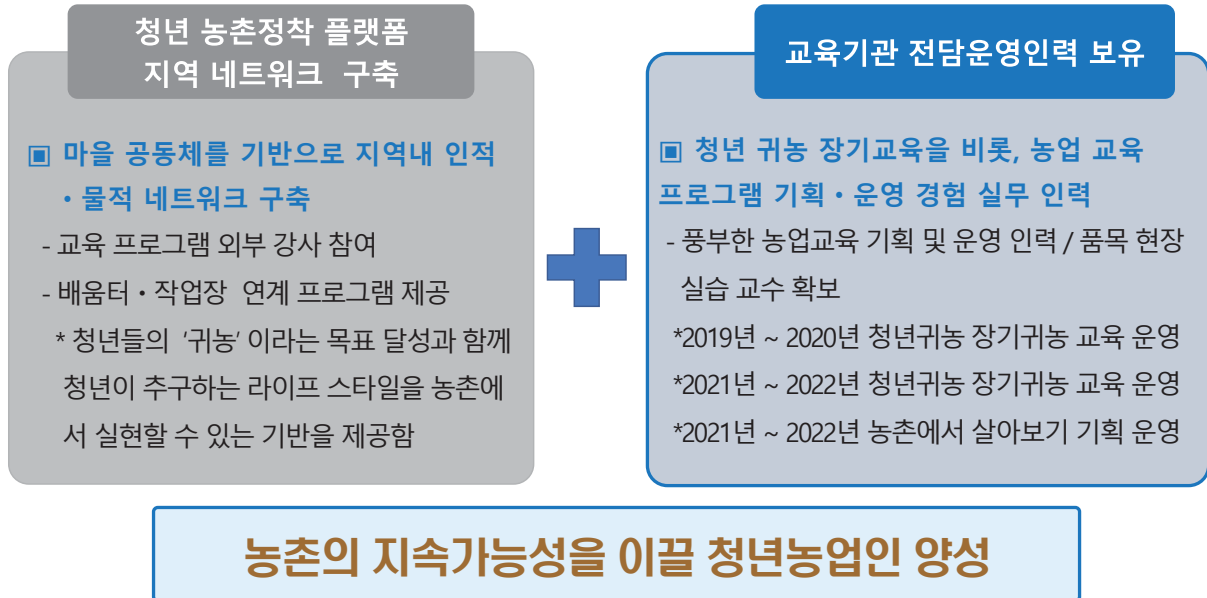
- ✅ **덕뿌네공방** : 사회적경제창업캠프 🏠 사회적기업가 육성 과정 통해 **창업 준비**
- ✅ **멘티에서 멘토로** : 인적 네트워크와 안전한 관계가 되어주는 **멘토로** 발전
- ✅ **도시와 로컬 연결** : 마을 내 청년 그룹과 도시 청년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참여

47

유입프로그램4

청년장기귀농학교

48



49

청년마을 사회적농업 5년의 성과와 과제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간 대안 마을공동체 활동기반으로 새로운 청년 생태계 태동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시공간적으로 입체적 지원 플랫폼 활동 시동 공유지를 비롯한 청년정책 플랫폼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인적 네트워크기반 조성 청년농촌정책 플랫폼 현재 청년 8명 활동 중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 구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수입 방안 - 농장운영, 플랫폼기업 수익기부, 회비 * 공익적 활동 - 공적자금 공유자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공간 - 커뮤니티 공간, 공유 숙소 * 농지 확보 * 공유기금 사회적농업 경험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주역으로 성장하기(서비스 공동체) 청년 농촌생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마을 속에 뿌리 내리기

50

30일 - 2일차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전문가 강의

최대희 (이랑협동조합)

사례발표

고제헌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패널토론

방대진 (희망그린마을)

문영상 (큰나무캠프)

발달장애인과 사회적농업

최대희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키울협동조합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2019년)

식물을 키우듯
아이들도 키우고
우리들의 꿈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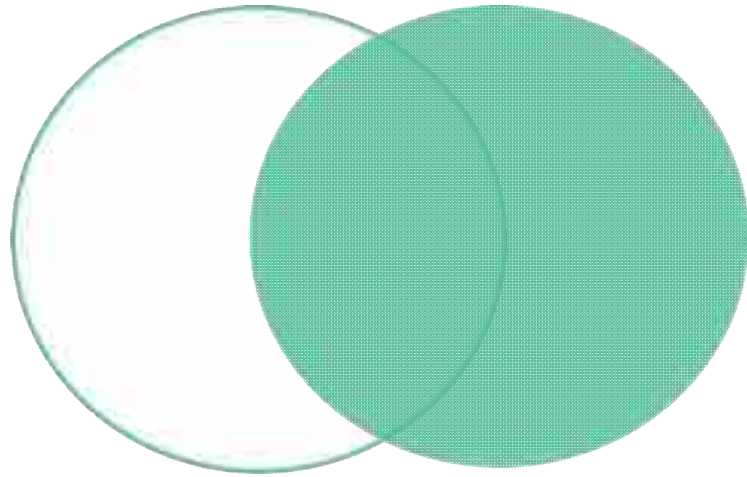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사업의 성공은

사업주와, 소비자의 교집합이 중요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은 올라간다.



사업주

소비자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주로 지적장애인과 지체성장애를 일컫지만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확대하여 보는 게 맞음

사전적 의미



그들이 필요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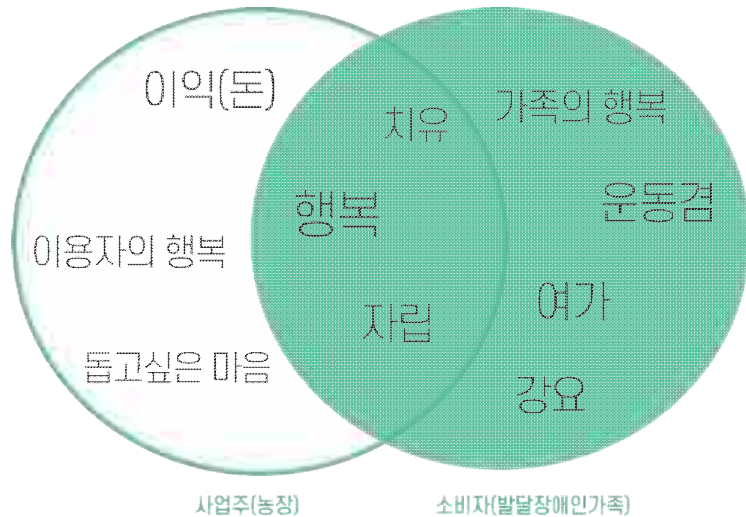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사업의 성공은

사업주와, 소비자의 교집합이 중요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은 올라간다.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키움의 목표

누구나 그렇게 사는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연한 것이

욕심처럼 보이는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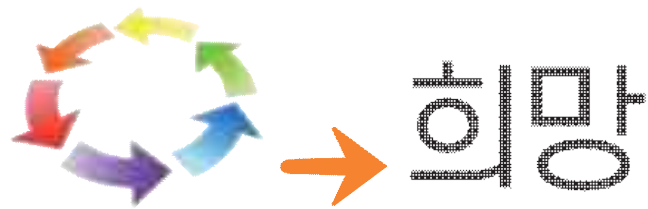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내 아이의 장애를 맞이하다.

첫번째 부모

충격-분노-타협-우울-수용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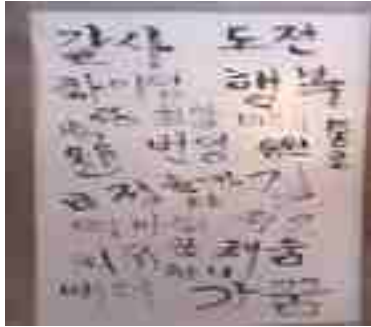
첫번째 부모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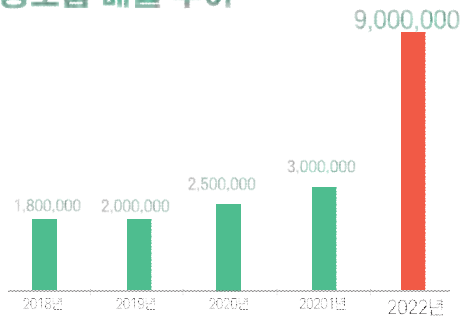
희망이라는 원동력

느리지만, 한걸음씩
희망이라는 힘



키움협동조합 매출 추이

(단위: 원)



여주즙, 고구마, 엑기스 4종 (수세미, 매실, 개복숭아, 아로니아),
건조대추, 건조 여주, 은행, 아로니아가루, 아로니아비누,
만차량 단호박, 가지,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땅콩 등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키움의 사회적농업

당신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린 준비하고 있어요.

두번째 장애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우린 준비하고 있어요.

두번째 장애

비록, 서툴어도 분명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우린 준비하고 있어요.

두번째 장애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나도 있습니다.

세번째 형제자매

가장 든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차선인 존재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나도 있습니다.

세번째 형제자매

형제들의 마음 어루만지기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키울의 사회적농업

나도 있습니다.

세번째 형제자매

사랑하는 그 마음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우리는 '함께'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모두가 이제는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울협동조합

농사 선생님,
우리의 이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15

감사합니다.

이랑협동조합, 키움협동조합 최대희

완주군 사회적농장 키움협동조합

우리가 키울

-키울협동조합 최대희

♫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강산에의 노래가 차 안 가득 울려 퍼지면 비로소 토요일의 그날이 시작된다. 어제
도 이 차를 몰고 센터에 갔고 오늘도 같은 곳에 갈 예정이지만, 목적이 다르다. 나
는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이하 이랑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자 심리운동치료
사이지만, 토요일은 사회적 농업의 조합원으로서 센터를 찾는다. 센터의 뒤편에는
하우스와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2주에 한 번씩 사회적 농업이 이루어진
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로 구성된 ‘키울협동조합’은 2018년에 완주사회적경
제네트워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선정)의 시범사업 격으로
첫 발걸음을 떼었다. 이후 2020년 아이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고 더불어 우리들의
꿈을 키우는 의미를 담아 ‘키울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현재까지 무
력무력 성장 중이다. 오늘 나는 이곳에 ‘우리의 뿌리내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018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설명회가 있었다. 그 이름도 생소한 '사회적
농업'이라는 주제였고 그 자리엔 다양한 취약계층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
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줄곧 '이 아이들의 20살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던 나는 이 자리에서 기회와 숙제를 얻었다.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
센터가 성장기 아이들의 치료를 넘어 성인 장애인의 ‘일과 삶’을 함께 고민하고 지
원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우리는 주말마다 비봉면의 농장으로 모여 제철 채소들을 키워냈다. 수확량은 중요
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가 모여 서툰 시작을 하는 과정들이 더 큰
의미였다. 어떤 부모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
의 도전 과제였고 또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농업활동
에 참여하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되었다. 평일동안 농장을 관리해주시는 비봉면 평치
두레농장 어르신들의 수고 덕에 우리는 많은 노동을 들이지 않고도 농장 활동을 별
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았음에도 간간히 나온 수확물은 완
주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되었고 수익금은 아이들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누군가는 '고작'이라고 비웃을 수익금이었지만 우리에게선 액면가를 넘어 엄청난 자
신감으로 마음에 고스란히 저축되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동안 완주사회적경제네
트워크의 보살핌 속에서 그저 제공된 것들을 누리며 사회적 농업을 지속해왔다. 그
런 편안함에 기댄 막연한 희망이었을까? 걱정도, 겁도 없이 시도하였던 ‘2020년 키

울의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독립 1년차, 우리에게도 큰 위기가 왔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공포와 함께 왔던 그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왔던 결과였다. 키울협동조합의 주도는 제3자인 내가 아닌, 키울협동조합의 당사자들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어머님들에게 임원과 사무장의 역할을 맡겨 독립적으로 운영해보도록 권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결국 3개월 만에 탈이 나고 말았고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물론, 결과적으로 키울은 독립적으로 운영 되는 게 맞지만 적어도 2020년 이때는 준비되지 못한 너무 이른 도전이었다. 장밋빛으로 그려졌던 키울의 미래가 거품처럼 헛된 꿈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큰 위기였다. 그렇게 키울의 존폐 향방은 말 그대로 풍전속의 등불 같았고 그때 우리가 생각한 묘수가 3개월 단기대표제였다.

키울이 짊어질 큰 짐을 몇몇의 임원이 아닌 전체로 분산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두 번째는 모두가 키울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단기대표는 어느덧 8대 대표까지 오게 되었는데 짧은 3개월의 대표 자리지만 대표로써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과 키울의 일을 결정을 하는 경험은 그것으로도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매섭게 흔들렸던 키울은 단기대표제를 거친 키울 주인이 하나 둘씩 늘어감에 따라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대표 자리의 어려움을 이해한 부모님들은 서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키울의 모든 일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주어진 대로, 하는 대로 따르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키울의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2년에 시작한 키울의 코인 제도이다. 키울은 한 해 아빠모임/엄마모임을 각각 진행한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아빠모임자리에서 어느 아버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다. "내 아이가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개념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이다.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아이는 자연스레 배우는 사회적 약속들을 일상생활 내에서 반복 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다. 마트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과자를 마음대로 집어먹는 아이에게 키울에서 코인으로 그 개념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다. 이 제안에 따라 진행된 키울의 코인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상이자 키울만의 화폐가 되었다. 아이들은 출석할 때 코인 하나를 받고, 농장 활동을 마치고 또 하나를 받는다. 차곡히 모은 코인은 키울 하우스 내에 마련된 음료 냉장고와 과자 부스에서 원하는 간식을 구입하여 먹거나 점심시간에는 밥도 사먹는다. 첫 시작은 단순한 달란트 시장 같았지만, 코인 하나로 인해 불과 1년 만에 아이들은 키울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배웠다. '노력에 따라 코인을 얻고 코인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화폐 이용 방법을 배운 것이다. 나는 잘 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이다. 하지만 어느 아버

님의 의견 하나가 2022년 키울 사회적 농장 활동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바꾼 것이다. 진짜 교육은 시간을 내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나는 가정의 정서적 치유만을 생각했지만, 키울의 주인인 아버님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다시금 돌아보니 2022년 키울의 한 해는 마치 초록 나뭇잎으로 온 세상이 짙게 차는 여름과도 같았다. 상추부터 파, 호박, 여주, 수세미, 매실, 시금치, 고구마, 감자, 배추까지 계절마다 농작물을 부지런히 심고 거두어 들였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호박 400개를 지역 공동체에 납품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세미는 천연수세미로 만들거나 여주와 함께 즙이나 청으로 만들어 사회적 농업 한마당에서 판매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수확한 농작물은 박스에 담아 ‘생산자 란’에 아이들의 이름을 써서 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일도 있었다. 한 해의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키울은 가족캠프를 떠난다. 사회적 농업이 단순한 농업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4회차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캠프만큼은 가족들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고 싶어 늘 이랑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였지만 이번에는 진행 방법을 바꿔보았다. 사전 회의를 가족들과 모여 장소의 선정, 답사부터 함께 하였다. 어머님들은 캠프에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장을 봤고, 아버님들은 캠프 당일 인형 탈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주셨다. 그 외의 모든 순간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챙기는 모습을 나는 마주하였다. 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일을 나누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키울 가족캠프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많은 것들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힘에 가슴 벅참이 느껴졌다. 난생 처음해보는 농업 활동을 하며 텃밭에서 구르고 보고 만지며 아이들이 자란만큼 부모들도 자랐고 더불어 키울이 성장하였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2022년의 키울, 난 지금의 키울이 무척 대견하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확물이 늘어서 대견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큰 보상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수확물이 아닌 과정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을 무서워하며 1시간 내내 소리를 지르고 울던 아이는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부 반응 없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 늘 성인의 손을 잡고 걸어야 했던 아이는 2kg나 되는 호박을 들고 밭에서 창고까지 옮기는 활동에 거뜬히 참여한다. 아이의 손을 쉽게 놓지 못하던 부모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엄마나 아빠가 프로그램 준비로 바쁘면 아이는 주변의 다른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자연스레 챙긴다. 주어진 일정에 따르는 것에 익숙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야 손을 걸어 부치던 부모님의 모습 또한 변했다. 누가 이렇

게 하라고 임무를 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해야 할 몫을 찾게 되었다. 그 덕에 호박 수확하기, 튼튼 심기, 김장하기, 사회적 농업 한마당 등 그 어떤 프로그램이어도 우리는 서툴지 않는다. 내가 길 가운데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굳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사회적 농업 한마당이 진행된 자리에 참여했던 누군가가 키울협동조합 부스를 보고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키울 어머니, 아버지들의 표정이 너무 좋네요. 행사도 잘 즐기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막힘없이 역할을 다하는 것도 모자라 정리까지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엄마, 아빠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키울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일까요? 키울 부스를 보고 있자니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구 샘솟네요." 라고 말이다. 나는 키울의 성장이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내게만 보이는 건 줄만 알았다.

혹자는 내게 “아이들 치료만 잘 하면 되지, 왜 일부러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회적 농업을 하는거냐”라는 쓴 소리 섞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눈에는 나의 걸음들이 부질없어 보일 수도 있지 싶다. 세상은 언제나 이윤을 남기는 것에 가치를 더 크게 두니까 말이다. 타인의 쓴 소리를 들을 때면 더욱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손꼽으며 마음을 다잡지만, 사실 나는 이 일을 지속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맞다. 유아특수교육 전공자에게 가장 평탄한 길은 임용을 통한 교직생활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그 평탄함에서 한참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 주위의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치료실을 시작한 것과 이랑센터를 토대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키울협동조합의 일들은 종종 막막한 숙제를 남기기도 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간혹 내가 신중치 못하게 내 신념에 강한 기대를 걸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농업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피곤하나 마음은 활기가 가득차서 다음 활동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즐거워지는 내 모습을 볼 때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토요일이면 나는 또 차에 올라타 강산에의 노래를 틀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의식이니까. 그렇게 이 노래를 들으며 ‘너는 잘하고 있다. 하면 된다. 지금 이순간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감사한 순간이다.’라는 주문을 넣는다. 지금의 나의 걸음, 키울의 걸음들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차곡히 모인 걸음들이 키울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이며, 이곳이 아이들의 미래이자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안식처이며 희망터가 될 것이다. 부디 나는 키울 가족들과 함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의 성공 사례를 남길 것이며 그리하여 이들과 함께 웃을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담은 키울협동조합은, 남들 눈에 확연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깊은 뿌리를 뻗어 내며 튼튼히 성장 중이다.

발달장애와 사회적 농업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사례 나눔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고제현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소개

- 2006년 3월 1일 강화교육지원청 내에 설치 (지역마다 실정이 다름)
- 유 . 초 .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상담 지원
- 유 . 초 .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언어치료지원 (내방, 순회)
- 참좋은카드 (치료지원 카드)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 통학비 지원, 간접지원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연수

※ 강화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 직업교육 지원은 고등학교도 실시



2022년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교육 & 사회적 농장 연계 활동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 학교	학생수	교사수	지원인력
농업회사법인 (주) 공채알	첫발농업	초등 1교, 중학 1교, 고교 통합 1교	7명	4명	2~3 명
큰나무 캠프힐	현관농업	초등 1교, 중학 1교, 고교 1교	13명	5명	2명
국외리 마을 영농조합 법인 팜랜드	치유농업	중학 2교, 고교 1교	20명	8명	1~2명

- 큰나무 캠프힐은 오전에 프로그램 실시 후 점심 제공
- 팜랜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교육 예산으로 강사비 지원 (1학기만 실시)

01 큰나무 캠프힐 사회적 농장 활동

- ☑ 매주 금요일 10:00 ~ 13:00 (점심 제공)
- ☑ 참여 학교 (인원) : 강남중 (4명+2명), 강남영상미디어고 (1학기, 3명+2명)
화도초 (2학기, 3명 +1명)

순서	날짜	1학기 활동내용
1	5월 13일 (금)	매일밭 정리, 매일씨 뿌리기
2	5월 20일 (금)	땅콩, 토마토 모종 심기, 쿠라미야 심기
3	5월 27일 (금)	고구마 심기, 트레이 모종 묘트 옮기기
4	6월 3일 (금)	순채 구근, 다알리아 심기, 물레누 한화기, 동녀 장류 안착
5	6월 10일 (금)	뒤베 나르기, 외단 풀 보종하기, 채소작업
6	6월 17일 (금)	경관 풀 나르기, 꽃밭 만들기
7	6월 24일 (금)	만석 시아의 채소 작업
8	7월 1일 (금)	채소 작업, 하스타 심육하기, 물주기
9	7월 8일 (금)	꽃밭포 씨앗 파종, 꽃 이종도-만화기, 새우기
10	7월 15일 (금)	꽃밭 전체 채소, 파종 정소, 묘이 주기, 퇴광 재배기

01 키나무 캠프힐 사회적 농장 활동

순서	날짜	2학기 활동내용
1	10월 7일 (금)	꽃다발로 리스 만들기
2	10월 14일 (금)	황금달맞이꽃 뿌리 나누기
3	10월 21일 (금)	차집이름 꽃밭에 의미주기, 이성의 심기
4	10월 28일 (금)	십목하기, 작약심기
5	11월 11일 (금)	하우스 내 화단 만들기 체험
6	11월 18일 (금)	하우스내 화단에 배치하기
7	11월 25일 (금)	통령 구근 심기
8	12월 9일 (금)	뽕나무 만들기



02 콩세알 (달팽이 농장) 사회적 농장 활동

☑ 매주 목요일 09:30 ~ 11:30

☑ 참여 학교 (인원) : 양도초 (3명+1명), 강서중 (2명+2명), 교동중고 (2명+1명)

순서	날짜	1학기 활동내용
1	4월 7일 (목)	오리엔티어션, 흙놀이 만들기
2	4월 14일 (목)	흙 심지하기, 흙에 콩과 유기를 넣기
3	4월 21일 (목)	모종 심기 (섶재), 꽃밭 제작
4	5월 12일 (목)	모종 심기 (양파), 천연경 약 주기
5	5월 19일 (목)	고구마 심기
6	5월 26일 (목)	진짜농이활동 : 청소년 미치 달스, 텃밭 작물 관리
7	6월 2일 (목)	꽃 묘목 심기, 텃밭 관리
8	6월 9일 (목)	콩 심기, 순 정리 (수박, 오이, 가지)
9	6월 16일 (목)	텃밭 관리, 방울토마토 수확 체험
10	6월 23일 (목)	결자 수확, 고추 알라드 만들기
11	6월 30일 (목)	오목무늬 만들기, 당근 수확

02 콩세알 (달팽이 농장) 사회적 농장 활동

순서	날짜	2학기 활동내용
1	9월 1일 (목)	모라엔터테인먼트, 가을 작품 모종-심기
2	9월 8일 (목)	허브 심기, 물 주기
3	9월 15일 (목)	고추하순 다듬기
4	9월 22일 (목)	허브오일 만들기
5	10월 6일 (목)	완근 만들기
6	10월 13일 (목)	고구마 수확
7	10월 27일 (목)	대브허브, 아브슈트 관촬기
8	11월 3일 (목)	배추, 무 수확하기
9	11월 10일 (목)	허브 샐러드 만들기
10	11월 24일 (목)	포만세리아 완분 만들기, 고구마 구워 먹기



02 콩세알 (달팽이 농장) 사회적 농장 활동



03 국화리 팜랜드 사회적 농장 활동

☑ 매주 화요일 14:00 ~ 16:00

☑ 참여 학교 (인원) : 강화중 (8명+3명), 강화여중 (5명+2명), 강화고 (7명+3명)

순서	날짜	1학기 활동내용
1	3월 29일 (수)	자신만의 꽃 모자 (치유농부) 만들기
2	4월 5일 (화)	마늘표 꾸미기, 감자 심기
3	4월 12일 (수)	마늘표 꾸미기, 완두 심기
4	4월 26일 (수)	감자에 물주기, 쌀 정리하기
5	5월 3일 (화)	땃밭 모듬형기 - 병채소, 파프리카, 병울토마토
6	5월 10일 (수)	땃밭 정돈 완성하기, 땃밭 관리하기
7	5월 17일 (수)	요리 활동 - 파나리언 만들기
8	5월 24일 (수)	땃밭 관리하기, 향기정원 꾸미기
9	6월 7일 (화)	땃밭 관리하기, 식물 지지대 만들기
10	6월 14일 (수)	땃밭 관리하기, 땃밭앨러드 만들기, 푸드 데코하기
11	6월 21일 (수)	수수 선가지 격렬하기, 팔방수 만들기

03 국화리 팜랜드 사회적 농장 활동

순서	날짜	1학기 활동내용
12	6월 28일 (수)	수수 털기, 수수 선가지 놀이하기
13	7월 5일 (화)	감자 포장하기
14	7월 12일 (수)	예뻐만드 예쁘드 만들기



03 국화리 팜랜드 사회적 농장 활동

순서	날짜	2학기 활동내용
1	8월 30일 (토)	요리합동 - 김치를 먹으며
2	9월 6일 (화)	두둑 만들기, 맛보agri
3	9월 13일 (토)	순무 파종하기, 텃밭 채소 심기
4	9월 20일 (토)	딸기 모종 정식하기
5	10월 4일 (토)	순무청 양파씨 만들기
6	10월 11일 (화)	수수 수확하기, 건조하기
7	10월 18일 (화)	고구마 캐기, 호박, 박베
8	10월 25일 (화)	수수 할기, 캐일, 배추 건조하기
9	11월 1일 (토)	수수차 만들기
10	11월 8일 (토)	나에게 주는 선물 액자 만들기 1
11	11월 15일 (토)	나에게 주는 선물 액자 만들기 2
12	11월 22일 (토)	순무 수확하기, 순무 김치 담그기
13	11월 29일 (토)	원장 구워 먹기
14	12월 6일 (토)	팜파티

2022년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 농장 연계 활동

기관명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참여인원	지원인력
농업회사법인 (주) 경세일	토도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족 데이)	우리콩으로 두부 만들기	34명	4~5명
큰나무 캠프장		양봉체험 봉 세개 채집, 벌꿀 채집, 꿀버누 만들기	30명	
국화리 마을 영농조합법인		가마솥 떡볶, 수박외채 만들어 먹기	24명	

- 진강산 마을 협동 조합에서 운영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진강산 가족농장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으나 관내 학교에 홍보하여 참여 유도

사회적농장 연계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 1학기 운영 평가회

- 7월 21일 (목)
- 특수교육지원센터, 공세알, 팜랜드
강남중학교 (큰나무 참가 학교 대표)
- 1학기 활동 내용 공유
- 1학기 활동 만족도조사 결과 공유
- 2학기 운영 내용 협의



2023년 사회적농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회

- 12월 11일 (월)
- 특수교육지원센터, 공세알, 큰나무, 팜랜드,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밝은마을
- 2023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
- 각 기관의 활동 내용 취합,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취합, 각 기관 성격에 맞게 학생 배치 및 지원인력 배치, 각 기관에서 활동

그 밖에

•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 순무마켓 '

- 공세알, 강화 밝은마을 생산품 판매
- 판매 수익 기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2곳에 기부



그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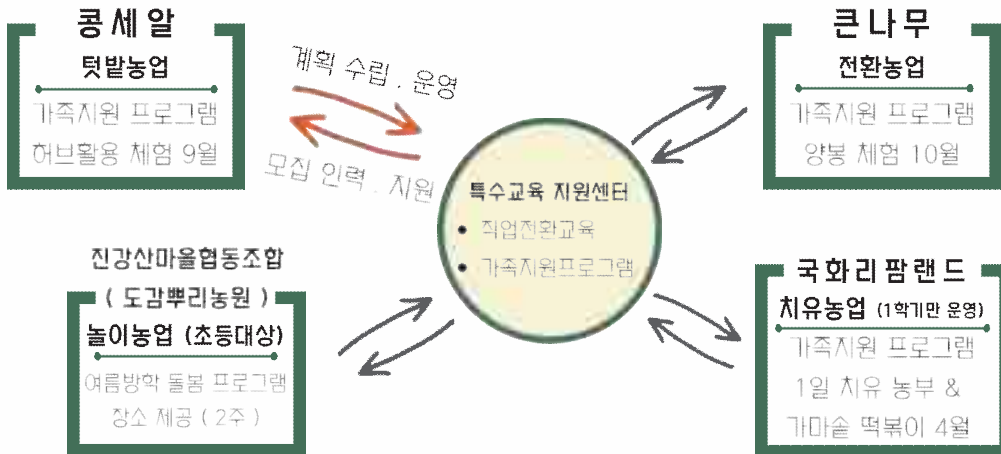
- '사회적농업 (발달장애 편) 가이드북 발달장애인과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적 농장' 및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농장생활' 리플렛 발행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2명 참여
- 강화밖은마을 (지역서비스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중 영화 모임, 음악 모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소 대여
- 강화밖은마을 (지역서비스 공동체) 문화제 '흑염소 없는 개, 보러 가요'에 특수교육팀 장학사 참석

함께 나눌 성과 !

-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농촌 지역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전환교육 제공
-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농장 협의체 구성
- ☑ 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마련
- ☑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시작, 직업전환교육으로 확장
통합교육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기대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직업, 성인 생활 영역까지 관심 영역 확장

2023 운영 계획

- 3월 : 사전협의회 실시
- 7월 : 1학기 평가, 2학기 운영 관련 협의
- 12월 : 2학기 평가, 2024년 운영 관련 협의
- 운영기관, 센터 담당자, 지원인력 간 상시 협의 (SNS 활용)



함께 나눌 Tip !

-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규정에 따른 용어
: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후 선정 배치
: 장애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 가능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 규정에 따른 용어
- **발달장애**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규정에 따른 용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함께 나눌 Tip !

-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전국)

구분	학교수	2022년 현황
국립	5	특수학교 배치 : 27.2 % 일반학교 배치 : 72.8 %
공립	97	
사립	90	
계	192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센터수	12	6	5	6	3	5	3	1	27	18	11	15	15	23	21

국립특수교육원 : <https://www.nise.go.kr/main.do?s=nise>

궁금한 거 있나요 ?

희망그린마을 소개

주말 농장 밭고랑에 서 있던 형이 감자꽃을 딴다
철문 형, 꽃 아쁘는데 왜 따우
내 묻는 말에
이놈아 사람이나 감자나 너무 오래 꽃을 피우면
알이 튼실하지 않은 법이여
꽃에 신경 쓰느라 감자알이 굵어지지 않는단 말이다
평소에 사형으로 모시는 형의 말씀을 따라 나도 감자꽃을 딴다

1

희망그린마을 소개

안녕하세요! (주)희망그린마을입니다.

본문 3.1항(결과)에서 3.2항(결론)까지의 서술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0년 4월 28일(수)에는 최종별 차게서로 인접한 2020년 4월 28일(수)에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법령

해당근이냐하면 요구하는 목적이 아닌 일회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 지는
목적을 가진것이므로 잘못하다보면 실제 타인을 저속적으로 만들어
나쁜 일 만 냅니다.

임보호는 임보호재단과 그 계열의 장학금, 기부금으로 44억여 원의 재산과
임보호는 재원으로 다양한 장학금과 기부금, 재산상 이익을 44억여 원의 재산과
임보호는 재원으로 다양한 장학금과 기부금, 재산상 이익을 44억여 원의 재산과

2018. 12. 20. 14:00



2

희망그린마을 활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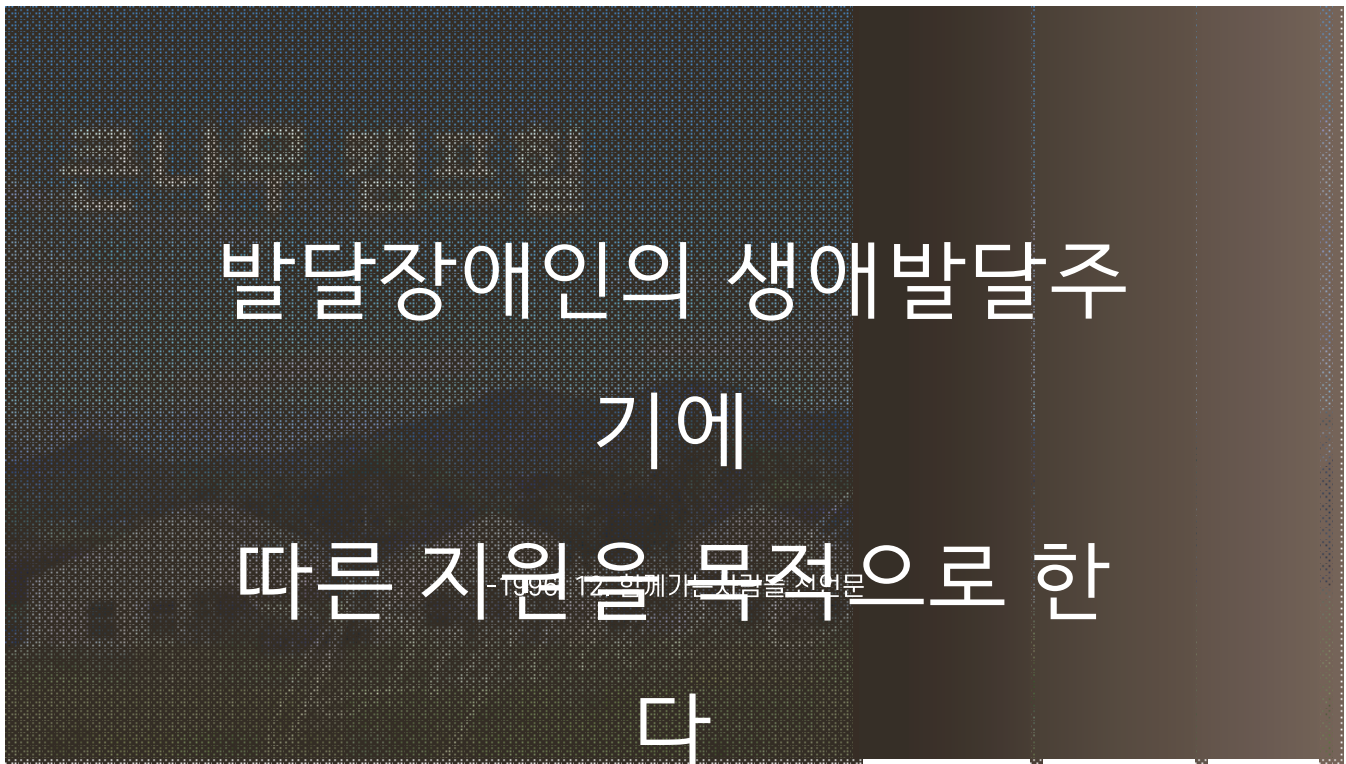
사업 내용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발달장애청소년)	당일 체험	월 1회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프로그램 (다함께돌봄센터)	당일 체험	월 1회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10~15명	산회생활을 경험
3. 주말 프로그램 (청암학교 전공과)	월 4회	1년(36주)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5~7명	인턴 과정 준비 기 간
4. 인턴 프로그램 (귀농발달장애인 가족)	1년 단위	8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 을 목표

4

시설 현황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장	비닐하우스 4개동 1,200㎡(임대) 오미자 밭 3,00㎡(시유지) 고추장농장 960㎡(임대) 교육용 텃밭 840㎡(소유)	옆의 시설들을 이용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농산물 선정, 개개의 특성에 맞는 농업 환경 제공	기후 영향을 덜받는 비닐 하우스 및 다양한 조건별 농작물 수확
교육장	1개동(법인소유)	지역네트워크 공동사용	
체험장	3개동(원룸 형태)	참가자 및 참여희망가족	지원주택으로 개보수 필요
숙발시설	1개소(공동사용)		



지나온 길

1996

12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2003

3월
큰나무 대안방과후 학교 설립

2006

2월
강화 도장리 부지매입

2013

2월
강화 도장리 부지 매입

2017

3월
대안학교 종료
강화캠프힐 시작11월
하우스 건축 완공
하우스 입주

2020

7월
카페,제빵실 건축 완공11월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선정

조직



01 학령기 전

특수교육센터



자발적 운영모임

02 학령기

대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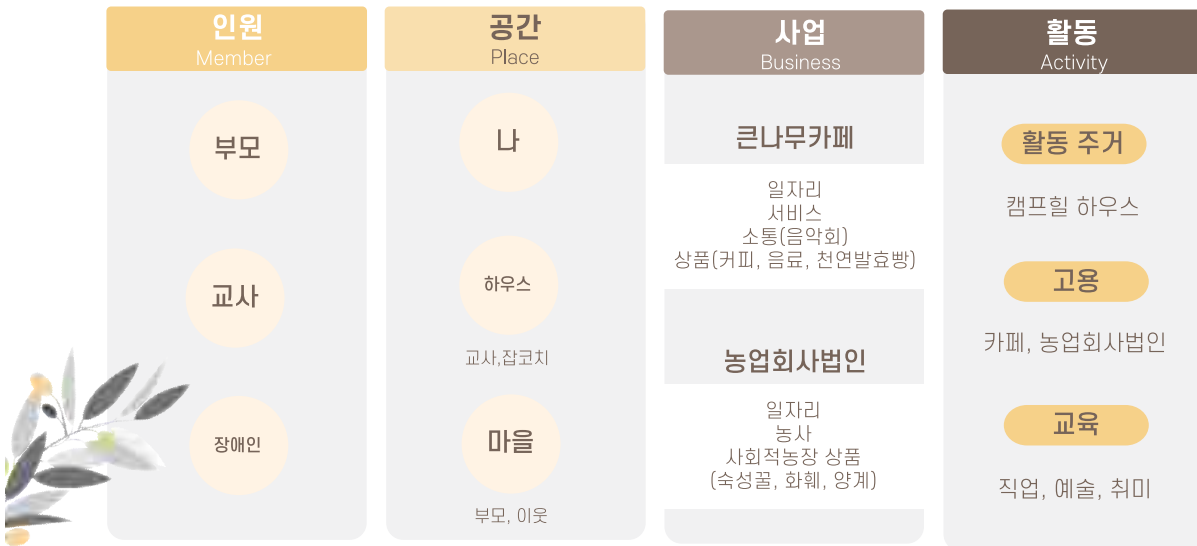
교육협동조합

03 학령기 후

성인캠프힐

비영리 민간단체
카페사업
농업회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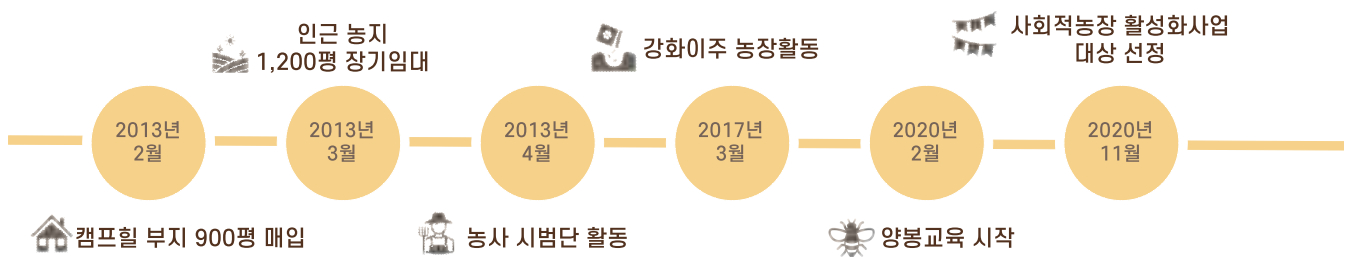
구성



“
큰나무는
울타리가 없어요
”



발달장애인의
정착을 목적으로
시작



농장 규모



성인기에 다다른 발달장애인이 농촌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함



장애청년 농업전환교육



장애가족 협동농장



귀농귀촌 양봉교육



30 명의 장애학생과 청년이 참여



여섯 가정이 강화에 정착



25 명의 양봉회원이 2년차 교육



2 명을 추가 고용

09

연계기관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

강화특수교육
지원센터

01

도감뿌리농장

02

미탄의
꽃밭농장

03

강화교육지원청

04

진강산공동체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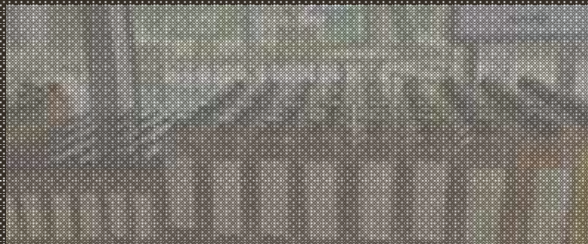
국자와 주걱
책방

06

주요상품

한 번 해보고 끝나는 체험학습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사의 수익모델을 찾고 있음

주력상품 · 숙성꿀
· 양봉체험, 계란



판매방식

- 진성회원(band 398명)
- 스마트스토어, 직거래, 카페판매

과제

1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2

지역사회와의
튼튼한 연계

3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30일 - 2일차

아동·청소년과 사회적농업

전문가 강의

조미형 (함께하는 연구협동조합)

사례발표

강부경 (다운영농조합법인)

패널토론

김윤희 (에코마실)

정수연 (해남야호)

최선희 (땡큐베리팜)



[아동과 사회적농업]

2023.03.30.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조미형

사회적 농업 기본교육 <아동과 사회적
농업>



강의 내용

-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 4대 원칙
- 2) 아동복지지원 대상: **불리한 처지에 있는(disadvantaged)**
아동
- 3) 아동에게 사회적 농장의 역할: **사회적 관계**가 있는 장소

모든 국가의 아동복지법의 모법이 되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법률	용어	연령
민법	미성년	20세 미만
형법	미성년	14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모부자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

(1)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아동이 주눅 들고, 활동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 장애아동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 시청각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하는 활동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만나고 있는 아동 개개인을 떠올려 보면서,
 평상시 하는 말 속에서 **차별적인 언어**는 없었는지,
아동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불쑥 던진 말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보면 좋겠습니다.

(2)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아동과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상생활 곳곳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어른 위주의 공간이 많다. 예를 들어,
 - 어른들에게 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아이들의 높이에 맞는 변기와 세면대가 필요하다.
 - 공원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설치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없다.
 - 인도가 없는 길은 차를 주로 이용하는 어른과 달리, 걸어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편하다.

(3)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대부분 어른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아동이 참여하는 '수동적' 참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 부모나 보호자, 교사 등 어른의 의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기획된다.
 - 겉으로 보기엔 아이들의 요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교육 vs 놀이 → 배움이 있는 놀이
 - 건강한 식단 vs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 → 건강한 식단의 필요성을 아동 스스로 인지하도록



어른의 전문성 & 아동의 선택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동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다르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전문성이 요구된다.



(4)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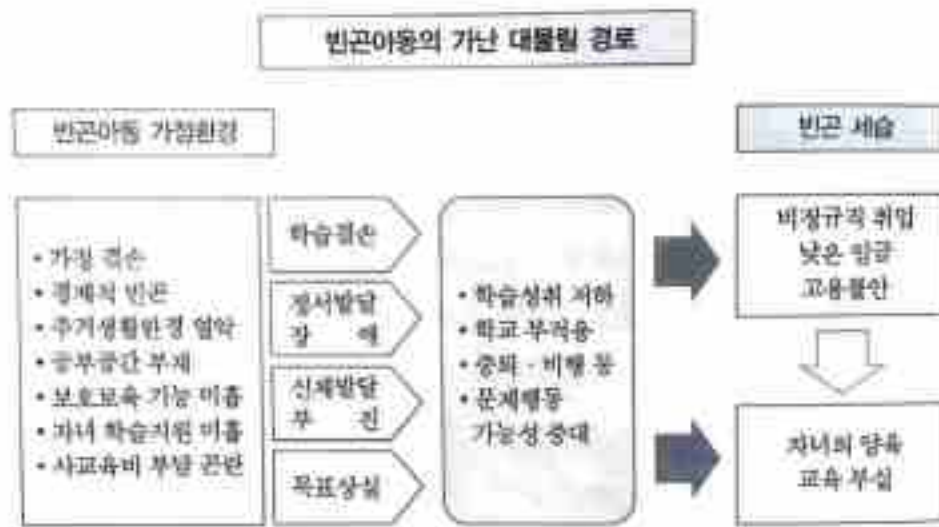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돌봄,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아동 발달단계에 대해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 초등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르다.
- 아동의 생활 환경,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 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주고,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동복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가정과 학교로부터 충분한 돌봄이 되지 않는 지점을 메워줄 수 있다면 좋겠다.

- 놀이는 자기표현의 자연스런 수단이다.
- 놀이는 유익한 학습의 기능이 있다.
- 놀이는 감정을 정화시켜 주는 치료기능이 있다.
- 놀이는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재현하여 발달정도, 성격특성, 심리적 어려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진단과 평가 기능도 갖는다.
- 놀이는 시행착오에 의해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기능이 있다.
-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기른다.



출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p.13.

2) 아동복지

아동복지 시설 및 서비스#1

아동빈곤, 아동학대/방임, 가정위탁 & 아동시설보호, 방과후 돌봄

- (시군청) 드림스타트팀(아동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팀(통합사례관리)/(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청) 아동보호팀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시·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청소년 쉼터](#)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방과후교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
-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사회적 농장에 가면, 친구가 있고 좋은 어른도 있다.
사회적 농장은 재미있는 곳이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기도 한다.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에서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

* 공간 확보 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적용

- 농장
- 아이들이 배우고 쉴 수 있는 실내 공간
- 농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공간
- 화장실이나 세면대, 급수대 등 활동 중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 해열제나 소화제 등 비상약품을 구비한 구급상자 비치

청소년이 말하는 좋은 어른

권위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능력 있는’ 어른

청소년들은 어른이라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친구 같은 어른, 친구 같은 선생님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능력 있는 어른은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²⁰⁾

사례발표

아동과 사회적농업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지역자원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 온 영 농 조 합 법 인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령기 청소년 중,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 연령도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까지를 포함
- 교육부는 2002년 이후 ‘학업중단 학생’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
-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이지 학업이나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의 확산으로 최근에는 ‘학교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확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 청소년도 같이 적용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중단 원인

학교중단 원인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의 5가지로 볼 수 있음.

- 개인요인: 자아통제 및 자기조절 기능 부족, 우울, 불안, 무력감, 비행경험(흡연, 성행동, 가출), 질병, 제도권밖에서 진로를 준비하려는 욕구
- 가정요인: 가정폭력, 학대, 가정결손,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낮은 기대, 무기력한 부모, 지나치게 허용적, 방임적 양육태도
- 또래요인: 친한 친구 부재, 또래들과 사귀는 방법에 미숙, 먼저 학교를 중단한 친구가 많음,

또래의 괴롭힘, 또래 없이 외로이 지내는 청소년

- 학교요인: 학업흥미 상실, 낮은 학교성적, 결석, 지각 등의 수업결손, 교사와 갈등 또는 낮은 정서적지지, 교칙위반
- 지역사회요인: 유해환경 노출, 주변의 지지환경 부족, 배회하거나 외박할 수 있는 주변환경, 대중문화 지향

※ 자료: 구본용 외(2002), 구자경(2003), 금명자(2008), 성윤숙(2005), 조아미(2002)

☑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 2022년 기준(2021. 3~2022. 2.)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중단 학생은 총 42,755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0.8%가 학교를 그만 둔
- 2022년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중단 학생수를 살펴보면, 학교중단 총 학생수 중 경기도가 13,78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165명, 인천 2,109명, 부산 1,960명, 경남 1,959명 순임.
- 전국 평균 학교중단율은 0.8%로 세종(1.4%), 서울(1.1%), 경기(0.9%) 순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초중고 학업중단학생 현황

-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통계상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자수와 학업중단율로 나타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는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학업중단자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자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정치로 대신 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등학교 학교중단 비율은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56.9%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 다음 중학교(27.3%), 초등학교(15.8%)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결과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 「2022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결과」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 (37.2%)이었으며, 2018년 조사에 비해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29.6%)은 증가(6.2%p)하였고, 공부하기 싫거나 학교분위기, 친구와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감소하였음.
- 「2022년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교밖청소년의 심리상태 「2021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결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우울감은, 불안감은 전자에 비해 낮음.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 및 심리상태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우울	불안
연도별	2015년	2.98	2.98	2.55	2.21	2.09
	2018년	2.97	2.97	2.56	2.31	2.16
	2021년	3.00	3.01	2.57	2.25	2.09
성별	남자	3.12	3.10	2.70	2.12	1.93
	여자	2.88	2.93	2.43	2.38	2.25

- 최근 한 달간 경험한 심리상태는 ‘외롭다’가 가장 높으며, 최근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경우와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경우는 가 있다고 나왔음.



☑ 학교를 그만 둔 후 「2021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결과」

-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등의 순이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있음.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41.4%)보다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58.1%)이 더 많았으며, 2015년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후회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유시간의 증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학교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음.
- 후회했던 이유로는 친구를 사귀기 기회 감소, 다양한 경험 부재,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났음.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

(단위: %)

구분		선입견 편견, 무시	진로 찾기 어려움	의욕 없음	부모와의 갈등	학교 친구와의 관계 단절	일을 구하기 어려움	혼자라는 불안	도움 받을 곳이 없음	어려움이 없었음
연도별	2015년	42.9	28.8	19.7	26.3	14.4	19.9	10.9	11.9	25.8
	2018년	39.6	28.0	24.0	23.9	15.6	18.1	14.9	12.9	26.9
	2021년	26.1	24.2	22.5	15.9	14.7	14.4	14.3	11.1	36.6

-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진로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2.81점으로, 2015년, 2018년에 비해 상승해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독립성 수준은 3점 이상으로 그중 높게 나타났음.

진로에 대한 생각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진로결정성	진로확신성	진로준비성	진로독립성	진로성숙도(전체)
연도별	2015년	2.51	2.68	2.81	3.19	2.77
	2018년	2.51	2.58	2.86	3.24	2.78
	2021년	2.54	2.60	2.91	3.27	2.81

- * 진로결정성: 진로를 이미 확실히 결정하였으며, 진로 선택에 대해 고민하지 않음 정도
- * 진로확신성: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 * 진로준비성: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만나거나,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받기, 진로관련 자료 받기 등에 대한 관심 정도
- * 진로독립성: 주변의 권고나 도움이 아닌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

프 로 그 램 계 획 서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지역자원 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강 사	주강사	강부경 (소장)
대 상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보조강사 1	양홍수 (대표)
			보조강사 2	송준호 (팀장)
일 시	2022년 10월 ~ 11월 / 13:00 ~ 16:00			
장 소	표고버섯영농체험장 /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199-42			
목 적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 긍정적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움			
목 표	○ 버섯재배,텃밭활동,원예활동 등의 농업활동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감정의 순화 ○ 농업활동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안정감과 우울증을 감소 ○ 단체활동으로 집단내 의사소통의 기회증가와 사회화의 기능향상 ○ 직접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활동으로 성취감을 기르며 건강한 식문화 체험			

☐ 프로그램 일정



회 기	월 일	활 동		
		표고버섯재배	요리 및 공예활동	원예 및 텃밭활동
1	10/4	- 표고배지 입상 - 스마트팜 버섯 수확	- 표고피자 만들기	※ 농장 사정에 따라 변경
2	10/13	- 버섯 순숙기 - 버섯순 손질	- 표고탕수 만들기	
3	10/18	- 버섯수확 및 선별 - 버섯 손질	- 표고전 만들기	
4	10/19	- 버섯 절단작업 - 버섯건조기 활용법	- 표고버섯 버거 만들기	
5	10/21	- 건조 버섯 포장	- 표고버섯 만두 만들기	
6	10/22	※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 건조표고 판매	- 표고피자만들기 무료체험	

※ 위 일정은 농장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지 [3회차]

2022년 / 월.일	시 간	훈련생	주강사 / 주보조강사/보조강사
10월 18일(수)	13:30 ~ 16:30	4명	강부경(소장) / 양홍수(보조강사) / 송준호(팀장)

활동 내용	○ 버섯재배 : 버섯수확 및 선별, 버섯손질 ○ 요리활동 : 표고피자 만들기			
활동 사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을 기다린다고 많이 퍼진 버섯을 수확,선별 후 버섯손질 작업을 함.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음. - 집에 가져간 버섯으로 무엇을 해먹었는지 물어보니 지난시간에 했던 버섯탕수를 바로 해먹었다는 친구도 있고 고기를 구워먹었다는 친구도 있었음. - 토요일 사회복지박람회에서 표고피자체험 전 미리 순서 안내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 표고피자를 만들면서 사진을 찍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프로그램명	지역자원 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		
단 체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기간	2022년 10월 4일(화) ~ 11월 26일(토)	운영 횟수	총 7회
운영장소	표고버섯영농체험장(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665-1)	강 사	소장 강부경 대표 양홍수 팀장 송준호

회 차	날 짜	시 간	훈련생 수
	활 동 내 용		
1회	10월4일(화)	13:30 ~ 16:30	4명
	○ 버섯재배 : 배지봉지 벗겨 배지 입상하기 / 스마트팜 버섯 수확하기 ○ 텃밭활동 : 피망, 토마토 수확하기 ○ 요리활동 : 표고피자 만들기 ○ 원예활동 : 쪽파종구 심어가기		
	10월13일(목)	13:30 ~ 16:30	4명
	○ 버섯재배 : 버섯 순숙기 / 버섯손질 ○ 요리활동 : 표고탕수만들기		
	10월 18일(수)	13:30 ~ 16:30	4명
2회	○ 버섯재배 : 버섯수확 및 선별, 버섯손질 ○ 요리활동 : 표고피자 만들기		
	10월19일(수)	13:30 ~ 16:30	4명
	○ 버섯재배 : 버섯절단작업 / 건조기 활용법 ○ 요리활동 : 표고버섯버거만들기 ○ 기타활동 : 고압살수기로 기계 세척		
	10월 21일(금)	09:30 ~ 12:30	4명
	○ 버섯재배 : 건조버섯 포장 ○ 요리활동 : 표고버거만들기		
3회	10월 22일(토)	13:00 ~ 16:00	3명
	※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 버섯재배 : 건조표고 판매 ○ 요리활동 : 표고피자만들기 무료체험		
	11월 26일(토)	10:00 ~ 16:30	4명
	※ 거제시신활력플러스 사업 / 로아팜 참가 ○ 버섯재배 : 건조표고판매 ○ 요리활동 : 표고피자만들기 유료체험		
	총 7 회		
			27명

위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서명)

하반기 지역자원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운영 결과

- 기 간 : 2022년 10월 4일(화) ~ 11월 26일(토)
- 장 소 : 표고버섯영농체험장(연초면), 거제시조선해양문화관(일운면)
- 참여인원 : 학교 밖 청소년 8명
- 운영인력 : 표고버섯영농체험장 강부경 소장 외 직원 2명, 꿈드림 전진숙 팀원
- 운영내용 : 표고버섯 재배 직업훈련
(배지 입상, 순 숙기, 수확, 선별, 가공, 버섯 활용 체험, 판매 등)

소감문

소감문

표고버섯재배직업훈련을 해보기 전에는 버섯이 어떻게 재배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생각해보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버섯재배라는 관심이 없으면 해보기 힘든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신선하고 특별했고 농사에 대한 관심을 그전보다 가지게 된 것 같다.
친구들이랑 같이 버섯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처음부터 과정을 같이 알아가서 좋았고 내가 직접 키운 버섯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면서 한번 더 뿌듯함을 느끼게 된 것 같다.
표고버섯 재배 직업체험에 참여하면서 버섯을 직접 재배하고 재배한 버섯으로 요리를 해 먹는 과정에서 뿌듯함이 느껴졌고 마트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하나하나들이 모두 이러한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음식이란 점을 깨달아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직업체험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와 관련이 전혀 없는 농사일을 직접 겪어보니 더욱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생각보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표고버섯 피자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었고 보람찼습니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버섯을 판매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나름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시작 전엔 사람이 적어 보여서 조금 수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몰려서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신없는 만큼 시간도 빨리 가고 바리스타 인턴쉽 때처럼 손님을 응대하는 것을 조금씩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은 활동이었어요.
어디서 가서 해보지 못할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 손님을 맞이하고 버섯 판매를 직접 해보는 경험으로 작은 성장을 느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런 활동을 많이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III


총 평

- 학교 밖 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진로 설정 조력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다운영농조합법인의 체험비 전액 지원으로 운영됨.
- 2023년 경남도재단 연계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할 예정임.

IV

관련사진



	보 도 자 료		부 서	여성가족과
	2022년 12월 1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꿈드림 팀원 전진숙 junjs72@korea.kr
			연락처	055)639-4989

꿈을 나누는 행복한 농부, 꿈드림!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표고버섯재배 직업훈련프로그램 실시』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한경수)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연초면 다공리에 소재한 표고버섯영농체험장(다운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및 실무자 총 9명이 참여하여 표고버섯 재배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직업훈련은 청소년들이 직접 재배한 버섯으로 지역 행사장에서 ‘표고버섯 피자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버섯 가공·판매 실습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버섯 판매금은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23년 대학 입학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참여한 꿈드림 청소년들에게 의미가 깊은 활동이었다.

참여한 어느 청소년은 “표고버섯재배 직업훈련을 해보기 전에는 버섯이 어떻게 재배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표고버섯 재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농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어 나에게겐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한 다른 청소년은 “어디 가서도 해보지 못할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 손님을 맞이하고 버섯 판매를 직접 해보면서 스스로 작은 성장을 느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봐야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거제시 꿈드림과 다운영농조합법인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는 표고버섯 재배 직업훈련이 한층 확대되어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꿈드림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055-639-4980, 4989)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계 협력 사항 안내

가. 배경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들이 농업·농촌 직업 분야에 관심이 있음에도 직업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않아, 농업 관련 직업 체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목적

학교 밖 청소년

↔

사회적 농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중앙지원하고 있는 전국 220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중 농업 활동에 관심이 깊은 대상자와 23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92개 사회적농장 간 연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농장에서 **직업 활동 체험**(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역량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자립을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동기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다. 내용



농장은 3~4단계에 참여하는 직장 멘토로서 만15~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장 체험을 지도함. 실무 및 작업환경 체험을 지도하며 실무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함. 총 100시간 혹은 130시간으로 평일 9시~18시 내 주 40시간 미만으로 운영 진행.

라. 센터와 농장 간 연계 방법

- 농업·농촌 직업체험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을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사회적 농장으로 **개별 연락** 예정이며 센터와 농장 간 협의하여 진행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외 협업 사업 추진 희망 시, 사회적 농장 측에서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제안 가능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목록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확인 가능

마. 교육 훈련비

농장 부담 비용 없음. 학교밖청소년 훈련에 따른 **교육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되며 훈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비 등은 별도 협의에 따라 센터에서 일부 지원 가능.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서는 별도의 지원 없음.

바. 기타 행정 사항

- 농장은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 시 5p (불임)양식 작성하여 공사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참여 사실 알림. (23년도 최초 1회)

*제출하실 곳: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이혜인 2180287@ekr.or.kr

참 고

□ 기관 소개

가. 기관명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설립목적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력 형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설립

나. 사업 소개

-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 꿈드림지역센터 현황 : 총 220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항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사업 담당자: 전은정(051-662-318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사회적 농장 참여 보고

농장명		사업자번호	000-00-00000
연계센터명		연계센터주소	
연계센터전화	000-000-0000	연계센터담당자	

분야 (농작물)	(예) 블루베리, 딸기 등	참여 청소년 인원	(예) 2명
참여 기간	2023.00.00~00.000	참여 주기	(예) 주 3회 3시간
농장 계획	(예) -스마트팜 영농기술 전수 -농장 지원 활동 체험 지도		

2023년 월 일

사회적농업활성화

아동과청소년분과

에코마실 농업회사법인



대표 조 양 숙 [flax](mailto:hurb2@naver.com)
hurb2@naver.com 01
0-6415-6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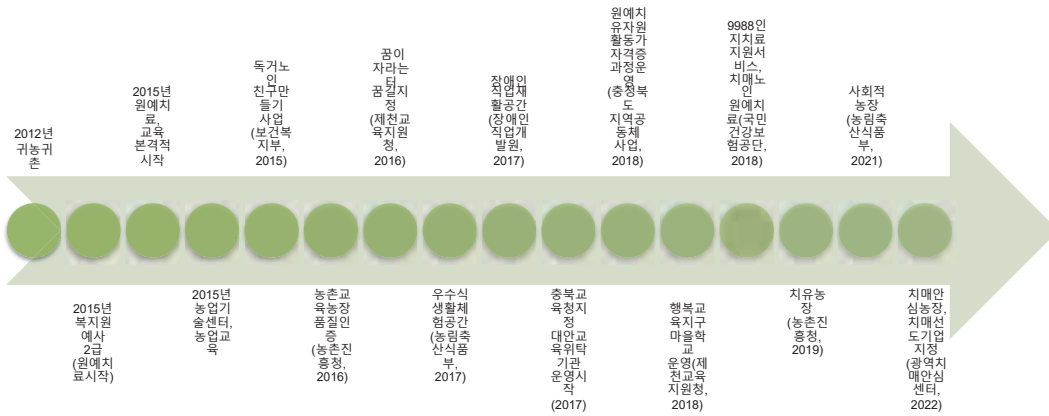
0

1

에코마실 농업회사법인 소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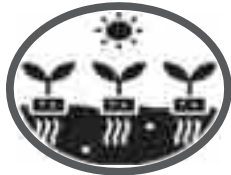


2

3



4



에코마실 농장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
맞춤형 훈련 개발 - 대학생,
고등학교, 교육청,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
인부모연합회 매칭

사전교육제공

현장실습운영,
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현장실습생,
대안교육위탁학생

사전교육 참여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Hifive연계

현장실습 참여, 일지작성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실습 평가, 최종 발표



학교, 교육청, 복지관, 센터
교육의뢰기관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
MOU, 협약기관 체결

직업재활, 훈련,
교육, 인성 프
로그램 개발

현장심사
지도 참여

결과보고서,
평가서 제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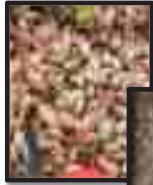


**Ecomasil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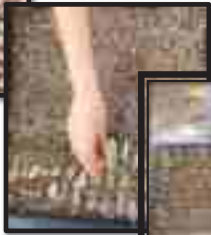


6

떨어진 앞은



그들의 따뜻한 손길로



새로운 삶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웃는다.
행복감 인지
즐거움 인지
신기함 인지
무엇이든
그들은 또 웃는다.

7

6

❖ 장애청소년에 대한 계속 교육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적 삶 속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의 기회를 만들어보자.

▷ 성인기의 '독립성' 기술이 형식화되어야 한다.
에코마실은 사회기술과 자립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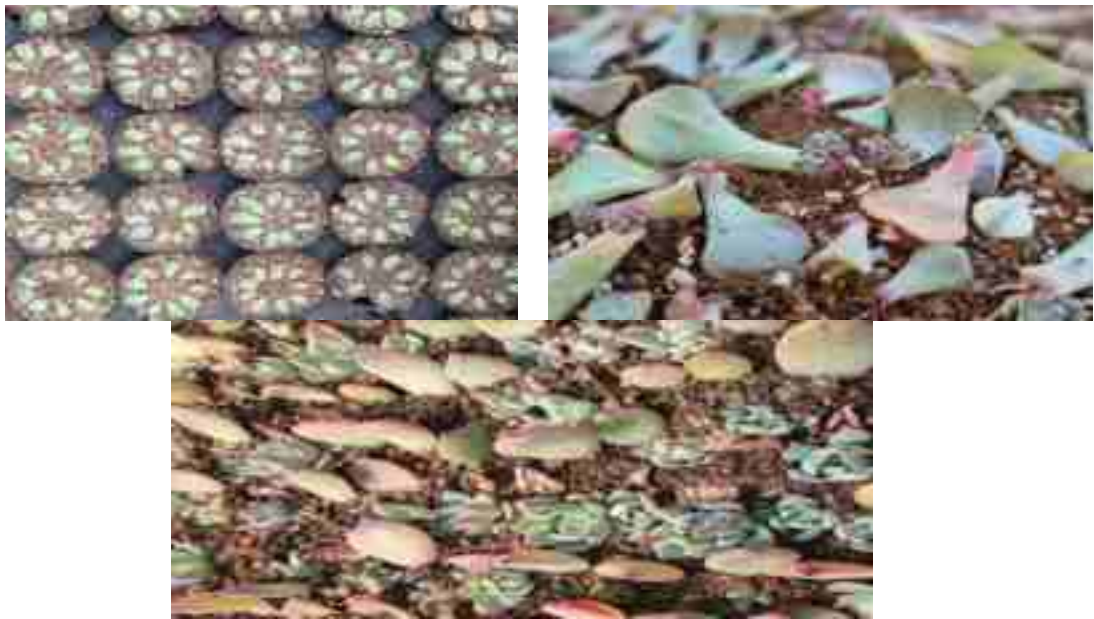
일을 하고 싶어요. 질나쁜 노동, 단순작업은 싫어요
직업을 갖기, 취직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나도 뜻 깊은 삶이 살고 싶어요. - 내가 만든 다육이를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봉사의 도구로, 반려식물 나눔

▷ 장애청소년이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잡아 나가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체성 각본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 내가 배운 것을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처음 접한 학생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교육의 보조강사로 활동
스스로 사회복지 공부 - 전문대 졸업, 기관에 취직

▷ 일자리 창출은 장애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일자리는 자신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8



9

다육이 흙도 직접 만들기



10



11



12



13



14



15



16

장애의 기능은 다 다르다. 적재적소에 자기에 맞게 역할찾기

- ☞ 자폐친구 - 잎꽃이를, 간격과 줄맞추기 짱
- ☞ 한 쪽 시력저하 - 가까이서만 봐야 보이는 떡잎따기
- ☞ 가위질을 잘하는 손기능 보유자 - 꽃대자르기
- ☞ 손아귀 힘이 좋고 힘이 좋은 친구 - 흙만들기, 흙비비기



17



18



19



20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는 농장으로

땡큐베리팜



1

1



‘농장이 놀이터가 되어도 좋겠다’는 마음

땡큐베리팜은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는 농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놀이터가 되고,
지역 농부들과 주민들의 배움터가 되고,
청년과 도시인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선물하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군분투하지만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며
나누는 기쁨을 배웁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공유와 연대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2

2

HISTORY

우직하게 걸어온 9년의 시간



2015

귀농과 함께
블루베리 농장 조성
논산시 가야곡면 2,000 평
블루베리묘목 5,000 주 식재

2016 ~ 2017

땡큐베리팜 사업자등록
무농약 인증
팜파티&블루베리 수확
체험농장 시작
팜파티 교육 수료
농촌체험지도사 취득

2018

블루베리연잎밥 개발 특허출원 신청
블루베리연잎밥
우리쌀가공식품대전 디자인상 수상
대한민국향토음식문화대전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농부채방 <북바라봄논산> 오픈
북앰팜파티 Book&Farm Party 개최

3

3

HISTORY

우직하게 걸어온 9년의 시간



2019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교육농장 지정 땡큐베리팜 사회적농업
비전 워크숍 개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죽협동조합 설립
청소년정원학교 프로그램 복지원에서 자격증 취득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충남대학교 영농창업단
복지원에서 실습농장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치유형농장 시범사업 선정

2020

같이함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땡큐베리팜 농업회사법인 설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사업 선정
충청남도지사 표창수상
'같이함께 사회적농업 공동체' 구성
및 협력농장 MOU 체결
<같이농사짓고 함께돌보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작했습니다> 발행

2021

도시농업관리사, 화훼장
식기능사 자격 취득
무농약 인증 2016-2021
친환경 택배포장재 도입
땡큐베리팜 출시
땡큐베리팜 개발
[다시쓰다] 운영

4

4

HISTORY

우직하게 걸어온 9년의 시간



2022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1년차
(지역서비스공동체)

우체국쇼핑 땡큐베리점 입점

땡큐소셜팜 대화모임 운영

농장디자인 굿즈개발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PDC) 이수

사회적농업현장연구 보고서 환대와 연결, 변화 그리고
발간

2023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사업 2년차
(사회적 농장)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충남농업 분과위원회 청년인력분과 위원

5

5

BUSINESS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땡큐베리팜

01

무농약 블루베리 생과

가공식품 판매



6

6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팽큐베리팜

02

체험농장 운영



7

7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팽큐베리팜

03

공유농장 <팜타스틱> 운영



공유정원
농민학교
치유정원



공유주방
소셜다이닝
로컬푸드 쿠킹클래스



공유공방
지구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8

8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땡큐베리팜

04

로컬푸드 ·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운영



언니네농장

로컬푸드
SNS 플랫폼



다시쓰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땡큐베리팜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필요한 포장과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고 저비용,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농장을 지향하며 일회용 티슈 대신 면 티슈, 종이컵 대신 개인 컵,
플라스틱 그릇 대신 스테인리스 용기와 친환경 저품을 사용합니다.

9

9



//

처음에는 구농자재를 반대했지만 결국
국땡큐베리팜이라는 외곽에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000 다음엔 뭐든 할 수 있고 어떤 곳에도 참여할 공간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땡큐베리팜은 잘 짓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겼어요

- 찬희 -

//

10

10



// 생각했던 일들 하나씩 실천해가는 즐거움 생각보다 크다
우리 지역의 좋은 변화에 함께 한 느낌도 있고요
이직할 같은 멀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포장지도 좋고 싸게도 좋고 품질도 좋고 알뜰하게 사용도 좋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농촌에서 '자랑자랑'은 땅과 사람과 함께 하고 노력합니다

- 임영환 -

11

11

미션 MISSION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자**

비전 VISION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많이 연대하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사회적 돌봄·교육 공동체로
성장하며 농업 기반 커뮤니티 케어 정착에 기여한다.

추진전략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정원·공유주방·공유공방으로 구성된
공유농장을 조성,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농업 활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한다.

사업방향

돌봄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
우리기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행동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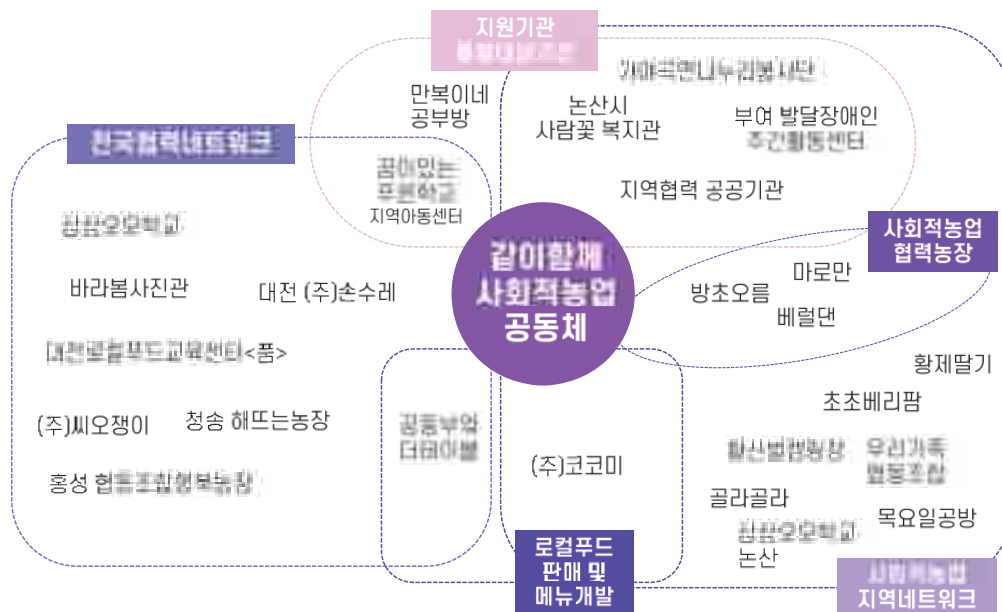
맹큐베리팜은 '같이 함께 돌보고 배우며 나누자'를 행동철학으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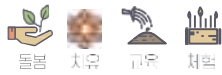
13

NETWORK

맹큐베리팜,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14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청소년을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으로 지역공동체센터와 협력해
농업생산 활동과 판매활동을 운영 합니다

파종, 재배, 관리, 수확 등 계절별 경험활동을 통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이해하고, 반려식물 키우기,
틀밭 가꾸기 등 판매활동은 청소년의 정서 순화, 갈등 해결, 자존감 향상을 돕습니다.

공유주방 완공으로 2021년부터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같이 요리하고 함께 나누는
소셜 다이닝 '같이 먹자 품'과 연계 해 운영합니다.



15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16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17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18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19

THANKYOU



010-4330-4987



sky1004@daum.net



thankuberry



육곡리농장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16-3/

강청리 농장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45-8



20

30일 - 2일차

지역서비스공동체

전문가 강의

권혁범 (여민동락 영농조합)

사례발표

신소희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변화경 (거창 사농 지역네트워크)

패널토론

구자인 (마을학회일소공동연구소)

박진숙 (함께하는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협동과 연대로 만드는 돌봄공동체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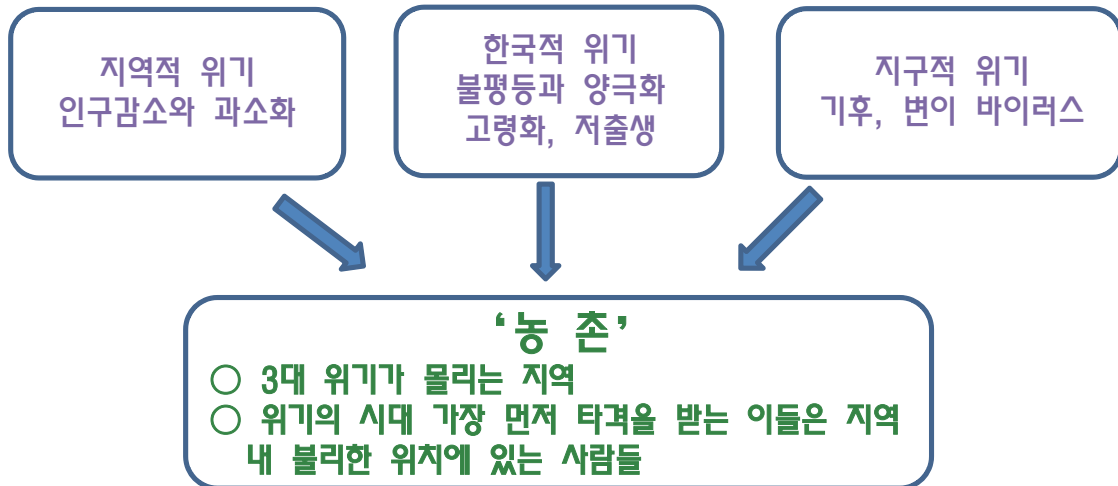
지역서비스 공동체의 현실과 발전방향

권혁범 대표

여민동락공동체

복습하기-1
공동체소환

복합적 위기 – 지역적, 한국적, 지구적 3대 위기



3

위기 앞 복지국가와 시장의 한계, 사회혁신의 주체로 '공동체 소환'

1. 복지국가의 한계

- 1) 산업구조변화와 기술진보, 고용형태의 변화
- 2) 현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 직면

2.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폐해

- 1)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 2) 만인의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 등

3. 신사회 위협의 결합

저출생(노동인구), 고령화(노동인구 의존)로 인구 구조 변동과 저성장 시대



14

공동체 소환의 역사

산업혁명, 자본주의 / 빈곤, 불평등, 사회적배제

-산업혁명 전후-

- 인클로저 운동
- 화재보험공제회
- 산업혁명
- 1844년 영국 맨체스터 ‘로치데일 공정개혁자회’

-복지국가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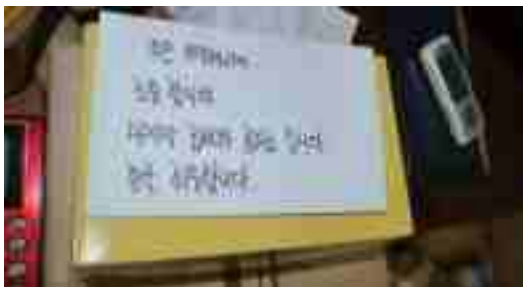
- 1차 세계대전, 대공황
- 유럽의 사회보장 발달
- 미국의 뉴딜
-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 전성기

-최근-

- 신자유주의 대세와 현대 공동체주의 운동 출현
- 종교공동체, 생태공동체, 지역공동체
- 돌봄공동체

13

송파 세모녀 자살 이후 공동체(관계)중심의 마을안전망 조성 대세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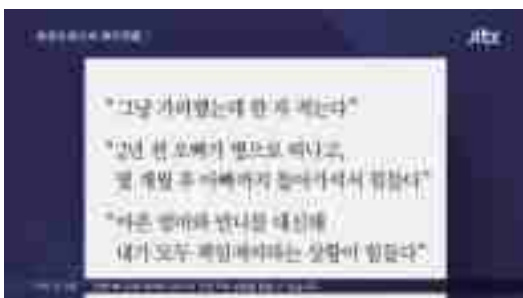
과연 모든 문제를 “예산(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송파 세모녀 자살이후, 원룸 20대 부자 고독사 등 유사한 사건이 여전히 발생

공동체 중심 복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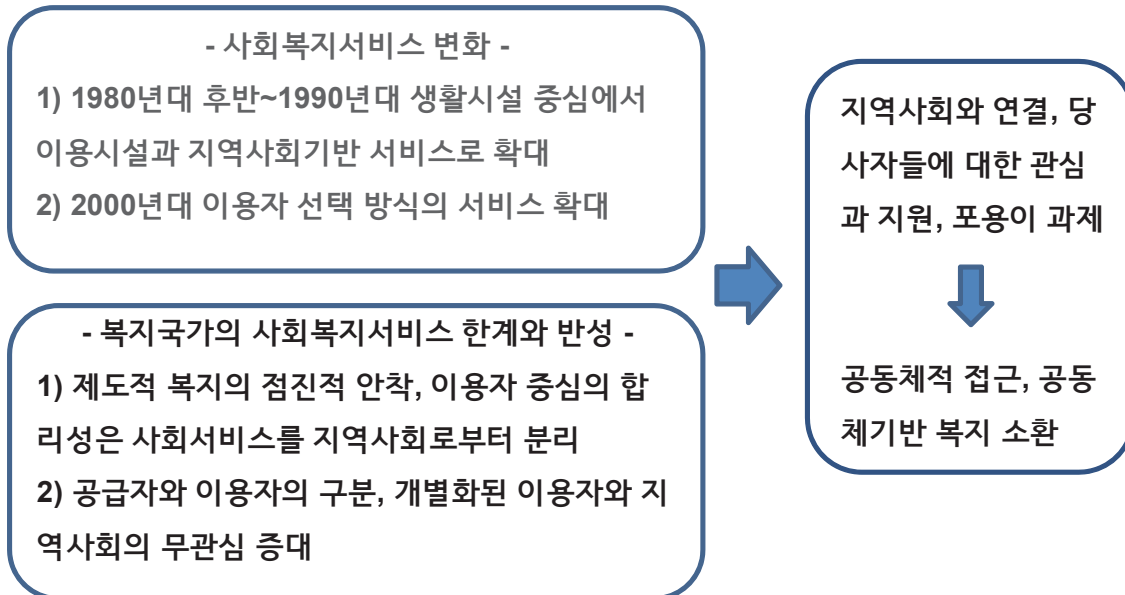
-지역공동체가 자체의 힘으로 복지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가는 전제 위에서 국가의 지원을 결합

-재정 중심의 처방에서 관계 중심의 마을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사는 능력 함양”



6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반성, '공동체 소환'



18

공동체 (기반) 복지 / 제도적 복지 주요 요소 비교

분류	공동체 (기반) 복지	제도적 복지
복지 제공자	주민조직(공동체) 자발적, 수평적, 통합적 제공	-사회복지시설 전문가 제공 -표준화, 규격화된 서비스
복지 대상자, 제공자와 관계	-복지 제공과 소비주체 간 공동생산 강조 -수평적 관계	-복지 제공과 소비주체 간 역할 분리 -수직적 관계
복지 생산의 성격	복지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	복지 공급자의 전문성
특징	-이웃이 이웃을 돌본다 -돌봄의 당사자이면서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시민 개인의 사회권

8

복습하기-2 한국 사회서비스 현재

9

한국의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4대 사회보장	취지	원칙	종류
사회보험	미래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편주의 피부개입 거여 부담 (보험료 납부)	질병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사회수당	특정한 인구학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혜택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편주의 무기여 권리 (무요혜택)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사회서비스	현금이 아니라 현물 서비스를 제공	보편주의 무상과 일부 비용지출 존재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요양(돌봄)서비스
공공부조	일반 조세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현금과 현물 서비스 제공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따른 대상자 선별 협동성 논란과 도의적 해이의 최소화가 관건	국민기초생활보장

10

사회서비스란?

1. 개념

- 1) 광의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
- 2) 협의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총칭

2.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비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국가	제3섹터 (지역사회 기반)
대상	수급자 등 빈곤층에 한정	서민 · 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기본적 생활보장 서비스	기본적 생활보장 외 일상생활 지원 · 인적자본 확충 등
재정지원 방식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
비용 부담	전액 국비 지원	본인 일부 부담
품질관리	국가 (일방적)	국가, 지자체, 제공기관

11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보건복지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①살던 곳(주택이나 그룹홈 등)에서 ②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③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정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2018.11.20)

- ① **탈시설, 지역사회(Community) 기반**
- ② **당사자 중심, 통합적 급여와 서비스**
- ③ **지역주민 관계망, 참여, 자아실현과 자주적 활동**



12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보건복지부

비 전 및 과 제	목표	누구나 살만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비전	2025년까지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을 재구성한다
	주요 정책 방향	<div> <div>주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안정지원 · 임대차·세입 · 공동주택의 노후관리 </div> <div> <div>건강지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지원 · 예방 진료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운동·영양 </div> <div> <div>안전·돌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노인안전망 · 노인·장애인안전 · 재난·재해응급 대응 </div> <div> <div>서비스·연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복지·교육·문화·스포츠 연계 · 민간·사회서비스 연계 · 공공서비스 연계 </div>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실행을 목표로 추진	<div> <div>2025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체계화 · 치매안심센터 · 치매·장애·노인·사각지대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 · 위기·위기대응 </div> <div> <div>2026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구별,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체계 구축 · 돌봄·의료·복지·문화·스포츠 연계 · 공공·민간·사회서비스 연계 · 공공서비스 연계 </div>
주요 핵심 요 소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맞춤형 주거안정지원 · 참수리 시범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건강 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 노인 만성질환 관리·예방·진료 · 방문의료 · 병원·지역연계망 운영
	안전 돌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노년장기요양보호 구축 · 석사 발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 재가 의료급회 신설
	서비스 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케어형·선별·연계망 · 지역케어위원회 등 지역사회·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서지원) 생활안전점검 (안전, 위생)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서지원) 정보제공 (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데이터 확인 점검, 유사 시 방문 및 전화
사회참여 서비스	사회관계망부채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여가, 평생교육, 체험여행 활동 자조모임
발달교육 서비스	강제진행 학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미용·활동지원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동행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기관)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지원
	주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위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연계, 건강보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15

지역사회 서비스안내-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란?

이웃·노년·장애인을 돌보는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선제주기를 육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여성·영양개선,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지원 대상

기초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은 상이
4인 이하 가구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초 100%	1,007,201	1,000,000	1,000,000	4,376,200	5,357,270	6,000,000	
120%	1,208,641	1,200,000	1,200,000	5,251,440	6,428,724	7,200,000	7,944,000

2022년 7월 말까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16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행안부

제안 행정안전부 - 읍면동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제안 1.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대 추진전략

구분	주요 추진 과제
1.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1.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1.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1.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행안부

1.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3.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17

지역서비스 공동
체
를 시작하기 전
생각해볼 것

18

사업시작 전 나와 우리들의 질문, 논의, 동의

- 공동체(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 질문과 공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합의가 필요
- 나는(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내가(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란?
-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역할?
- 서비스 활동의 결과(제공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 서비스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5년 뒤 나는(우리는) 어떤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44

지역서비스공동체는 다른 방법인가? 다른 분야인가?



-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노인 사회서비스 종류

- 지역서비스공동체는 기존의 사회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 실천방법이 다른가? 도시에는 없는 서비스의 새로운 분야인가?
-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
 - 현재 농촌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
 - 농촌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닌지

20

복지 기계가 되어선 안된다

-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수준에 머물러선 안된다
 -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인정 받기 어려움
 - 경쟁 상대도 안됨. 빠르게 소진 됨
- 구닥다리 노인, 천덕꾸러기 노인, 시혜받는 노인에 대한 낙인은 누구 문제인가!
 -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라며 대상화
 - 이웃과 지역사회와 관계를 단절시키며 시기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존심 상하는 일
 - 이웃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거세시키는 나쁜 방법
- 비록 느렸을지라도 사회복지계의 반성과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당사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철학 반영 노력

44

당사자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것



-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경청, 묻고, 거들고 주선하기
- 소통과 관계를 기반으로 이웃간에, 지역사회의 배려, 나눔, 협력의 문화 조성

22

지역서비스공동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인사와 경청
- 전문가, 활동가보단 지역 주민으로 만나기
- 우리는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 발로 뛰고 기록하기
- 가급적 보이지 않게 소통하고 두루 두루 스미어 자연스레 연결

- ⇒ 한국 보건복지제도의 급속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의 흐름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농촌의 보수적이고 정적인 정치구조와 행정체계, 주민의식을 고려한 협업체계 마련
- ⇒ 농촌 지역사회의 문화와 규범, 리더십 존중하기
- ⇒ 가랑비에 옷 젖듯 일어나는 마음의 진화, 지역의 변화

44

지역서비스공동체 사업 지속되면 좋겠다

- 개인적으로 이런 규모의 사업을 본적이 없다
- 사회적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가 2023년에도 지속될 줄 몰랐다. 관련한 모든 이들의 노력에 감사, 미안
- 참여 동기가 무엇이든 ‘마중물’로 잘 활용하여 인정이 넘치고 사람 살만한 농촌, 더 나아가 기존 콘크리트와 같은 관행적 질서에 틈을 벌이고 대안 중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 한번 모여 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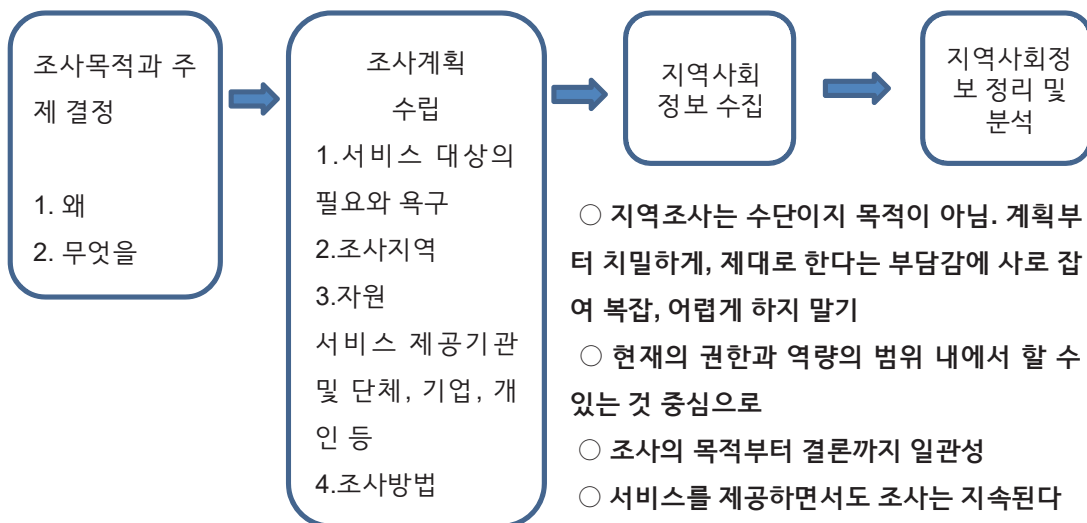
24

지역서비스공동체 활동의 시작

25

지역사회조사

○ 지역조사 방법



26

지역사회조사(처음이거나 대표성을 가진 주민조직)

○ 목적(취지와 필요성)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유, 무형의 자원 파악
-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 파악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 결정

○ 주요 내용

- 지역의 인구학적 통계자료, 사회역사적 특징, 지리적 환경 등
- 행정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복지시설, 사회단체조직과 주요 활동, 서비스 제공과

관련

된 물리적 공간

- 정보 분석과 공유, 과제 도출

○ 조사방법

: 문헌연구,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 설문지, 방문 인터뷰 등

27

지역사회조사(서비스 제공 및 활동 경험이 조직의 경우)

○ 문제제기와 가설

- 1) 농촌은 도시와 달리 제도적 사회서비스 종류가 부족한 것인가?
- 2) 농촌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가?

그렇다

다양한 조직
설립, 자원 연
계하여 제공



아니더라.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고
관련기관 존재, 인력 또한 많다

- 1) 인구감소 및 과소화, 공동화로 인한 생활기반시설과 아동권의 유무, 접근성에 따라 서비스의 총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
- 2) 어떤 서비스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 3) 조사대상, 지역, 범위가 좀 더 구체적
- 4) 시급성, 우리 조직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

계

28

사업계획서 예시

○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농촌 면단위 이동권(또는 먹거리) 사각지대 고령노인에 대한 000 지원으로 통합돌봄 토대 마련’

=> 사업의 대상, 목적,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 사업 참여자 범위를 좁혀 작성해 보기

핵심 참여자	이동권(또는 먹거리) 취약 고령노인 25명
	식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 내 고령노인 90명
	경로당(마을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노인 10명
주변 참여자	면사무소 방문 복지팀 2명
	00 마을외 5개 마을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6명, 부녀회장 3명
	000 사회적협동조합, 000 영농조합법인 (000 보건소 1명)

○ 참여자 선정기준 : 공통기준, 1순위~3순위

○ 참여자 모집방안 : 참여 기관 및 단체 추천

○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 사업별 성과목표, 시행방법, 시행시기, 횟수, 참여인원, 수행인력 작성

○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 성과지표, 평가도구(설문, 인터뷰, 기록지), 평가방법(주체, 내용, 방법)

29

사업의 정착과 성과는 신뢰와 관계의 질이 우선, 욕심내지 않기

○ 지역사회내 우리의 조직 또는 개인(돌봄반장)과 신뢰관계가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의견수렴과

홍보. 단 돌봄반장이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되었을 경우 사업 기획한 조직의 관계자가 동행

○ 지역서비스공동체는 농림부 사업임을 잊지 않기

- 지자체 농정관련 담당 공무원과 면사무소 복지관련 공무원이 협조적이거나 친분 관계가 있다면 행정의

협조가 큰 힘이 됨

- 기존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지자체 복지관련 부서와 면사무소 공무원은 관심 없음

- 신뢰 관계가 높은 지역사회리더 및 조직들과 먼저 시작, 공무원은 인사, 그들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도 여러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관계 맺기의 기본부터 시작

○ 지역사회 내 활동적인 민관거버넌스 조직이나 자조조직, 봉사대에 참여하라

- 읍, 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 000봉사대, 청년회, 부녀회 등

30

000면 내 행정과 연계된 지역복지 활동 현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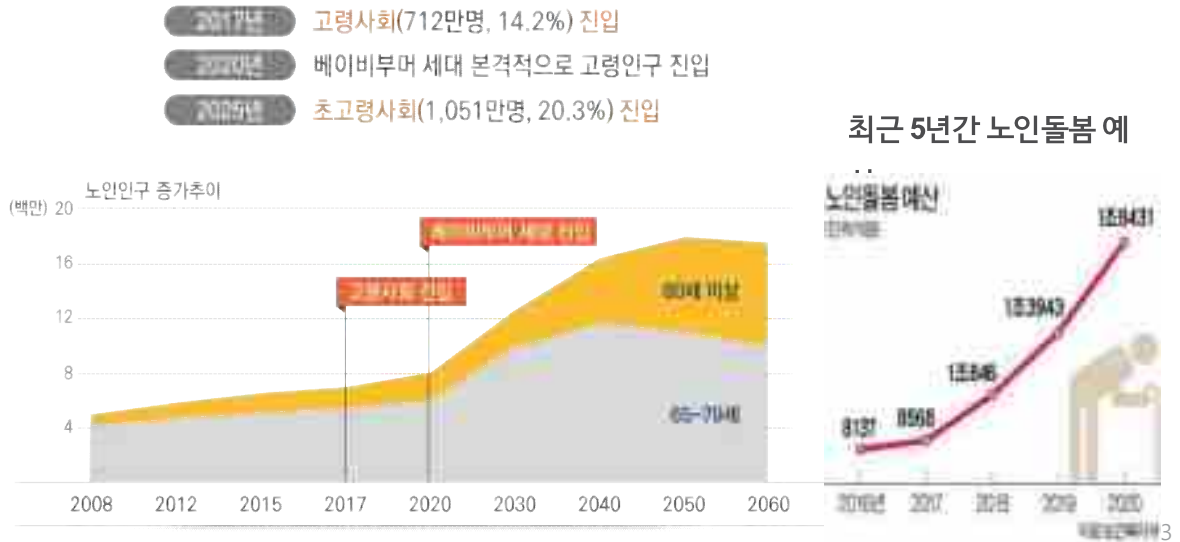
사업명 및 내용	대상	명	예산(만원)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2	200	000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지킴이 밥상지원	취약계층	10	200	000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경로당 안전지킴이	경로당	26	1,000	000면사무소
맞춤형통합지원사업	취약계층	20	600	000면사무소
생활안전지원금	취약계층	1	20	000면 장암복지기동대
주거개선지원	취약계층	20	1980	000면 장암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3	비예산	000면 장암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2	550	000면청년회
신년맞이 꾸러미 나눔	취약계층	100	180	000면 부녀회
어버이날 행사	취약계층	10	미정	000면 부녀회
김장나눔 행사	취약계층	120	300	000면 부녀회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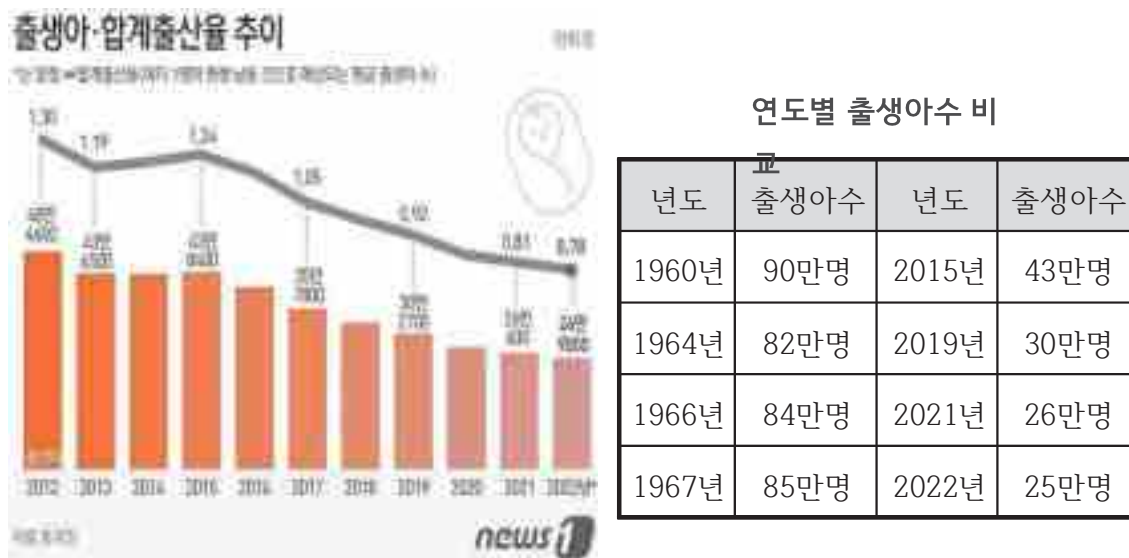
지역서비스공동체
미래

32

베이비부머 세대 65세 진입과 노인인구, 사회보장비용 폭발적 증가



저출생과 복지국가의 위기?, 각자도사의 시기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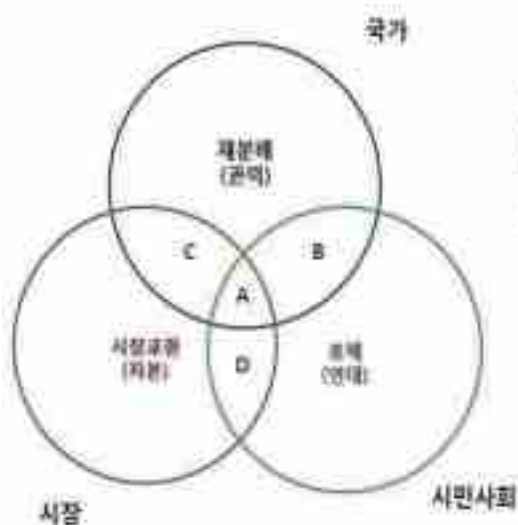


한국의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



35

복지국가 시스템과 시민사회 중심의 제3섹터(사회적경제)의 결합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시민사회 중심의 제3섹
터(사회적경제)조직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안

≡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36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터 비교

분류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조직	비영리법인
종류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등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운영방식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	설립대표, 전문가의 소수 통제	설립대표, 전문가의 소수 통제
이윤	공익적 목적 사용 구성원을 위해 사용	직접 설명	공익적 목적 사용

“복잡적 위기의 시대 우리 모두를 위한 전환의 시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고민하는 이들의 학습과 연대로 만드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바탕이 될 것”

37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참여 어디만큼 왔나?

분류	보건복지부 제도적 복지	수행주체	참여
치매나 중풍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참여 중
인지기능 정상,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또는 기관	참여 중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고령의 독거 또는 부부 노인	노인일자리 문화여가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노인복지관, 복지시설 공모사업 참여 조직	참여 중
건강한 노인	노인일자리 문화여가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노인복지관, 복지시설 공모사업 참여 조직	참여 중

38

농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사례



하절기 방역
-면사무소



취약계층 백내장 수술 지원
-광주시 안과



의료봉사 및 문화예술 공연
-광주시 의료봉사단체

39

농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사례



찾아가는 건강교실
-보건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파출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40

농촌에서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한글교실
-학교 방과후 강사



**고령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지역 고등학생 봉사
동아리



독거노인 물래산타
-묘량면 부녀회

41

농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사례



독거어르신 침, 뜸 봉사
-관련 협회, 보건소



이동점빵차량운행
-동락점빵



고령농, 경로당 빈병수거
-동락점빵

42

농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사례



**독거노인
차량이동지원
-묘량면 노인대학**



**독거노인 건강꾸러미
-묘량면 부녀회**



**치매동행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43

농촌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 사례



**춘천 사북면
우리마을 119
-별빛사협**



**곡성 죽곡면
죽곡마을 119
-주민자치회**

44

“나의 실천, 우리의 실천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이
다”



45



장곡면 위치



100% 100%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물품분과**

함께 농업·마을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
장곡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민내 마을별 물품 활동 확장과 함께 주민의 확대를 목표로 함
장곡면 지역 의제 발문 및 물품 활동 연계 사업사업 추진

2020년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물품분과
조직도



2021년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물품분과
조직도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장곡면 복지·물품 분야 사업 실행 주체의 필요
공공성과 전문적인 역할을 갖춘 주민 참여 법인 설립 필요
사회적 농업과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도

2021년



2022년



오누이농장

바람 폭거 어르신들 위한
편의식을 판매활동
〈바람 프로그램〉

주최
포구동 / 바르노, 고원회, 한빛이

장소
차라리 오누이농장

대상
장년층, 3차 어르신 10명

시간/장차
4~5월, 9~11월
월 20명까지

주요내용
어르신들만 700원
편의식을 사서 모금하기
매월마다 모금하고, 모금하는
지역 별로 100원
지역 후에 한해
매년 100원 100원까지



조아라농장

바람 어르신들 참여하는
편의식과 모금활동
〈나도농장 프로그램〉

주최
차라리 / 조아라

장소
차라리 조아라농장, 차라리

대상
차라리 어르신 10~20명

시간/장차
4~5월, 9~11월
월 20명까지

주요내용
장년층, 중년층, 고령층, 어르신들
모금하고, 편의식과 모금활동
매월마다 모금하고, 모금하는
지역 별로 100원
지역 후에 한해
매년 100원 100원까지



텃밭협동조합

마을 제1농산물물결을
친환경식재료 나눔
«텃밭 여기저기 소풍»

장소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장소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대상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시기/횟수

7~8월 / 10월
총 2회

주요내용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행복자람이

마을제1농산물물결을
친환경식재료 나눔
«텃밭 여기저기 소풍»

장소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대상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시기/횟수

7~8월 / 10월
총 2회

주요내용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마을제1농산물물결을
친환경식재료 나눔
«텃밭 여기저기 소풍»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김포시, 파주, 서울, 서울



우리마을 돌봄반장
생활돌봄119 활동
지역 자원 연계

특집자문사회 건강한 밥상나눔 확대

기존 분기별 배식으로 연내 기초생활수급 특가노선 10명 제주도사회 발달
통합리합남 주변 30명 추가 연계 >> 우선순위 대상 기준에 대한 논의
예산 사용처 논의 >> 분기별 대상 파악, 유류비, 주방합기 구입 지원



우리마을 돌봄반장
생활돌봄119 활동
지역의제 발굴 논의

별천 마을 지원 서비스 / 합계하는 광복 호도택시 사범사업 운영

마을 생활 및 어르신 의견 전달 역할
홍보근거, 군청 교통행정과, 읍주어제 사업부, 호남연구회 원모가 등 참여 주민 의견 청취
마을버스 운영 마을 확대, 순박차지점 추가 확충, 이음택시 마을 추가
마을문화행사 사업 다각화 및 주민조직 참여 방안 모색 계속



우리마을 돌봄반장
생활돌봄119 활동
시범사업 운영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 함께라는 장곡 효도택사 시범사업 운영

장곡면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지원지원 서비스 3일 운영
 >> 버스 임차, 대문별 공연 - 안내 방송, 90대 이상 고령자 이동
 함께라는 장곡 효도택사 장곡 >> 마을별 돌봄반장님 의견 반영 배수 조정



우리마을 돌봄반장
생활돌봄119 활동
주거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연계 취약계층 주거복지서비스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공동공간 및 취약계층 화상예방 캠페인 및 미니방파지매트 설치 지원
 장곡면 그림꽃마, 장곡면파사 / 돌봄주거복지센터 참여
 돌봄반장님 귀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연계 김승희
 예산 소모 후 장곡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마무리



주인자치의 연계
지역의제 발굴
인관협력

Point 1

주만 주도
관계 중심
돌봄일 구제

Point 2



Point 3



장곡면
돌봄망 구축 구상



장곡면
복지돌봄분야
활동 조직

일부	내용	주제 / 사업	세부내용
마을 공동체	개인생활돌봄 (가사, 식별, 청소, 영유아 돌봄 등)	함께하는장곡 사랑 마을 단위 활동 조직 마을청 '우리마을활동지원단' 신설 하심마을사랑 도시미용실 / 내마을에서로 겨울철 마을 방해물 / 지역사회의정당하게 일수록 사회 안전	장곡기 다방, 앞방, 마을세탁, 농번기 공공급식, 돌봄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수단, 방한 물품, 주택관리, 직업훈련, 취업 상담, 가전제품 관리서비스-이동발전, 생활물품, 교통수단 서비스, 치위생서비스, 무한 세탁, 스키리프트 서비스 등
	마을공동체활동	마을조직 및 단체 중심 마을로 찾아가는 행복자전거 마을 단위 방학, 복지, 복지, 복지서비스 등 복지	마을지원단/마을 중심 생활, 문화, 건강관리, 평생교육 등 지역 연계 '마을공동체' 마을주치마, 건강체조, 생활체육교육활동 등
노년	사회적노년 / 한부모	농림노년지원사업 중심 오래미용실/오래리노년생활지원사업 맞춤형노년/맞춤노년/맞춤노년사업 등	노년 중심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 노년 교육-돌봄-교육 활동 (노년/장기/노년/이주정년 등)
장곡면 /대형	노년맞춤돌봄서비스 노년맞춤돌봄사업 - 국가안전보장-유류 - 노인복지사업 - 노인맞춤돌봄사업	함께하는장곡 사랑 마을 단위 활동 조직 마을청 '우리마을활동지원단' 신설 하심마을사랑 도시미용실 / 내마을에서로 겨울철 마을 방해물 / 지역사회의정당하게 일수록 사회 안전	*우리마을활동지원단 등 마을 단위 활동 조직 * 장곡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선정 목표 전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 지원, 상담, 교육 등 노년맞춤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사업
전국	사회적노년 마을복지 단체 교육		마을지원단 교육 사회적노년, 한부모 등 전문인력 교육

2022년
장곡면
주민자치한마당



장곡면
품평망 구축 구성







거창 사회적농업 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

지역서비스공동체형



거사네 협동조합은

- 1. 마을회관을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여가프로그램' 운영
- 2.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활동
- 3.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향기소반농장'
- 4. 지역 어르신 중심의 활동을 하는 '좋은아침농장'
- 5. 반찬 나눔 서비스



1. 마을회관을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여가프로그램'





2.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활동

‘더 나은 삶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 연계업체

1. 청소, 방역 : 한일클린환경

2. 도 매 : 삼성장식

3. 세 탁 : 참크리닝



2.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활동 도배, 청소, 방역 사업



2.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활동 세탁사업(세탁물 수거->완료->전달)





3.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농장 '향기소반농장'



'여리고 상처 입은 마음,
향기로 치유하고 허브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4. 지역 어르신과 함께

'좋은아침농장'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배우다





5. 반찬 나눔 서비스

함께 먹는 반찬이 맛~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창사회적농업
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마을 큰 공동체"

조합원 소개



김현지



안정열



유명희



임준성



장갑용



정상희



김금희



황인희



윤영길



이연우



최유리



김유진



정재연



전민수



김옥순



고진석
감사



김지아
총무이사



심아름
교육이사



김인계
홍보이사



김광수
운영이사



박진숙
이사장





움직이면 학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
11870000000



움직이면 학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
11870000000



사회적농업 지역서비스 공동체
기록 및 책자 발행

사회적농업
지역서비스
공동체



학교생태텃밭정원 온라인교재 제작

학교생태
텃밭정원
온라인교재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활동동기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랑, 연차무소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복지지도 - 농민권 개선 사회단체와 협력회 - 지역별 연차나눔 사업과 복지지도 사업의 연계 - 실천방안과 및 해당 진행 - 2022년 2023년 대상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도 만들기		
활동주기관분	원4회(2월 ~ 11월)	활동지(1회당)	4시간
소요비용 (단위: 원)	12,000		
수혜대상	지역주민, 장애인, 장애인, 학교방학스님	연간(배우자까지)	540

복지지도 반찬나눔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③활동기관	죽림마을학교, 죽림농업발전연구소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청소년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다 지역 실권지 전화 - 공유농막 및 공유생장고, 공유미실 홍보 - 도서관 신문 제과 지원 		
활동주기(월차)	1회(3월 - 11월)	활동시간(회당)	4시간
소요비용 (단위: 원)	1,140		
수혜대상	지역 청소년	연간수혜자수(계)	135

청소년 커뮤니티

죽림마을학교
1187400123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④활동기관	합평마을교과사회복지협동조합, 주변자치회, 예술보, 대왕강 아지매들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마을밴드,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경(4월), 비둘, 동계, 연화, 옥사들 마을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 고정연, 청소년, 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마을밴드 운영 및 악기배우기 		
활동주기(월차)	월4회/ 격월1회	활동시간(회당)	2시간
소요비용 (단위: 원)	4,704		
수혜대상	지역주민, 장애인, 학생	연간수혜자수(계)	600

마을밴드,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합평마을교과
1187400123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⑤활동기관	합격마을교육지원청협동조합, 오강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마을목공) : 세대간 소통, 공유공간 확장 - 공유농작 실내 인테리어 - 공유농작 테크 설치 - 2월어장단회차에 공지 후 신청 받아서 진행 (가. 희망토, 참배, 분토, 비봉아름다운 후순위, 오세지에서 댄, 마을부터 진행) - 주민자치 프로그램 함께 남양마을, 연화마을 참가하는 비봉작공(3월)		
연간회수(계획)	2023월 - 11월)	활동시간(회당)	4시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3,600		
수혜대상	지역주민, 예비귀농인, 청소년	연간수혜자(회당)	180

마을목공

2023년 11월 11일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⑤활동기관	합격마을교육지원청협동조합, 한곡교, 마을학교, 숙기능원센터도서관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마을빵집) : 먹거리나눔, 문화공동체확장 - 월1회 빵 기술 배우기(한곡교와 일명, 조을 후 확정) - 연습공간 마련 및 홈페이지링 도구 마련 (3월) - 광주 물가에 원데이클래스 등 교육활동(2인 1회) - 디저트 및 음료기술 배움		
연간회수(계획)	15(3월 - 11월)	활동시간(회당)	4시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3,600		
수혜대상	지역주민, 장애인, 청소년, 고령인	연간수혜자(회당)	120

마을빵집

2023년 11월 11일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⑦활동기관	함평마을교육협동조합, 죽곡면주민자치회, 산재마을공동체, 문두레협동조합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농부장터) : 사회적경제, 나눔문화		
연간횟수(개회)	303월 ~ 11월	활동시간(회당)	4시간
소요비용 (단위: 원/월)	900		
수혜대상	지역주민, 예비귀농인, 관광객	연간누혜자수(개회)	420

농부장터

함평마을교육협동조합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
11월 11일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⑧활동기관	함평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죽곡농민발전도시회, 문두레협동조합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어르신사진교실) : 핸드폰, 소절, 문화소절 - 사회적농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사진, 촬영 기술을 가르쳐 드래 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기술, 원주 - 사회적농업 각 프로그램의 활동 기록 촬영 - 사회적농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인생사진 찍기, 행복영광 사진 촬영 - 어르신 사진교실 전시회 - 사진공모전 출품		
연간횟수(개회)	1003월 ~ 11월	활동시간(회당)	2시간
소요비용 (단위: 원/월)	840		
수혜대상	교원, 지역주민	연간누혜자수(개회)	100

어르신사진교실

함평마을교육협동조합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
11월 11일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⑨활동기관	함례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죽곡농민영양도시관, 꽃두레협동조합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부작사부작걷는독서) - 숲치유, 힐링, 인문학		
연간횟수(계획)	10(3월 - 11월)	활동시간(희망)	2시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600		
수혜대상	고령자, 지역주민	연간수혜자수(계획)	100

걷는독서 사부작사부작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⑨활동기관	함례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신태마을공동체, 한물고협동조합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공유냉장고) - 빅거리나눔, 공동정제		
연간횟수(계획)	상시	활동시간(희망)	상시
소요비용 (단위: 천원)	1,300		
수혜대상	지역주민, 빅거리원탁가구	연간수혜자수(계획)	500

공유냉장고



2023년 사회적농업지역서비스공동체(2년차)

III 활동기관	함해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죽곡면주민자치회, 죽곡농민발전도서관		
제공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공유미싱) - 의류수선, 밭치라만들기		
연간횟수(개회)	상시	활동시간(회당)	상시
소요비용 (단위: 원/월)	400		
수혜대상	지역주민	연(누적)가계좌	300

공유미싱

함해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1187-0000-1187

"작은마을 큰 공동체"

우리의 활동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함해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1187-0000-1187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 현황 보고

1. 조직현황

1) 조직도



고문위원

윤수경(서울 에코노농협), 신영오(대전 이모레)농협주임, 김진영(농협채사업단) 협동주식회사

자문위원

김영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인철(영동농협중앙회), 김경관(목포대학교), 최이철(영동농협경영혁신연구), 구사현(마음학회) 협조공
도, 박종태(제주연구원), 김경태(제주대학교), 조원수(신원연구원), 김지호(한국유기농업연구원), 이순이(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임원현황

직책	성명	소 속	소속내 직책	비고
회장	한석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대표	거점농장(2018)
이사 (회장포함 9명)	강은정	(주)누리	대표	지역서비스공동체 (2022)
	권영석	주식회사 그리니쉬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사회적농장(2021)
	이숙자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사회적농장(2019), 거점농장
	이용길	목인동 협동조합	이사	사회적농장(2020)
	이현주	농업회사법인(주)베리벨벳	대표	사회적농장(222)
	이효진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사회적농장(2018), 거점농장
	최선희	농업회사법인(주)땡큐베리팜	경영지원실장	사회적농장(2022)
	이은경	여민동락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사회적농장(2018), 거점농장
감사 (2명)	김용환	사회적협동조합 진도함께	감사	지역서비스공동체 (2022)
	서정훈	농업회사법인(주)콩세알	대표	사회적농장(2019), 거점농장

3) 회원현황

단체명	대표성명	주소
농업회사법인(주)하반하	이용선	강원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990-4
농업회사법인원주생명농업주식회사	박영학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철봉로6-12
화천현장 귀농학교 영농조합	박기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모현동로 58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이숙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로 42 (농업인회관2층)
(주)사탕수수	정현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113번길 106-35(대화동)
주식회사 그리니쉬 농업회사법인	권영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로 106번길 37
자연과함께하는 농장	고 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238-3
문화농업연구소 영농조합법인	이상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개매기길 100번길 8
강화마을협동조합	유찬호	경기인천광역시 강화군 김상면 해안동로 239
큰나무캠프힐	문연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428번길 70-11
진강산 마을 협동조합	안재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1691-8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김낙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길 173
농업회사법인 (주)콩세알	서정훈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배우개길69번길 27-13
금곡영농조합법인	선창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118-2
농업회사법인가뫼물주식회사	이정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68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주식회사	조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광로 12(노형동)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제원하늘	강성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북길 72-5
다운영농조합	양홍수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죽전길 202-8
거창사회적농업 지역네트워크	변화경	경상남도 거창군 소만3길 14-16, 농업회의소 2층

영농조합법인 수송대발효마을	우태영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실 434
예쁜마을사회적협동조합	김명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9, 1층 101호
농업회사법인클라우드베리주식회사	박정옥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210번길 128-6
(주)누리	강은정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화로 474번길 14-2
농업회사법인진양호힐링센터(주)	윤계자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414-15
지리산 해뜨네 농원	이영미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43-29
호미랑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도을주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62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박도한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오목천서길 129
힐링공유포	박형근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갈밭길 102 포니힐링농장
한우리글로벌협동조합	김훈배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향곡리 산41-1
발효체험학교 띄움	이보영	경상북도 영주시 안성면 용주로 1364번길 12
농업회사법인 베리벨벳	이현주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천로 321-12
별빛농부	김은희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매곡길 88-26
평평마을협동조합	강영수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소보안계로 1910
청송해뜨는농장	윤수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안현로 1011
(주)꿈바라기농업회사법인	권원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도솔로 17
야호해남	전병오	전남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천사베리영농조합법인	오승애	전남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입석길 264-7
생태농원 소향	김원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금오길 19-77
항꾸네협동조합	정의득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초곡길 59
함께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박진숙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명 오죽로 20-12
화탑 영농조합법인	김종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화탑길 61
모이라 농장	양재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434-1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이은경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 1길 95-61
농업회사법인 엘로우 창농(주)	이기영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죽탄쌍정길 8-11
드림공동체 영농조합법인	고훈숙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길 6
사회적협동조합 진도함께 (前 진도친환경으뜸울금 영농조합법인)	김용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송월길 20-27
농업회사법인행복한치유농장	원점순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외옥길 45-11
농업회사법인 꽃다비팜	임금옥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산3길 157 꽃다비팜
농업회사법인(주)레드	최희진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957
반햇소	전병술	전라북도 무주군
농업회사법인(주)파머스에프앤에스	김동영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지성길 209-52
소호팜하우스	선수진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81-11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지역경제순환센터
농업회사법인 연화산방	유성남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성남신리길 43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정종한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사지로 534
농업회사법인 같이	이정영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515-5
선거웰빙	박미	전북 임실군 선거리
홍성우리마을돌봄영농조합		충남 2022 사업포기(실무자부재)
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정선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길 137

농업회사법인 성원(주)	김진영	충북 보은군
노인및장애인이함께하는 진여울 협동조합 (前 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임익수	충북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왕로 305-69
(사)한국교통장애인세종시협회	길현명	충북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842-10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박영숙	충북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암골길 30-60
주식회사에코마실농업회사법인	조양숙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7길 52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정영숙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사랑골길 91-3
농업회사법인 샘여울(유)	윤해근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여드니1길 29-7
땡큐베리팜	임정훈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1길 16-37
지오팜	이재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83 2층
나눔영농조합법인	박영숙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상갑1길 7-3
농업회사법인 (주)청양푸드	북정한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길 90-97
농업회사법인 태안드림(주)	이민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붓드기길 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다운농장	정태희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793번길 35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473번길 79-22
농업회사법인 (주)라파마을 생태자연농장	윤성모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지수2길 13-7
청년마을 대표	한석주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 451번지
(주)희망그린마을	방대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길 245
농업회사법인 더자람교육농장(주)	조동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1길 16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절초연구소	정규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2길 15-9
쇠불리교육협동조합	김태웅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로 769-1

2023년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사업운영계획

1. 협회 역량강화

1) 협회 회원의 확대

- 농림축산 식품부 지정 사회적 농업 현장(농장+서비스공동체) 전체 회원화
- 자문위원회 내실화
- 정관 개정을 통한 사회적 농업 대상 확대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사회적농업 수행농장 및 수행사업 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발전에 기여하며, 소정의 회비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회원은 법인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2. 회원의 가입은 서면 혹은 전자우편 등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4. 회비는 가입비 (10)만원, 연회비(10)만원을 납부한다.
5. 가입비와 최초 연회비는 가입 시에 납부하고, 차회 연회비는 총회 전까지 납부한다.
6. 회비는 탈퇴 및 제명 시 반환하지 않는다.

※ 2021.05.12.(수) 이사회

- (충남형, 제주형 등)지자체 사회적농장 가입희망시....'사회적농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농장'. 가입절차 및 승인에 대한 협의의 운영규정 필요., 규정에 따른 가입승인 진행.

2) 회원과 협회간의 유대 강화

- 공동 판로와 홍보 강화
- 회원농장에 자긍심을 주는 협회
- 5년 지원 종료 농장 활성화방안 마련
-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2. 협회 정체성 강화

1) 거점농장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진행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정통성 확보

- 사회적농업 기본 연수 의무화
- 사회적농업 안내 책자 발행

* 예산 : 사회적농업 현장 클라우드 펀딩

* 내용 : 자문위원 김정섭 박사 중심 정리

(1부) 사회적 농업 기본서 : 개념서

(2부) 기본교육 교육 교재 : 22~23년 공통교육, 콜로키움 내용 분야별로 정리

(3부) 워크북 : 사회적 농업 활동 추진 실용서

3) 독자 사업 발굴

- 협회차원의 사회적농업 모델 발굴
- 펀딩

3. 사단법인 한국 사회적농업 협회 역량의 강화

1) 거점농장 실무자 교유 실시

- 목적: 사회적농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가로서 실무인력 역량강화
- 주관: 행복농장(1차), 힐링공유팜(2차), 다운영농조합(3차)

실무자 교육 개요

- (1) 일정 : 상반기 3회차 실시(2, 5, 8월 또는 2, 4, 6월)
(1회차) 2023. 2. 21. - 2022. 2. 22 / 장소: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
- (2) 시간 : 2.21 오후 1시 30분(4h)~ 2.22 오후 4시 30분(6h)
- (3) 방법 : 참여형, 토론형, 실습형 학습
- (4)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가로서의 비전(vision)과 역할 정립
 - 관계 맺기와 소통을 만드는 촉진자의 의사소통의 기술과 태도 이해
 - 워크숍 및 회의진행을 위한 경청, 질문, 기록 기술 습득
 - 참여자 중심의 교육, 워크숍 기획 및 설계
 - 사회적 농업 홍보와 확산, 발굴을 위한 주민 조직화 방법

2) 사회적농업 기본 교육(자료집 첫 페이지 일정표 참고)

- 취지 : 사회적 농장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 목적 : 사회적 농업 기본 개념 형성 및 공통 기본지식 습득

3) 사회적농업 심화 교육

- 취지 : 한국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교육 및 실천
- 목적 : 사회적 농장의 전문분야 역량강화 및 성과 모델 개발
- 주관: 여민동락 영농조합

4. 사회적농업 홍보

1) 대한민국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 사회적경제박람회 민관 공동추진위원회 참여(협약식 2023. 3. 9)
- 박람회 일정 : 2023. 6. 30(금)~ 7. 2(일), 박람회 장소 : 부산
- 참여내용 : 사회적농업 홍보부스(권역단위)운영, 부대행사('22년 사회적농업성과공유회)

2) 사이통신(사회적농업 소식지)

- 취지 : 사회적농업 현황과 내용을 교재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시기 위한 노력
전국의 거점농장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농업 참여농장의 소식을 모으고, 활동을 알리고, 생각을 듣고, 모으는 활동

- 형식 및 내용 : 웹진, 격월간(3, 5, 7, 9, 11월) 발행예정

제목	주제/내용
한국 사회적농업협회	(1) 한국사회적농업협회장 인사말 - 한국사회적농업협회장의 인사말을 담습니다.
	(2) 협회의 새로운 조직구조 소개 (변경이 있을 시) - 협회의 조직구조를 소개합니다.
	(3) 총회·이사회·사업 소식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에서 진행되는 사업 및 소식들을 담아봅니다. - 제천 / 기초교육 일정 및 내용, 행복농장 / 사이통신 발간 영광 / 중급교육, 사회적경제박람회 등
다양한 시선	(4)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활동가와 농장대표의 시선을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소감·느낌·생각들을 담아봅니다.
	(5) 광역단위 사회적 농업 사업 안내 -광역단위 사업 중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안내합니다.
가꾸는 실천	(6)농장 및 활동소개_ 거점농장 -지역별 거점농장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농장 및 활동소개_ 활성화농장 -활성화농장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농장 및 활동소개_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역서비스공동체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나누는 공부	(7) 사회적 농업관련 전문자료(5회 시리즈로 낼 수 있는 자료) -인터뷰&후다스 조사 결과 공유 -EU에서 실행한 사회적 농업 교육 과정 번역판
전하는 소식	(8) 사회적농업 소식 -각 거점농장별로 전하는 소식 1개씩 실기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기 업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이 메 일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홈 페이지			
업태 / 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서 류	①회원가입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100,000원 *총: 200,000

은행 : 농협) 301-0289-2204-81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보내실 곳 :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귀중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정보 수집·이용목적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사 관리, 조직사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함.

■ 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개인 : 대표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담당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 기업 : 기업명,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귀하는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소식지 등 안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온·오프라인 소식지 발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및 제공정보·목적

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사 관리, 조직사업(유통사업, 공공기관 안내 등)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함.	(필수항목) - 개인 : 대표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담당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 기업 : 기업명,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귀중

MEMO

MEMO